

2006學年度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

改革主義 觀點에서의 靈的戰爭에 관한 研究

(教會成長學派의 靈的戰爭 理解의 批判)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鄭 載 永

改革主義 觀點에서의 靈的戰爭에 관한 研究

(教會成長學派의 靈的戰爭 理解의 批判)

指導教授：崔 弘 錫

이 論文을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鄭 載 永

鄭載永의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2006年 12月

總神大學校 大學院

감사의 글

저의 평소 좌우명은 “지금 그리고 여기서(Now and Here)” 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 그리고 거기서(Next and There)”는 없기 때문입니다. 1996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후 꼭 10년 만에 신학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앞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 논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장 권위 있는 지표로 삼고 학문하는 개혁신학의 전당인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논문에서 밝혔듯이 성경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고 신학을 해왔던 결과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신학을 공부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해주셨던 최홍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인격과 학문하는 자세는 신학을 일평생 공부해야할 학도인 저에게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년간 목회자로써 나아갈 방향을 지도해 주신 영도교회 정중헌 담임목사님과 같이 동역하는 김형준 목사님, 김충호 목사님, 노윤행 목사님, 조승만 목사님, 박귀순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제자선교회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인 저를 오랜 기간 동안 섬겨주셨던 영도교회 성도님들과, 정재훈 회장을 비롯한 기드온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드온청년회의 제자반들은 저와 함께 수요일, 금요일밤 12시가 넘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밤 12시까지 성경공부가 가능할까”하는 의심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이 공부는 하나님의 사람 들을 많이 길러내는 양육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왔던 이유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기에, 사람 세우기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김주 희 간사님, 용승우 간사님, 이기철 간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고 교정과 컴퓨터 작업을 도와준 김상호 전도사님과 이재희 자매님에게도 감 사를 드립니다.

또 제 곁에서 늘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 아내 이기쁨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부요하지 않은 형편에서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일은 쉽지 않 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는 한번도 불평하지 않고, 개인영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채워 주었던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지며, 저의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마지막으로 몇 해 전 예수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아버님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어머니님, 그리고 동생 정미 내외와 재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 필리핀 땅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 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펼칠 터인데 “다른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귀 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7살 된 아들 선호도 아빠와 같은 비전을 깨달아 먼 훗날에 같이 동역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 차

I. 서론	1
A. 연구동기	1
B. 연구목적	2
C. 연구범위	4
D. 연구방법	4
E. 용어의 정의	6
II. 교회 성장학과	8
A. 교회 성장학파의 생성배경	8
B. 교회 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의 개념	10
1. 교회성장학파의 시초 맥가브란(D. A. McGavran) 신학	10
2.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	13
C. 교회 성장학파의 영적 전쟁 개념이 가진 신학적 내용들	15
1.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15
2. 지역 귀신의 존재(Territorial Spirits)	17
3.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	18
4.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	20
5. 능력대결(Power Encounter)	23
III. 교회성장학과 영적 전쟁이해의 생성배경	26
A. 역사적 신학적 배경	27
1. 이성 중심적 철학 사상	27

a.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28
b. 합리주의가 신학에 미친 영향	29
2. 감정 중심적 철학사상	30
a. 낭만주의	32
b. 초월주의	32
c. 실존주의	33
3. 두 사상에 의해 영향 받은 교회성장학과	35
B. 오순절 신학적 배경	35
1. 최초의 신비운동인 몬타니즘	36
2. 오순절 운동	37
3. 은사주의 운동(신오순절운동)	39
4. 오순절운동이 교회성장학파에 미친 영향	40

IV.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존 워버(John Wimber)의

영적 전쟁에 대한 입장 및 비판	41
A.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42
1. 이론적 배경	42
2. 성경적 근거	45
3. 영적 전쟁의 방법	53
a. 영적 전쟁의 3가지 수준	54
b. 영적 전쟁의 4가지 차원	55
B. 존 워버(John Wimber)	60
1. 이론적 배경	60
2. 성경적 근거	64

3. 영적 전쟁의 방법	69
a. 워버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	69
b. 능력 대결로서의 영적 전쟁	72
c. 능력 전도로서의 영적 전쟁	72
C. 교회 성장학파의 견해 비판 : 와그너와 워버를 중심으로	74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한계	75
a.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의 지나친 강조	75
b. 하나님나라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해 부족	78
2.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 표적과 기사의 이해문제	78
3. 주석적 근거의 빈약	82
a.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	82
b. 지역 귀신의 존재(Territorial Spirits)	83
c.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	89
d.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	93
e. 능력대결(Power Encounter)	97
4. 세계관의 한계	102
a. 와그너와 워버의 세계관 이해	102
b. 인도-유럽세계관의 한계	102
c. 마술적 세계관	105
5. 지나친 체험중심의 신학	107
6. 인간의 책임 소실	109
7. 하나님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계시	111
V.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114

A. 개혁주의 영적 전쟁	114
1. 영적 전쟁의 개념	114
2. 영적 전쟁의 대상	116
a. 영적 전쟁의 대상인 죄(罪)	117
b. 영적 전쟁의 경계 대상인 사단	119
3. 영적 전쟁의 영역	124
a. 영적 전쟁터인 인간의 마음	124
b. 인간의 마음 안에서의 영적 전쟁	125
c. 마음과 성화의 작용	126
4. 영적 전쟁의 방법	127
B. 영역 주권 사상에서 본 문화적 전쟁	130
C. 구약의 가르침	133
1. 창세기 3:1-5	133
2. 사무엘상 16:13-23	135
3. 열왕기상 22:6-28	136
4. 욥기 1:6-2:10	137
5. 스가랴 3장	138
6. 구약의 결론	139
D. 신약의 가르침	140
1. 마가복음 16:17-18	141
2. 사도행전 8:5-24	142
3. 고린도후서 12:1-9	144
4. 베드로전서 5:5-11	146
5. 야고보서 3:13-4:12	147

6. 신약의 결론	149
VI. 교회성장학과 영적 전쟁이해가 주는 개혁주의 진영내의 영향 ...	150
A. 중간영역에 인식과 영적 전쟁에 대한 현실 인식확장	151
B.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성령론과 선교의 상호 관계성의 재고.....	153
C.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의 재고 기류	154
VII. 결론	157
A. 요약	157
B. 평가	160
C. 제언	164
참고문헌	167
Abstract	176

I. 서론

A. 연구 동기

최근 들어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 아래 많은 책들과 가르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 전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회성장학과의 피터 와그너 사상의 인기는 대단하다. 이들은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직접적인 전쟁’이라는 이해 아래, 사단을 ‘매는 일’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푸는 일’¹⁾로 가르치며 직접 실행하고 있다. 와그너의 영향을 받은 홍성건은 매는 일과 푸는 일에 대하여 실제적인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²⁾하면서 그 조건을 만족 시킬 때 이러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공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을 보면 이러한 사상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자신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직장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죄 문제)의 원인을 사단에게 두고 있으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단의 계락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 기도로 묶는다.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들의 행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긴박한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1)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서울 : 서로사랑, 2000), p. 65.

2) ‘매는 일’에는 중보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조사와 정보 수집을 통하여 전략을 세우며 싸우는 것을 말한다. ‘푸는 일’에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삶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서울: 예수전도단, 1999), pp. 263-280.

과연 그러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인가? 사단을 묶지 않고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단 말인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묶어나 내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단 말인가? 교회 현장과 선교현장 가운데 이러한 사상은 크나큰 도전이 되고 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귀신론과 축사론 등이 널리 퍼짐으로 인해, 성도들이 온전한 성화를 위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영적 전쟁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은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를 비롯한 교회 성장학파의 제3의 물결운동 제창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 대한 개혁주의³⁾적인 입장의 정립을 통해서, 더 이상 비성경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영적 전쟁의 개념이 퍼지는 것을 막고,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B. 연구 목적

본 논문은 개혁주의적인 영적 전쟁의 개념과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교회성장학파의 제3의 물결운동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개념들을 정리하여 비판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의 개념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임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가지의 연구 질문아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면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로, 교회성장학파는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3) '개혁주의신학'이라는 말은 '개혁신학'이라고 불리 우기도 하고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러한 개혁신학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혁신학'이라는 말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경직되고 폐쇄된 성경이해와 해석에 대항하여,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를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인 루터, 쾰링거, 칼빈 등으로 대표되는 개신교신학자들 중에서도 루터파와 구별되는 칼빈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신학을 일컫는 말로 오래 동안 사용되어져 왔다.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p. 42.

어떤 신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학과 영적 전쟁의 생성배경인 역사 신학적 배경과 오순절 신학적 배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교회성장학파가 이해하는 영적 전쟁개념의 잘못된 이론적 배경, 성경적 근거, 영적 전쟁의 방법들을 연구하여 비판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존 워버와 피터 와그너의 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그들의 잘못을 밝힘으로써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교정할 것이다.

네 번째로, 개혁주의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 전쟁의 개념은 무엇이며 영적 전쟁의 대상,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영적 전쟁에 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함께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교회성장학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진영아래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고, 그들이 주장하였던 긍정적인 요인들을 고찰할 것이다.

연구 질문

- 1) 교회성장학파가 가진 신학적 내용들은 무엇인가?
- 2) 교회성장학과 영적 전쟁이해에 영향을 주었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 3) 교회성장학과 영적 전쟁이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4)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 영적 전쟁의 개념은 무엇인가?
- 5) 교회성장학과 영적 전쟁이해가 개혁주의 진영 내에 주었던 영향은 무엇인가?

C. 연구 범위

위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교회성장학파에 속해있는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에 의해 기록된 문서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개념들에 한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필자는 교회성장학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들을 살펴볼 것이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역사 신학적 배경과 오순절 신학적 배경들을 다룰 것이다. 교회 성장학파 안에는 많은 학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존 워버와 피터 와그너의 사상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이와 동조하는 다른 학자들의 이론들을 성경적으로 분석, 비판할 것이다.

개혁주의 관점의 영적 전쟁이란 에베소서 6:10-20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열렬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들을 청교도 및 개혁주의 진영안의 학자들의 문서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D. 연구방법

이 논문은 교회성장학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을 통해 개혁주의의 영적 전쟁이해가 성경적인 것을 밝히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교회성장학파에 속해 있는 학자들의 문헌들을 통해서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대부분은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존 워버(John Wimber) 및 그 밖의 교회성장학파 안에 속해있는 학자들의 저서들의 한 역본을 참고하며, 번역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번역의 경우는 원문을 참조하여

정리한다.

이들과는 반대로 정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 견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로 참고할 저서들은 데이비드 폴리슨(David Powlison)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폴 히버트(Paul G. Hiebert)의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의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와 「은사 1,2」, 김성태 교수의 「현대 선교학 총론」과 이대환 목사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의 번역서 및 한서들을 참고할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교회성장학과의 영적 전쟁 이해의 생성배경과 그 이해의 잘못을 비평하고 개혁주의 영적 전쟁이해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개할 것이다.

제 I 장은 서론으로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과 용어정의를 소개한다.

제 II 장은 교회성장학과의 생성배경과 교회성장학파가 가지고 있던 영적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의 영적 전쟁 개념이 가진 신학적 내용들인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지역 귀신의 존재, 영적 도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능력 대결 등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제 III 장은 교회성장학과의 영적 전쟁이해의 생성배경에 대하여 역사적 방법(Historical Method)으로 역사적, 신학적 배경과 오순절 신학적 배경을 연구하여 이들 사상이 어떻게 교회성장학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시한다.

제 IV 장은 교회성장학과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사람인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존 워버(John Wimber)의 영적 전쟁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서술적 방법(Descriptive Method)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제 V 장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한다. 올바른 영적 전쟁의 개념과 대상, 영적 전쟁의 영역과 영적 전쟁의 방법 등을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제VI장은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이해가 미쳤던 개혁주의 진영내의 영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중간영역에 인식과 영적 전쟁에 대한 현실 인식의 확장,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성령론과 선교의 상호 관계성의 재고와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의 재고 기류 등을 서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제VII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논지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개혁주의 영적 전쟁에 관한 제언을 통해서 잘못된 영적 전쟁의 개념을 재고하여 전통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성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E. 용어의 정의

위와 같이 논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용어를 전제하고 논문을 저술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성장학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교회 성장학파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찰스 크래프트 (Charles H. Kraft), 피터 와그너 (C. P. Wagner), 존 Wimber(John Wimber), 알란 티페트(A. Tippett), 아더 글라서(Arthur Glasser)와 랄프 윈터(Ralph Winter)등에 의해서 생성 발전되었다. 이들 모두가 영적 전쟁에 관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크래프트, 와그너와 Wimber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성장학파라고 부를 것이다.

둘째, 교회성장학파와 제3의 물결은 혼용하여 사용한다. 교회성장학파내의 중심인물 중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제창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운동은 오순절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성장학파와 제3의 물결운동이 영적 전쟁 이해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셋째,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들의 호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단(Satan)을

가리켜서 본래 존귀한 천사들 중의 하나로써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수령이 되었다고 보고,⁴⁾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마귀, 귀신 또는 악한 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넷째, 귀신축출이라는 용어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귀신을 내 쫓는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은 많이 있다. 우리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축사귀(逐邪鬼), 축귀(逐鬼), 축사(逐邪)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영어는 ‘Exorcism’ 으로 Webster 언어 사전에 보면 “① Exorcising 하는 행위 ② Exorcising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의식이나 언어적인 형식이다”고 말한다. ‘Exorcise’는 동사로써 “① 주문이나 의식적인 기도로서 악한 영이나 영들을 나오게 하거나 쫓아버리는 것에 사용되며 ② 드물게는 그러한 영이나 영들에게 간청하거나 명하는 것 ③ 그러한 영이나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⁵⁾ 각 단어의 뜻이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귀신을 축출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같은 의미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단어들을 통일하여 ‘축사(逐邪)’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섯째,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 또는 개혁신학이 서로 같은 의미임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필자는 또한 개혁주의신학의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라 생각함으로 개혁주의 영적 전쟁이해와 성경적 영적 전쟁이해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여섯째, 개혁주의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마음은 신자의 전 영혼을 부패와 불결로부터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작용인 성화가 시작되는 곳이며, 영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고,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다음 장에서는 교회 성장학과의 생성배경과 그

4)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p. 412.

5) Webster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2nd ed., 1980. p. 492.

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소개할 것이다.

II. 교회 성장학과

A. 교회 성장학과의 생성배경

교회성장운동의 시초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이다. 그의 제자 피터 와그너(C. P. Wagner)는 “맥가브란은 가히 교회 성장운동의 아버지로 평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운동의 발상은 그가 인도에서 연합 기독교 협회의 총무로 있었던 1930년대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⁶⁾라고 말했다.

맥가브란은 1937년부터 1954년까지 17년간 인도의 중심부에서 최전선 선교사로 일하였다. 그는 교육 사업, 나환자 구제, 병원 사역, 재난 구제, 농촌 재건, 전도를 계속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간의 선교를 통해 얻은 성도는 1,000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 활동과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원에 비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는 교회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아프리카의 7개국을 방문하여 20개 선교 본부가 세운 교회들을 연구하였으며, 교회 성장에 관한 자신의 원칙들을 상황이 다른 아프리카에서 실험해 보았다. 마침내 그는 모든 연구와 실험을 토대로 하여 1955년에 「하나님의 가교」(The Bridge of God)⁷⁾를 출간하였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후 「하나님의 선교전략」의 책을 통하여 교회 성장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맥가브란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 하는가」(How Churches Grow)⁸⁾의 책

6) C. P. Wagner, 「교회 성장학 개론」, 이재범 역, (서울 : 솔로몬말씀사, 1987), p. 10.

7) Donald A. McGavran, *The Bridge of God*,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5).

을 영국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교회성장과 인구요인, 교회성장의 일반적 요인, 교회 성장의 방법들, 교회 성장을 위한 조직과 행정을 다루었다.

맥가브란이 1965년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초대학장으로 선임되면서부터 성장학파는 구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맥가브란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교회성장 운동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다.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이해」(Understanding Church Growth)⁹⁾는 1970년에 출판되어 현재 교회 성장학의 고전이 되었다.

그는 1965년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안에 세계 선교 대학원 및 교회 성장 연구소를 신설하여 초대학장으로 섬겼으며, 그와 더불어 일했던 교수들은 알란 티페트(A. Tippett), 피터 와그너(C. P. Wagner), 아더 글라서(Arthur Glasser), 랄프 윈터(Ralph Winter)등이며, 이들과 함께 교회 성장 사상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들은 사회과학을 통한 복음 전파이론 및 교회 성장에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¹⁰⁾

1970년대에 피터 와그너는 그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여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이론적인 영역과 실천적인 영역의 두 가지 노선을 따라 발전시켰다.¹¹⁾ 그는 선교 및 교회 성장에 대한 제목으로 27권의 책을 썼고, 이 기간 동안에 「Your Church Can Grow」와¹²⁾ 「Your Church Can Be Health」를¹³⁾ 출판하고 교회 성장 독서회도 시작하였다. 윈피드 안(Winfied Arn)은 교회성장 연구소를 설립하고 교회성장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교회 성장 잡지 ‘America’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안 박사는 맥가브란과 함께 「교회는 어떻게 성장 하는

8) Donald A. McGavran, *How Churches Grow*,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59).

9)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 Eerdmans Publishing Co., 1970).

10) D. A. McGavran & G.G. Hunter, 「교회 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p. 14.

11) C. P. Wagner, 「교회 성장학 개론」, 이재범 역, op. cit., p. 323.

12) C. P. Wagner, *Your Church Can Grow*, (Grandale: Regal Books, 1976)

13) C. P. Wagner, *Your Church Can Be Healthy*, (Nashville: Abingdon, 1979)

가」와¹⁴⁾ 「교회 성장 열 단계」를¹⁵⁾ 저술하였다.

교회 성장의 초창기 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에서 진행되었다.¹⁶⁾ 그 후 미국 교계에도 적용되어 교회 성장에 관한 활발한 세미나와 문서운동을 통해서 교회성장운동은 미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¹⁷⁾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신학교가 교회 성장학을 정규과목으로 삼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성장학과의 정기간행물은 교회성장 이론과 사례연구의 유일한 자료였다. 현재는 거의 모든 기독교적 간행물이 교회성장에 대한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교회성장 운동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선교학’(Missiology)에 영향을 준 학과가 되었다.

B. 교회 성장학과의 영적 전쟁의 개념

교회성장학파가 큰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많은 비판들이 가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성장학의 시초인 맥가브란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주된 관심사인 영적 전쟁의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1. 교회성장학파의 시초 맥가브란(D. A. McGavran) 신학

a. 동질집단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

동질집단의 원리는 사람들이 인종, 언어,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고 신자가

14) D. A. McGavran & Winfried Arn, *How to Grow a Church*, (Grandale: Regal Books, 1973)

15) D. A. McGavran & Winfried Arn, *Ten Steps to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 & Row, 1977)

16) C. P. Wagner, 「교회 성장학 개론」, 이재범 역, op. cit., p. 18.

17) 장중열, 「교회성장학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p. 239.

되기를 원하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교회성장의 장애물은 영적, 신학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가족, 부족, 혈연, 친구 관계 등이 회심의 가교가 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위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비판을 받는다. 그 하나는 ‘인종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복음의 보편적인 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하는 것’과 ‘사회학적으로 맞지만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는 것이다.¹⁹⁾ 와그너도 이점에 대해 긍정하면서 동질 집단 선교 전략이 사회학적인 내용이 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성장 원리에서 삭제하였다.²⁰⁾

b. 수용성의 원리(Receptivity Principle)

수용성의 원리란 어느 사회와 집단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 복음에 대한 저항적인 집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복음전파의 방법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집단의 반응의 정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맥가브란은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갈릴리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수용적이고 베뢰아 사람들이 테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수용적이었다는 사실을 든다.²¹⁾ 이러한 선교 전략은 수용적인 그룹에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탐색 신학’²²⁾보다는 ‘추수 신학’²³⁾의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고 본다.

18)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op. cit., p.198.

19)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pp. 142-143.

20) C. P. Wagner,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London: MaRC Europe and the British Church Growth Association, 1986), p. 43.

21)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op. cit., p. 47.

22) 맥가브란이 말하는 ‘탐색 신학’이란 사람들을 찾아서 말과 적절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회심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교회의 설립의 시기는 결정적으로 지났다는 입장이다. 탐색신학은 회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의 수적성장보다는 변화된 생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23) 맥가브란이 말하는 ‘추수 신학’이란 삶의 증언을 통해 잃은 양을 단순히 찾아보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목자장 되신 주님은 찾는 일 뿐 아니라, 영혼들을 발견하여 세례를 주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나 종족에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신학이기 때문이다.²⁴⁾ 지역 성향 요인의 외적 요소에 따라 종교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종교성이 높다고 해서 복음에 수용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수용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라고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c. 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

집단 개종운동은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그 핵심을 간직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다. 그는 “교회성장의 적절한 이해는 집단개종에 관한 철저하고도 포괄적인 이해를 요한다”²⁵⁾고 말한다. 집단개종은 모두 동일부족 출신인 다수의 개인들의 공동결단으로부터 초래된다. 그들을 사회적 이동 없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그들의 비기독교인 친척들과 접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여러 해 동안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교훈을 받아 그 부족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교회들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²⁶⁾

이에 대하여 김성태 교수는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의 구심점, 또는 출발점은 복음이 아니라 민족주의이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모여진 것이라고 말한다.²⁷⁾ 이렇게 되면 성경의 원리는 2차적 결정 기준이 되며, 이런 조건에서는 복음이 개인의 인격 변화를 촉진시킬 수 없게 된다.²⁸⁾

24)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op. cit., p. 144.

25)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op. cit., p. 296.

26) Ibid., pp. 297-98.

27)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op. cit., p. 142.

28)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서울: 샘인쇄, 1997), p. 70.

2.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

교회성장학의 입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존 Wimber(John Wimber)를 들 수 있다. 피터 와그너는 선교사였고 교회성장학의 교수였으나 17년간 볼리비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한번도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 쫓아낸 적이 없었다. 그의 신학적 배경 또한 성령의 은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대주의 자였으나 존 Wimber와의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존 Wimbe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좋은 친구요 동료인 존 Wimber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영역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풀러 신학교 교과과정에 'MC 510'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다. 나 자신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성령론을 말하기 전에 그 일부가 되었다.²⁹⁾

그는 '제3의 물결'이란 용어를 만들어 그 운동을 이론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는데, 초기만 해도 교회안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가 교회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했다는 뿐이었다. 그가 성령의 은사를 교회성장이라는 면에서 접근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1979)이라는 책에서 었다. 와그너는 자신의 치유경험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교회성장과 관계성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영적 전쟁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견해는 세 가지다. 첫째는 지상수준의 영적 전쟁으로 이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말한다. 둘째는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으로 뉴 에이지, 무당, 주술가, 마술사, 사단 숭배자, 점쟁이 등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사역 장면에서처럼 일반적인 귀신과는 주

29) C. P. Wagner,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서울 : 임마누엘, 1987), p. 12.

술적인 차원의 싸움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는 전략적 수준의 전쟁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다 더 악한 영인 지역 귀신과의 싸움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에 있는 용과의 전쟁에서처럼 지역 귀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³⁰⁾

피터 와그너가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신학화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존 Wimber는 이를 실천적으로 목회 현장에 접목을 시킨 사람이라 하겠다. 존 Wimber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교회성장운동과 연결된 것은 1974년 찰스 폴러의 전도와 교회성장연구소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그는 거기서 오순절 계통의 제3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적과 기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치유를 위해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1978년부터 한 여성의 병이 낮게 된 치유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집회에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나뒹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후 놀랍게 부흥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일어난 성장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영적 전쟁이란 “교인들이 치유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활용”하는 차원에서 “능력전도”라고 말하였다.³²⁾

존 Wimber는 예수님이 통치하신 사단의 네 가지 활동영역을 “귀신, 질병, 파괴적 자연, 죽음의 영역”이라고 말한다.³³⁾ 첫째 귀신축출은 예수님이 직접 공격하신 선교의 우선목표이고, 둘째 질병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써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에 관련 된 것이다. 셋째 예수님께서 자연의 광란 안에서 사단의 활동을 보시면서 이런 파멸의 세력과 싸우셨고, 넷째 죽은

30)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cit, pp. 18-21.

31) John Wimber, 「능력전도」, 이재범 역,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1), p. 57.

32) Ibid., p. 85.

33) Ibid., p. 84.

자를 살리신 역사는 사단의 존재와 세력이 예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표현이다.³⁴⁾

웬버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대상이 이런 종류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능력치유」라는 책에서 치유의 사역은 영의 치유, 과거에 입은 마음의 치유, 귀신들림과 정신질환의 치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죽어가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에 대한 치유로 나뉘어 설명하였다.³⁵⁾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존 웬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목회적이며 치유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의 개념은 피터 와그너가 히버트의 중간영역 이론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체계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중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적 사단과 그 졸개들인 악마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과의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C. 교회 성장학파의 영적 전쟁 개념이 가진 신학적 내용들

1.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 「기도는 전투다」에서 영적 전쟁을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지상수준의 영적 전쟁(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둘째는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뉴 에이지, 무당, 주술가, 마술사, 사단 숭배자, 점쟁

34) C. Peter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New York Haper & Row, 1981), p. 136. John Wimber, 「능력전도」, 이재범 역,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1), p. 136에서 재인용

35) John Wimber & Kevin. Springer, 「능력치유」, 이재범 역, (서울 : 나단, 1991), p. 114.

이 등에 행하여지는 것), 셋째는 전략적 수준의 전쟁(보다 더 악한 영인 지역 귀신과의 싸움)이 그것이다.³⁶⁾

위 세 가지 전쟁 가운데 와그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은 바로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보다 더 악한 영인 지역 귀신과의 싸움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용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 나타난 기사를 보면 와그너의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영적 전쟁이라는 기치 하에, 수많은 복음주의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소위 우주적인 흑암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단의 세력이 지구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에 긴박감을 느낀 여러 선교 단체들과 대교회 목회자들이 각 도시와 나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악령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느라고 분주하다.

이러한 운동에 부응하는 몇몇 지지자들의 주장에 의하며, 집중적인 기도모임으로 말미암아, 자유연애를 주창하던 힌두교 지도자 바웬 쉬리라즈니쉬의 세력이 1987년에 오레곤에서 몰락하게 되었으며, 또한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하계 올림픽 기간 동안 범죄율이 2주 연속 하락하였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풀러 신학교 교수인 피터 와그너 교수는 파사데나에서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투와 관련한 “정상”모임을 인도했다. 이 모임에는 소위 “중재 본부”라고 하는 모임을 이끄는 텍사스 출신 부부와 또한 오레곤 출신의 “영적 전쟁 신병 훈련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24명의 남녀들이 참석했다.”³⁷⁾

와그너는 지상적 수준의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전략적 수준의 싸움은 소수의 특별한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무장시키신다고 주장한다. 결국 영적 특공대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므로 믿음의 수준을 네 단계³⁸⁾로 나누었던 초기

36)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p. 18-21.

37) John Dart, Evangelicals, *Charismatics Prepare for Spiritual Warfare*, Los Angeles Times, 17 February 1990, p. 16.

38) C. Peter Wagner는 믿음을 네 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수준은 구원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수준은 성화시키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교의 믿음으로서 로버트 솔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네 번째 수준은 최고의 수준으로서, 4차원의 믿음으로 불리워 진다. 4차원의 믿음에서

가르침과 유사하게 다시 영적 전쟁에서도 위계적인 수준을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지역 귀신의 존재(Territorial Spirits)

티모시 워너는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이 지역 귀신들과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다니엘서³⁹⁾에 나오는 바사 왕과 헬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각 나라들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⁴⁰⁾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신약성경의 언급도 이런 근거라고 말한다.⁴¹⁾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나는 정말로 사단이 귀신이나 귀신들의 군대를 세상의 곳곳에 배속시킨다는 것과 그 귀신들이 우리가 씨름하는 정사와 권세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⁴²⁾

이러한 생각들은 사단 혹은 귀신들이 어떤 지리적인 영역이나 도시 혹은 어떤 지방을 할당받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피터 와그너 역시 티모시 워너의 도움으로 이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와그너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논하면서 지역신 개념을 다루었다. 결국 능력을 통하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며, 조용기 목사가 대표적인 경우에 들어간다. 와그너는 이 4차원의 믿음 수준에서 힘의 전도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을 지역 귀신 개념과 연관하여 귀신을 추방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고 기사와 이적을 수반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의 전도라고 정의한다.

39) 다니엘 10:13,20

40) 마태복음 12:29

41) Timothy M. Warner, 「영적전투」, 안점식 역, (서울 : 죠이선교회, 2005), p. 152.

42) Ibid.,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계시록은 마귀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 음녀는 복음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원수이며 핍박과 박해받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존재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 음녀를 보고 ‘크게 기이히 여겼다(계17:1)’. 여기서 음녀란 어느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지역 귀신(territorial spirit)을 말한다. 음녀는 세상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계17:15).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 사회의 조직을 악으로 다스리는 자들마다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어느 지역이나 조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를 ‘지역 귀신’이라고 부르고 싶다.⁴³⁾

위의 사실을 언급 한 후 그의 책 「기도는 전투다」에서 성경시대와 오늘날의 시대, 특히 현대 인류학과 선교학이 지역귀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⁴⁴⁾

3. 영적 도해 개념(Spiritual Mapping)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조지 오티스(George Otis, Jr)⁴⁵⁾의 책 「The Last of the Giant」인데, 그는 여기서 “세계를 보이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⁴⁶⁾ 이 이론은 피터 와그너가 편집하여 1993년 출판된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43)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p. 99-100.

44) Ibid., p. 101.

45) 그는 YWAM소속 선교사로 사역한 바 있다. 그리고 The Sentinel Group의 설립자 겸 대표이며, C. Peter Wagner와 함께 A. D. 2000운동의 연합기도위원회에서 영분별도 분과를 이끌었다.

46) George Otis Jr, *The Last of Giant : Lifting the Veil on Islam and the End Times*, (Grand Rapids: Chosen Books, 1991), p. 85.

Effective and Targeted」라는 책에서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책은 신디 제이콥스를 비롯한 8명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으며, 피터 와그너는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영적 도해이론은 지역 악령에 기초하여 각 지역에 어두운 세력들의 요새가 있으며, 이를 파괴해야만 복음전파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걸모습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실체를 파악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드러내어 선교를 위한 기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신디 제이콥스(Cindy Jacobs)⁴⁸⁾는 악령들의 요새를 파악함에 있어서 요새의 종류를 밝힌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새”⁴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이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의 요새”, “이데올로기의 요새”, “밀교적인 요새”⁵⁰⁾, “사회적 요새”, “도시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요새”, “사단의 진지”⁵¹⁾, “분파주의적 요새”⁵²⁾, “죄악의 요새”⁵³⁾ 등이 있다고 말한다.⁵⁴⁾ 이러한 사단의 요새들을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론으로 쉘 쇠버그(Kjell Sjoberg)⁵⁵⁾는 6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47) 문상철, 「영분별도 이론의 신학적 문제」 <현대선교 제6호>,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4), pp. 31-32.

48) Cindy Jacobs는 남편 Mike와 함께 General of Intercession을 설립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와 나라와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략적인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기도운동의 지도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49) 개인적인 죄, 사상, 감정, 태도, 행동 패턴을 말한다.

50) 마술, 사단숭배, New Age 운동을 말한다.

51) 특정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심하게 억압되고, 사로잡힌 곳을 말한다.

52) 교회에서의 분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교단주의적 이상을 말한다.

53) 선대의 죄악이 후대에 전수되는 것으로서 문화적으로 작용하며, 교회의 교단이나 개교회 상황에 서도 작용된다고 본다.

54) Cindy Jacobs, "Dealing with Strongholds" In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Edited by C. Peter Wagner,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3), pp. 80-93.

55) 스웨덴의 A.D. 2000연합기도운동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국 위원장으로 일했다. 스웨덴을 위한

첫째, 그 나라의 주요한 이방 신들은 누구인가? 둘째, 다산(多産)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단, 신전, 신성한 장소는 무엇인가? 셋째, 왕이나 대통령이나 부족 추장 가운데서 살아 있는 신이라고 받아들여진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가? 넷째, 땅을 더럽힌 피 흘림이 있었는가? 다섯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여섯째, 과거의 권력의 자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서 그 곳에 악령의 요새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⁵⁶⁾

4.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⁵⁷⁾

찰스 크래프트는 나이지리아 선교사 출신으로 풀러신학교에서 선교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영적 대결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적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한 저주, 혹은 부모와 조상들이 받은 저주에 의한 피해자들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부모나 조상들이 받은 저주로 인해 내담자들은 부모 혹은 조상들로부터 온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전래되어 귀신에 들리는 피해자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⁵⁸⁾

그는 축복과 저주는 세대를 통해 대물림되는데, 유전을 통해 전래된다고 주장한다. 구약을 보면 가계를 통해 유산으로 물려받은 복에 관한 여러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중보기도운동에 10년 이상 일해 온 사람이다.

56) Kjell Sjoberg, "Spiritual Mapping for Prophetic Prayer Actions" *In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Edited by C. Peter Wagner,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3), pp. 110-114.

57) 이주제와 관련되어 한국에서 발간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Marilyn Hickey,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최기운 역(베다니, 1997); Marilyn Hickey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엄성옥 역,(은성, 1998); 이윤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베다니, 1999); 이윤호, 찰스 크래프트 공저 「가계의 복과 저주전쟁에서 승리하자」(베다니, 2005); 레베카 브라운, 데니얼 요더, 「뜻 모르게 당하는 고통 풀리지 않은 저주 때문이다」(나침반, 1998)

58) 이윤호, 찰스 크래프트 공저, 「가계의 복과 저주전쟁에서 승리하자」,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5), p. 49.

다윗,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에게 관대함을 베푸신 모습을 통해,⁵⁹⁾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이 여러 세대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과 보호를 가져오게 됨을 보여준다고 이해한다.⁶⁰⁾

또한 십계명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 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책임을 지는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계속해서 그는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 하였나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설명한다.⁶¹⁾

크래프트는 가계 저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단의 공격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대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말하기를 경험을 통해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성경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주가 있으며 선교사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저주를 하나님의 권세로 과기할 때 엄청난 자유를 경험한 많은 목회자들을 보았다고 한다.

크래프트는 잠언 26장 2절의 “까담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저주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주가 일어날 장소나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내부의 쓰레기는 사단이 한 개인의 삶에서 이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쓰레기나 감정적 쓰레기는 유전적, 대물림, 우리 자신의 선택, 우리를 지배하는 권위자의 선택, 그리고 역경과 학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등 여러 가지 통로로 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서하지 못한 것, 쓴 뿌리, 정욕, 분노, 증오 혹은 자기 거부와 같은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남아 있다

59) 출애굽기 1:7; 여호수아 24:31; 열왕기상 11:34-36; 열왕기하 8:19

60) Ibid., pp. 61-62.

61) Ibid.

면 이런 모든 죄들은 저주가 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의 영적이고도 감정적인 쓰레기 등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제거함으로써 사단의 저주의 통로를 차단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⁶²⁾

크래프트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비들의 죄가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될 수 있다고 한다. 감정적 문제나 죄, 병 혹은 중독증을 야기하는 유전적인 것 외에도 유전된 가계의 영들이 그 가족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⁶³⁾ 메릴린 히키(Merilyn Hickey)⁶⁴⁾는 이러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⁶⁵⁾

첫째,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물려받는 저주나 죄악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죄의 가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아버지 쪽의 조상들, 어머니 쪽 조상들의 죄를 조사한다. 이 조상들의 죄악목록을 작성하고 그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둘째, 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 나타난 악한 열매의 근원들이라 생각되어지는 목록을 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감추어진 것들을 계시하여 달라고 구해야 한다. 즉, 다니엘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한 것처럼 자신 및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셋째, 가계에 흐르는 죄악과 관련하여 믿음의 선언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가계에 흐르는 죄악을 이겼음을

62) Ibid., pp. 70-71.

63) Ibid., p. 73.

64) Merilyn Hickey는 그녀의 가계 저주론을 근거로 한 Merilyn Hickey 미니스트리의 창립자요 사역자이다. 그녀의 책이 한국에 1997년에 번역 출간되면서 2002년까지 나온 책이 26쇄를 말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되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말미암아 가계저주론에 대한 지지자, 비판적 지지자, 그리고 비판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상반된 반응이 생겨나게 되었다.

65) Merilyn Hickey,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2), pp. 151-203.

선포해야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신의 가족들 삶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축복을 말하여야 한다.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가계에 흐르는 저주들이 깨졌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5. 능력 대결(Power Encounter)

필 과살은 모든 이슬람교도들을 민간 이슬람(Folk Islam)이라 보고 30%만이 정통적인 이슬람교도라고 한다. 70%의 민간 이슬람교도들은 온갖 미신과 신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간 종교적 모슬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티모씨 워너는 대부분의 미전도 세계가 정령 숭배 주의자들이라고 하고, 스티븐닐(Stephen Neil)도 세계인구가 40%가 정령 숭배자라고 주장한다.⁶⁶⁾

이와 같이 정령숭배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많은 무기력한 경험들을 하면서 비기독교적인 영적 능력에 대항하게 되었다. 폴 히버트는 인도선교에 있어서 성경의 세계관과 인도의 세계관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중간 영역인 초자연적이며 또한 이세상적인 존재들과 힘들에 대한 믿음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로서 히버트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경험적 세계를 다루도록 훈련을 받아왔으며 또한 신학자로서는 유신론적 관점에서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중간영역에 있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인도의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들이나, 지역 조상들이나 지역 귀신들 혹은 동물의 혼들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는 선교적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⁶⁷⁾ 티모씨 워너도 서아프리카의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정령숭배의 세계관과 귀신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여 당황했었다고 한

66) Cailyn Van Rheenen, *Communicating Christ in Animistic Context*, (Grand Rapids: Baker, 1991), pp. 25-27.

67)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역,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7), pp. 249-259.

다.⁶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능력대결의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성경 속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능력 대결이라고도 하고 힘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알란 티펫(Alan Tippett)이다. 알란 티펫은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귀신들과의 싸움을 ‘능력 대결’(Power Encounter)이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이 능력대결의 의미는 물활론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재가 극적으로 나타남으로 저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종교적 가치체계를 압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수용성 있는 마음을 예비케 한다는 것이다.⁶⁹⁾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세력들이 충돌하는 현상이 능력대결이라고 말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영혼을 위한 승리 또는 패배라는 판결을 놓고 영적 전쟁, 능력 대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⁷⁰⁾

피터 와그너는 티펫이 말한 물활론적 세계관을 폴 히버트의 중간 영역의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있다. 폴 히버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초문화적인 고등 영역과 피조물로서의 천사와 타락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이 속해 있는 비절대적이며 초문화적인 중간 영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적이며 문화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다.⁷¹⁾ 와그너는 중간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 존재인 귀신의 실재를 믿고 있으며 초문화와 문화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와그너는 중간 영역의 세계관이 압도적인 세계 2/3지역에서 능력대결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모든 생활이 초자연적 존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단의 실재가 강하게 나

68) Timothy M. Warner, 「영적전투」, 안점석역, (서울 : 죠이선교회, 2005), p. 15.

69) Alan R. Tippett, *Verdict Theology in Missionary Theory*, (Lincoln: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1966), pp. 70-88. 이외에도 *Introduction to Missiolog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7), pp. 82-85이다.

70) Timothy M. Warner, 「영적전투」, op. cit., p. 130.

71) Paul G. Hiebert, "The Flaw of the Excluded Middle" in *Missi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l. 10, No 1, January, 1982, pp. 35-47.

타나고 있는데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⁷²⁾

와그너는 능력대결을 일컬어 “부족집단이 섬기고 두려워하는 거짓 신들에 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이다”⁷³⁾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하수인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현상이나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존 Wimber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능력대결의 사건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라고 한다. 그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한다고 비방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공개적인 대결을 제안하였다. 아합이 이를 받아들이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을 완전히 제압하셨다 …… 이는 엘리야가 사단의 세력을 격퇴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공세를 펼친 사건이었다. ……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주시어 자신의 임재를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종이 승리한 것이었다.”⁷⁴⁾

결국 Wimber도 성경에서 분명한 능력대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움에 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실재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말하면서 “귀신들린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내 쫓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끈질기게 싸움에 임함으로써 그 귀신을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⁷⁵⁾까지 말하였다.

72) Peter Wagner, *The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Ann Arbor: Servant Publications, 1988), pp. 30-35.

73) John Wimber, 「능력전도」, 이재범역, op. cit., p. 45.

74) Ibid. p. 46

또한 래리 리(Larry Le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동서남북에 대한 흑암의 세력을 묶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죄사슬을 들고 서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친 이후, 특별한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열두 달 동안 3,400명이 구원 받았다”는 경험을 말하고 있다.⁷⁶⁾ 이와 같이 능력대결을 주장하는 자들은 능력대결을 하나님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에서 교회성장학파가 가진 영적전쟁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전쟁에 관한 사상적인 배경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III. 교회성장학파 영적 전쟁이해의 생성배경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 이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관이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칭하는 말이다. 왈쉬와 미들톤(Walsh and Middleton)은 세계관을 ‘인식의 틀’(perceptual framework)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⁷⁷⁾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에 대하여,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혹은 전제)들”이라고 말했다.⁷⁸⁾

종합해 보면 세계관은 그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전제들이므로 교회성장학파가 가지고 있는 사상 역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향을 받은 전제들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75) Ibid., p. 44.

76) Larry Lea,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무기」, 김양배 역, (서울 : 도서출판 예인, 1993), p. 220.

77) Brian J. Walsh & J. Richard Middleton,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역, (서울: IVP, 1995), p. 18.

78) James W.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역, (서울: IVP, 1995), p. 20.

미국중심으로 일어난 교회 성장학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서구 사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실천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교회성장학파의 신앙과 실천에 영향을 미쳤던 사상은 역사적배경의 이성중심의 철학의 영향인 합리주의(합리주의신학)와 감정중심의 철학의 영향인 경건주의, 낭만주의, 초월주의, 실존주의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회성장학파는 오순절 신학적 배경 안에서 일어난 사상임으로 최초의 신비운동인 몬타니즘과 제1의 물결(오순절운동), 제2의 물결(은사운동)에 이어지는 제3의 물결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을 고찰해보고 교회성장학파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살펴볼 것이다.

A. 역사적 신학적 배경

1. 이성 중심적 철학 사상

헬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중세에 이르러 스콜라 철학으로 발전하였으며, 다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현대에는 실용주의로 발전했다. 이들 사상은 인간 중심적 사상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의 이성이 성경과 계시의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초기 이성론자들의 출발은 논리학과 수학이었지만 그들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들의 사유에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합리적 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우주에 대한 자신들의 합리적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며, 인간은 단지 자연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어 고정된 사실들 속에서만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a.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서구의 사상적 흐름에 있어서 중세의 전통적 사고가 급격한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은 계몽주의(Enlightenment) 때문이다.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성의 힘을 신뢰하는데 있다. 이성의 원리는 외적 세계에 대한 구조나 실재들을 발견해냄으로써 모든 우주적 근본을 깨닫는 능력이며, 더 나아가 우주와 인간의 내면적 질서는 합리성에 기초해서 존재하는 고로 이성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질서 내지 조화를 탐구하는 데에는 그 어떤 외적 권위나 초월적 계시도 필요로 하지 않다. 다만 인간의 자율적 능력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즉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나 교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율적인 인간의 힘과 이성적 사유의 능력이라고 여기게 되었다.⁷⁹⁾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주의철학자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그의 저서 ‘방법서설’(The Discourse on Method)에서 이성의 탁월성을 주장한 것은 현대 정신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데카르트는 최초의 현대 철학자로 불리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중세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었으나 한편 그에게서는 새로운 출발점을 보여주는 사상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일종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이다.⁸⁰⁾

데카르트가 유신론적 합리주의자라면 스피노자(Spinoza)는 범신론적 합리주의자다. 그가 기본 개념을 실체(Substance)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통해 이해되어 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 존재하고 이 같은 실체는 하나님이나 자연 중 어느 하나로써 간주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 내재하신다고 하여 “신은 만물의 내재적인 원인이

79) 문석호,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는 현대신학의 이해」, (서울: 솔로몬, 2000), pp. 37-39.

80) Colin Brown, 「철학과 기독교 신앙」, 문석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 83.

지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고, 신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 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게 되었다.⁸¹⁾

b. 합리주의가 신학에 미친 영향

합리주의 시대는 서양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통적인 관점들에 대한 도전과 사상의 재개편 작업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아마도 종교적 믿음이라는 측면보다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난 분야는 없을 것이다. 이성의 시대는 문화가 교회와 기독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때였다.⁸²⁾

합리주의의 산물인 이신론(Deism)자들은 말하기를 “신학자들은 종교를 자신들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라 믿었던 기본 원리들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자연 종교가 합리적이므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자연 종교로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⁸³⁾ 합리주의 신학자였던 파울루스(Heinrich E. G. Paulus, 1761-1851)는 1811년 Heidelberg의 신학교수로 취임하여 90세까지 봉직하였다. 그는 성경의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예수의 생애”에서 정의했다.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은 비계몽시대에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취급해 버린 자연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⁸⁴⁾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 1808-1874)는 튀빙겐 대학에서 낭만주의, 신비주의, 자연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835년 27세의 나이로 “The Life of Jesus Critically Examined”으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는 예

81) Ibid., pp. 85-89.

82)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서울: IVP, 2003), p. 29.

83) Ibid.,

84) 박형용, 「복음비평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8), pp. 49-52.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서울: 샘인쇄, 1997), p. 22.에서 재인용.

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가 처음에는 자신이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다가 점차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했다”고 한다. 그는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 사건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⁸⁵⁾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계시가 이성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성과 계시가 상충하게 되면 결국 이성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계시와는 별도의 경험적 관찰에 강조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자연이 그들의 교회였다면 이성은 그들의 성경이었던 것이다.⁸⁶⁾

산업 혁명과 신무기의 발달 등으로 세계를 장악해 가던 서구 세계에는 188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면서 무한한 진보와 가능성을 믿는 학설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의 합리주의 사상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적 사고가 모든 것을 채워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20세기가 되면서 미국은 대공황이 시작되었으며,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깨어지고 자기 자각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⁸⁷⁾

2. 감정 중심적 철학사상

이성이 인간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에 반하는 감정도 인간의 한 부분이며, 과학이 자연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인간의 감정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다. 인간은 이성이나 과학을 통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감정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며 불행과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였고,⁸⁸⁾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능력(이성)이 욕구능력(감

85) Ibid., p. 23.

86) Michael S. Horton,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김영재 역, (서울: 나침반, 2001), p. 195.

87)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op. cit., p. 24.

88) 조정옥,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p. 18-24.

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았다.⁸⁹⁾ 데카르트는 모든 감정을 영혼의 수동성으로 보고 있으며 감정의 존재목적은 자기 보호 및 보존으로 보았다. 스피노자는 감정에 의해 속박 당함은 이성적 합리적 통찰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감정을 혼란한 관념이라고 정의하였다.⁹⁰⁾

인간의 정신은 이성과 감정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졌지만, 계몽주의적 경험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앞서서와 같이 인간의 이성만을 앞세우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인간은 이성의 개념적 사고를 통하여 근원적 지식을 알게 되지만 느낌이나 감정은 그 지식의 위에서 얻어지는 부차적인 것 정도로 여겨왔던 것이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에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거나 지나치게 교리적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정과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는 사상과 교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험 위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예언과 은사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 초대교회시대의 몬타니즘이⁹¹⁾그 한 예이다. 또 17세기에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은 정통적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적 진리들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주관적인 “경험들”을 강조하고 개인들의 헌신과 금욕주의적 생활을 실천하는데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신비주의적 발로에 의한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건전하게 발전하여 모라비안파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또 감리교회는 영국의 지도적 교회들이 이미 이성주의와 데이즘(deism)의 물결에 굴복한 다음의 시기에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교회 성장학파의 사상적 배경 역시 이러한 감성중심의 철학사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9) Ibid., p. 24-25.

90) Ibid., p. 26-32.

91)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pp. 202-206.

a.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부로부터 나오는 직관적인 인상에 더욱 헌신하였다. 낭만주의가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서 나왔다. 인간은 선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 절대적 자유, 즉 전통, 과거, 제도와 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였다.⁹²⁾ 버나드 리어든(Bernard Reardon)은 낭만주의적 반작용은 “경험에 대한 새로운 호소를 통하여 뉴턴 적인 ‘이성’의 추상성에 반대하고 나왔다”라고 특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중심은 “물론 인간 자신이다”라고 말한다.⁹³⁾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는 새로운 형이상학적, 초월적 이단들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들은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움직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부류가 퀘이커교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 시기 동안에 성장하였다. 많은 퀘이커교도들에게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아니었다. “내적인 광채”가 권위였다. 이것은 합리주의자들에게 이성이 권위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들은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을 배격하였다. 그 이유가 성례전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b. 초월주의

미국 내에서 낭만주의가 끝나고 초월주의가 시작되는 시기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에머슨과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헨리 데이비드 써로우(Henry David Thoreau)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작가들은 자연과 자아를 노래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에서 내용을 차용해 왔다.⁹⁴⁾

92) Michael S. Horton, 「미국계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op. cit., p. 202.

93) Bernard Reardon, 「낭만주의 시대의 종교」(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vii. Michael S. Horton, 「미국계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op. cit., p. 203.에서 재인용.

1830년대 유니테리안이 장악하고 있었던 보스톤에 초월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류가 부상하였다. 유니테리언 내부에서조차도 이들을 이단적으로 보았다. 이 사상의 추종자들은 물질적이고 유형적이며 객관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영(靈)의 원천에 도달하여 그 공급을 받기 원했다. 신성과의 합일을 꿈꾸었던 그들 초월주의자들은 그 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스톤의 지성인들은 점차 이신론에서 범신론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초자연주의는 알미니안이나 유니테리안도 말하지 못한 “인간의 신격화”까지 주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청교도적인 신앙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죄와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견해를 포기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성경의 절대적 신앙을 인간의 감성의 수준으로 약화시켜 버렸다.⁹⁵⁾ 이러한 초월주의는 2세기의 이단인 영지주의와 중세의 이원론 및 신비주의와 그리고 미국에서 초월주의가 상승세를 타던 때의 프랑스의 농촌 지역에서 있었던 열광주의자들(the Enthusiasts)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류들이 결국 서양과 미국 내에 사상에 이어져 내려오는 주관주의의 물결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c.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기원은 “진리는 주체적이며 주체성은 곧 진리”라고 말한 키에르케고르(Soren Kierkegaard)에게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루터교도였던 그는 전혀 주관성이 없으며, 경험적인 측면을 결여하여 실제적이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기독교에 대하여 실망했다.⁹⁶⁾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느낌을 중요시함으로 극단적인 개인

94) Ibid., p. 205.

95) Ibid.

96) Ibid., p. 209.

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결국 개인적인 책임감을 감소시키며 모든 진리와 지식의 상대성을 주장한다. 결국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계시며, 그 세계 안의 어느 곳에나 현존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직접적으로 계시지 않으며, 오직 개인이 자기의 내적 자아를 향할 때에만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⁹⁷⁾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사상에 입각한 신학자들은 성경적 계시를 합리적, 지식적, 혹은 명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실존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실존주의 신학자 볼트만(Bultmann)은 ‘예수’(Jesus)라는 소책자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objective word of God)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말씀들은 ‘우리 자신의 실존을 해석하도록’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동정녀 탄생, 빈 무덤의 예수 부활과 승천 같은 사건들은 신화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신화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아있는 세계에 있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신앙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자신들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⁹⁸⁾

또 한 사람 실존주의 신학자 티리히(Paul Tillich)는 그의 책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에서 신학과 철학은 모두 존재(being)에 관계하며 신학자는 새로운 존재를 위한 탐구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죄를 ‘존재’와 ‘존재로부터의 소외’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는 이 소외를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새로운 존재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다.⁹⁹⁾ 결국 실존주의는 주관주의적 경향에 서서 종교를 역사에서 떼어 내고 그 내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버렸다.¹⁰⁰⁾

97) Ibid.

98) Colin Brown, 「철학과 기독교 신앙」, 문석호 역, op. cit., pp. 283-292.

99) Ibid., pp. 292-305.

100) James W.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op. cit., p. 170.

3. 두 사상에 의해 영향 받은 교회성장학과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계시가 이성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성과 계시가 상충하게 되면 결국 이성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계시와는 별도의 경험적 관찰에 강조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찰스 크래프트는 “성경학자들은 계몽주의자들이 전복해 놓은 초자연주의의 타당성 있는 측면들을 되살리기 보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반박하려고만 했다”¹⁰¹⁾ 말한다. 즉 서구 세계관이 합리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야 함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로는 감성중심의 철학의 영향아래 기독교도 감성중심의 내재적 신학이 서구사상을 지배해 왔다. 결국 감성중심의 신학은 기독교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내재신학은 복음을 우주적 객관적 자리에서 주관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어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기독교를 변질 시킨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¹⁰²⁾

이러한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그 배경 가운데 자라난 교회성장학과의 사상 속에 자리잡아온 것이다. 결국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성장학과의 대부분은 제3의 물결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B. 오순절 신학적 배경

101) Charles H. Kraft, 「능력그리스도교」,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나단, 1992), p. 75.

102) Michael S. Horton,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op. cit., p. 220.

교회 성장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피터 와그너를 들 수 있다. 피터 와그너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세 가지 성령운동 물결이 일어났다고 보고, ‘오순절 운동’을 제1의 물결로, ‘은사운동’을 제2의 물결로, 그리고 자신들의 운동을 제3의 물결로 규정하였다. 자신들의 운동을 제3의 물결로 규정한 것은 그들의 운동이 한편으로 오순절 운동, 은사운동 같은 성령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³⁾ 결국 그의 신학적 배경은 오순절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순절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 성장학파가 자신들의 사상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성령론의 배경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초의 신비운동인 몬타니즘¹⁰⁴⁾

말시온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과 영지주의의 혼합에 대한 그 시대의 논쟁과 결합하여 교회 안에 위기를 야기했다. 이 위기는 2세기 마지막 수 십 년 동안에 일어나 퍼진 제3의 운동에 의해 심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언’이라고 한 ‘몬타누스주의’였다.¹⁰⁵⁾ 몬타니즘의 발흥에 관하여 유세비우스는 막시밀라(Maximilla)와 프리스킬라(Priscilla)가 몬타누스를 돕기 위해 합류하여, 몬타누스를 보혜사라고 하고 두 여인은 그의 여선지자였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했다.¹⁰⁶⁾

몬타누스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을 통해 성령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몬타

103)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6), pp. 14-16.

104)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오순절 운동을 1901년 찰스 파햄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필자는 오순절운동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소아시아 지역의 브리기아에서 172년에 일어난 몬타니즘의 사상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려한다.

105)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제4판 상」,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84.

106)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p. 202.

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성령과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몬타누스와 두 여인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일관된 주장은 성령께서 예언자 몬타누스와 그를 돕는 두 여인을 통해 새 예언을 말씀하신다는 것이다.¹⁰⁷⁾ 몬타니스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예언과 은사에 대한 강조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현상은 복음의 역사가 깊지 않은 경험 위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¹⁰⁸⁾

이들의 매력은 힘과 역동성이 있어 넘치는 활력으로 사람들을 지도자나 참여자로 이끌어 들이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죄 받아 배척된 이유는 성경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새로운 예언’을 쫓아 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류를 현대 교회성장학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3의 물결운동’에서 여실히 볼 수 있게 된다.

2. 오순절 운동

현대 오순절주의 운동의 직접적인 시발점은 1901년 1월 1일 캔사스 주의 토페카에 있는 찰스 파함(Charles F. Parham)의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본다.¹⁰⁹⁾ 이것이 20세기 방언이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근거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표로 방언을 해야 한다는 오순절 신학을 수립하였다.¹¹⁰⁾

파함은 1905년 텍사스 휴스턴으로 성경학교를 옮겼고, 그해 흑인 감리교회 목사로서 성결교회에서 일한 윌리엄 시모어는 파함의 허락을 얻어 그 학교에

107) Ibid., p. 204.

108) Ibid., p. 205.

109) Stanley M. Burgess & Gary B. McGee,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Grand Rapid: Zondervan, 1988), pp. 2-3.

110) 서철원, 「성령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p. 22.

등록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선생 파함에게서 성화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는 별도 제3의 경험으로서 방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¹¹¹⁾

윌리엄 시모어(William J. Seymour)는 이 가르침대로 오순절 운동을 1906년에서 19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아주사 거리에서 일으켰다. 이것은 대규모 방언 말함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후에 오순절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¹¹²⁾ 파함이 오순절신학의 선생이고 아버지라면, 시모어는 오순절 운동의 전파자가 된 것이다.

이 운동의 특징은 두 번째 축복으로써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고 보며, 그 증거로 방언의 필수적인 동반을 교리화한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이 후에 두 번째 은총으로서의 외적인 증거로 방언 말함을 수반하는 ‘성령의 세례’교리를 확정한 것이다.¹¹³⁾ 토리(R.A. Torrey)는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중생 될 수 있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¹¹⁴⁾고 주장하였다.¹¹⁵⁾

이런 오순절운동의 문제점은 성령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의해 중생되게 된다는 것까지는 성경적인 성령론이다. 그러나 성령세례는 예수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 믿음을 넘어가는 조건들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를 주장하게 되면

111) Ibid.

112) Stanley M. Burgess & Gary B. McGee,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op. cit., p. 3.

113)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 35.

114) 토리는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7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회개를 통한 예수를 구주로 받는 것, 둘째, 죄를 폐기하는 것, 셋째, 죄 포기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넷째,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양도, 다섯째, 성령 세례에 대한 열렬한 욕망, 여섯째, 성령 세례를 위한 결성적인 기도, 일곱째, 성령 세례를 받는 다고 믿는 믿음이다.

115) Reuben A. Torrey, *The Person &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1910), p. 150.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 41.에서 재인용.

하나님의 주시려는 능력이 인간의 받는 능력에 의해 제한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될 수 없고, 행위에 의한 은혜 받음이 되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¹¹⁶⁾

두 번째의 오순절운동의 문제점은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외적, 의식적 요소를 상대화 하게 되므로 경험의 경험을 요구하게 되었다. 경험이 전부가 되고 이 경험을 성경해석과 이해의 원리로 삼는다. 이렇게 됨으로 성경의 진리들은 경험에 의해서만 진리로 인정되고, 취사선택 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¹¹⁷⁾

그러므로 회심할 때 중생과 성령의 두 번째 사역으로서의 성령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회심의 시작이며 성령의 내주사건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중생자체가 성령세례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¹¹⁸⁾

3. 은사주의 운동(신오순절운동)

은사주의 운동은 신오순절운동이라고도 불린다. 이 운동의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주 밴 나이스에 있는 성공회 신부인 데니스 베네트(Dennis Bennett)였다. 그가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5개월 전에 자신이 기도 모임에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건이 그 기원으로 설정되고 있다.¹¹⁹⁾

은사운동의 태동 배경을 대략 정리하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급속하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처음 이 운동의 형태는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와 같은 주류 교회(Main-Line church)교단 내에서 은사 갱신 그룹의 모습을 띠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은사운동 모

116)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 41.

117) Ibid., p. 60.

118) John R. Stott, 「성령세례와 충만」, 김현희 역, (서울: IVP, 2003), p. 21-22.

119)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하늘기획, 2000), p. 24.

임들과 단체들이 무리를 지어 소교단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다.¹²⁰⁾ 이 결과 교단내의 갱신 운동 그룹은 신선함으로 인식되었지만, 소교단화 된 독립적인 은사 모임들은 기존 교인을 수평 이동시켰고, 자신들의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 따라서 기존 교단들과의 긴장감을 야기 시켰으며, 독립교회 은사 운동은 교단화된 오순절 운동과 거의 동일시 되었다.

은사 운동 그룹의 교리는 오순절 운동 그룹의 교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오순절 운동 그룹과 마찬가지로 회심 체험과는 구분되는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은사 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인 방언이라는 교리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다. 다시 말해, 은사 운동 그룹의 많은 지도자 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 방언을 말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방언 말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언에 대한 유연성이 구오순절운동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¹²¹⁾

은사운동은 구오순절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의 성령 운동이 교회사에서 소수 그룹에 의해서 이끌려져 왔으며, 기성 교단들의 비판 속에서 일어났던 것과 반대로 발전해 나갔다. 은사운동은 1968년 미국 로마교회 신학의 아성인 노트담 대학에 파급되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영국교회에도 파급되어 켄터베리에서 은사대회를 가질 정도로 확장되어 갔다.¹²²⁾

4. 오순절운동이 교회성장학파에 미친 영향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회성장학파는 오순절운동을 제1의 물결, 은사운동을 제2의 물결, 자신들의 운동을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한다. 결국 교회성장학파의

120) Ibid., p. 24.

121)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서울: 이레서원, 2003), p. 165.

122)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p. 30-31.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는 오순절운동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성령세례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다양하나, 이들 세운동의 공통점은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며 그것을 신앙의 최고 단계인 사차원의 신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³⁾

피터 와그너는 제3의 물결보다 앞선 이 운동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은사주의”나 “오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교리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단지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²⁴⁾ 결국 와그너가 은사주의 운동과 제3의 물결을 구분한 것은 기껏해야 형식적인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제3의 물결의 가르침이나 설교는 대부분 은사주의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과 사도적인 은사 즉, 방언, 신유, 예언 계시, 지식의 말씀과 환상 등을 받는 것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오순절운동이나 은사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제3의 물결은 무아지경의 체험, 신기한 현상, 기적적인 힘,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좇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¹²⁵⁾ 그러므로 오순절운동은 피터 와그너와 존 Wimber를 비롯한 교회성장학파의 주류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에 속한 사람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존 Wimber(John Wimber)의 영적 전쟁의 이해를 살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비판할 것이다.

IV.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Wimber(John Wimber)의 영적 전쟁에 대한 입장 및 비판

이 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의 핵심인물로서 피터 와그너와 존 Wimber를 연구해

123)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69.

124)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p. 29-30.

125) John F. Macarthur, 「은사 1」, 설영환 역, (서울: 생명의 샘, 2001), pp. 215-216.

보고자 한다. 물론 교회성장학과내에 다른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사람을 다루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론적 배경, 성경적 근거, 영적 전쟁의 방법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본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A.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1. 이론적 배경

피터 와그너는 1930년 뉴욕에서 그레함 와그너(Graham Wagner)와 메리 와그너(Marry Wagner)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50년에 도리스(Doris Mueller)와 결혼해서 3자녀를 두었다. 그는 럿거스(Rutgers)대학을 졸업하고 (B.S. 1952),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마쳤다. 프린스턴에서 신학석사(Th.M. 1962)를 다시 풀러신교원에서 선교학(M.A. in Missiology, 1968)을 공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남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윤리 분야 박사과정(Ph.D. in Social Ethics, 1977)을 마쳤다.¹²⁶⁾

와그너는 The Conservative Congregational Christian Conference에서 1955년에 안수를 받고, 볼리비아에서 1956년부터 1971년까지 1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와그너는 교회성장운동의 아버지로 불리 우는 맥가브란의 지도아래 교회성장을 공부하게 되었고, 1971년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for World Mission의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1984년에는 맥가브란이 교수직을 은퇴한 후 첫 번째 맥가브란 교회 성장 교수에 임명되었다.¹²⁷⁾

와그너는 상당히 많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학문도 여러 학교에서 다양

126) Stanley M. Burgess & Gary B. McGee,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Wagner, Charles Peter", (Grand Rapid: Zondervan, 1988), p. 875.

127) 이재범,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6), p. 16.

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교적에 대해서 혼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다.

나의 부모는 성공회교회에서 유아의 이름을 짓도록 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교회 전통도 나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19세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자 나는 자유롭게 교회에 소속하였다. 그 후 나는 감리교, 성서교, 침례교, 웨이커회 등에 속하였었고, 현재는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루터교 신자와 루터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¹²⁸⁾

와그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오늘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공개적으로 잡지 등에 오순절 운동을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여 오순절 신자들을 적으로 간주하였다. 그가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세대주의자였기 때문이었고, 서양의 세속화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성경의 초자연주의적 세계관보다는 미국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고 말하였다.¹²⁹⁾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와그너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목에 낭종이 생겨서 수술해야하는 일이었다. 인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하던 E. Stanley Jones가 볼리비아에 와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받고 치유되는 사건이 와그너에게 일어났다. 그의 생각은 점차 바뀌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게 되었다.

와그너에게 또 한번의 세계관에 변화를 주었던 사건은 1975년 존 워버를 그의 목회학 박사과정의 강의에서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82년 2월

128) Peter C.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 13.

129) 이재범,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op. cit., p. 19.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MC510: 표적과 기사와 교회성장’이란 과목을 와그너와 존 워버가 가르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강의 3주째 되었을 때 와그너 박사가 고혈압으로 고생하게 되어 워버의 기도를 받고 치유됨으로 신유사역에 참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와그너에게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¹³⁰⁾

또한 1971년 풀러 신학교의 교수 멤버로 오면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전세계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강의를 시작하였다. 1974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한 세계 복음화 로잔위원회 창립위원이 되어 6년간 실행위원으로 봉사하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실제적인 전략인 「비복음화 백성(Unreached People)」이란 책을 매년 출판하여 보급했다.¹³¹⁾

이후 1983년에는 「목회갱신」이라는 잡지의 ‘케빈 페로타(Kevin Perrotta)’와 인터뷰를 할 때 ‘제3의 물결’란 표현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성령운동을 주장했다. 20세기 초의 오순절 운동을 제1의 물결로,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번져 나간 은사 갱신 운동을 제2의 물결로 표현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제3의 물결’로 표현하였던 것이다.¹³²⁾ 이 운동에 대해 1988년에 버게스와 맥기가 편집 발행한 「오순절과 은사운동 사전」에서는 제3의 물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3의 물결’이란 용어는 오순절 운동(제1물결)과 은사주의 운동(제2물결)과 유사한 운동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앞의 두 운동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그들과 동일시 되기를 싫어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제3의 물결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받는 등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들 교인들에게 주어진 기존의 목회 철학을 혼란시킴이 없

130) Ibid.

131) Ibid., p. 21.

132) 제3의 물결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 까지, 피터 와그너의 세계관 변화는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서울: 하늘기획, 2000), pp. 41-66."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은사주의 적인 현상들에 참여하는 것이다.¹³³⁾

특히 그의 이론적 배경은 폴 히버트(Paul Hiebert)의 중간 영역 이론(Middle Zone)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폴 히버트의 중간 영역 이론은 서구의 세계관을 가진 그가 인도 즉, 동양적 세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겪었던 체험을 토대로 세우게 된 이론이었다. 히버트는 인간의 삶을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초문화적인 고등 영역이었고, 둘째로 피조물로서의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이 속해 있는 비절대적이며 초문화적인 중간 영역이 있으며, 셋째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적이며 문화적인 영역이 있다고 한다.¹³⁴⁾

히버트에 의하면 세계 2/3지역에 속한 사람들 대다수가 중간 영역의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이 중간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 존재인 귀신의 실재를 믿고 있으며 초문화와 문화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¹³⁵⁾ 와그너는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2. 성경적 근거

와그너의 영적 전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다.¹³⁶⁾ 각 지역마다 지역을 장악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귀신들이 존재하며¹³⁷⁾, 그들은 우리 인간에게 질병과 고난을 주는 존재로

133) Stanley M. Burgess & Gary B. McGee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Third Wave"*, op. cit., pp. 841-842.

134) Paul G. Hiebert, *"The Flaw of the Excluded Middle" in Missi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l. 10, No 1, January, 1982, pp. 35-47.

135) Ibid., p. 40.

136)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하늘기획, 2000), p. 98.

본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이러한 원인들이 되는 귀신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며 승리를 통하여 자유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³⁸⁾ 와그너는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한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영적 전쟁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a. 구약성경의 근거

와그너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사람들이 귀신과 악령, 혹은 다양한 종류의 천사와 같은 영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와와의 산당문제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라”(민 33:52)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석상, 우상 혹은 산당에 악령이 더 많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본다.¹³⁹⁾

첫째로, 그는 모세오경은 특히 지역귀신에 대해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면서, 그 예로 신명기 32장 8절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든다. 그에 따르면 이 노래는 불행히도 맛소라 원문의 히브리판에서 영어판으로 번역되는 가운데 원래의 의미가 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뉴킹제임스판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그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와 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구절은 지역귀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신약학자 부루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콤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 의거하여 살펴볼 때,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이 원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0인 역본에 의

137)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 100.

138)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104.

139) Ibid., p. 102.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의 수효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수효대로 정하셨다고 되어 있으며,¹⁴⁰⁾ 이것이 지역귀신 사상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둘째로, 와그너는 역사서에 나타난 지역신 개념을 계속 해서 설명한다. 이스라엘이 주전 900년에 시리아와 전쟁 중에 있을 때, 시리아의 벤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시리아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평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한 사건이 있다.¹⁴¹⁾ 이 사건을 통해서 와그너는 시리아인들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적 존재의 지역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셋째로, 와그너는 예언서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서 지역신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다.¹⁴²⁾ 여기에서 벨과 바알은 “주”(Lord)를 의미하며 므로닥도 “주 므로닥”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 혹은 그 지역 귀신을 다스리는 상급 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다.¹⁴³⁾

b. 적극적으로 싸우신 예수님의 모범

와그너는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된 것은 아담과 하와이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였다. 그 전환점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동정녀 탄생과 세례,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 예수 사건은 오순절 이후 인류 역사에 적용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¹⁴⁴⁾

140) Ibid., p. 103.

141) 열왕기상 20:23

142) 예레미야 50:2,3

143) Ibid., p. 106.

그는 예수님의 사건을 엄청난 사건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사단은 거의 무한대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사단까지 다스리는 분이시며,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불 못에 던지워 심판을 받을 존재이다.(계20:10) 와그너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¹⁴⁵⁾’, ‘공중의 권세 잡은 자’¹⁴⁶⁾, ‘이 세상 임금’¹⁴⁷⁾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써 이해하고 있다.

와그너는 더 나아가 지금도 사단이 강력한 능력을 행사한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단의 능력이 더욱 강력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예수님은 이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사단은 자신의 왕국이 점령당할 것을 알고 분노했으나, 결국 예수님은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바로 사역에 들어가는 대신에 먼저 사단과 싸우셨다고 와그너는 말한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전,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기 전, 오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은 전략적 수준의 영적 싸움을 결정적으로 치러야 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의미심장한 곳이었다. 예수님은 사단의 땅인 ‘광야’로 가셨다. 광야나 사막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레모스’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장소로서 악한 세력이 거하는 곳’이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정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단에게는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단의 땅으로 들어가셨다. 자신의 땅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최상의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사단은 예수님께

144) Ibid., p. 56.

145) 고린도후서 4:4

146) 에베소서 2:2

147) 요한복음 12:31

그의 가장 귀한 소유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고 제안할 정도였다.¹⁴⁸⁾ 그러나 이 결정적인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다.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이 광야에서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3년간의 모든 사역을 승리로 이끄는 기초가 되었다고 와그너는 말한다.¹⁴⁹⁾

와그너가 제시한 예수님의 모범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기간 중 사용하신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그 어떠한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본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근원, 즉 성령을 모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와그너는 말한다. 이것이 와그너의 신학적 전제이다.¹⁵⁰⁾

c. 주님의 지상명령의 근거

성령의 능력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임무는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이것을 예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명백하다.¹⁵¹⁾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은 세계 복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의 지상 명령과 능력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¹⁵²⁾ 이때 예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48) 마태복음 4:8

149)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 57.

150) C. Peter Wagner,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Ventura, CA: Regal Books, 1989), p. 114.

151) 사도행전 1:8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치유시키는 일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¹⁵³)고 명령하시고 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¹⁵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¹⁵⁵)때문에 제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쓰인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시아(exousia)라 쓰였는데,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권능(power)’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exousia; power)을 주시니라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이 부여받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 사역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예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고, 제자들 역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 와그너의 해석이다.¹⁵⁶)

d.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근거

와그너는 사도행전 2장을 포함한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처음으로 임하였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각 나라 방언으로 전파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¹⁵⁷), ‘주께서 구원받

152) 마가복음 16:15

153) 마태복음 28:19

154) 마태복음 28:18

155) 마태복음 28:20

156)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p. 139-140.

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¹⁵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있는 앓은뱅이를 고쳤다.¹⁵⁹⁾ 곧 믿는 자들이 늘어나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¹⁶⁰⁾라고 기도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¹⁶¹⁾ 스테반의 경우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행 6:8). 빌립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았다'(행 8:6).

지금까지는 대체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말하였으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범위가 넓혀져서 임명된 일곱 명 중 최소한 두 명의 헬라과 지도자들이 능력을 행하였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 스테반과 빌립이 능력 전도를 행하였다면, 비록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명된 다른 다섯 사람도 역시 같았을 것이라고 추정해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거짓 선지자인 박수 엘루마를 바울이 권능으로 소경으로 만든 것을 통해, 그 사건을 본 총독이 구원을 받았다.¹⁶²⁾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행 14:3)하여 주셨다.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 치유와 빌립보에서의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바울과 실라가 그곳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다 열려졌다.¹⁶³⁾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157) 사도행전 2:43

158) 사도행전 2:47

159) 사도행전 3장

160) 사도행전 4:30

161) 사도행전 5:12-14

162) 사도행전 9:1-19

희한한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¹⁶⁴). 이 외에도 와그너는 바울의 사역에서 ‘능력 전도’가 행해졌던 다른 예가 많이 있다고 말하였다.¹⁶⁵)

와그너는 계속해서 바울서신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능력전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살전1:5)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갈 3:5)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와그너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함이라’(엡6:12)고 경고하고 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병들어 거의 죽게 된 그의 친구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있다.(빌2:27) 고린도전서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20)고 단언하며 자신의 사역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고전2:4)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는 또한 신유,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등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밝힌다.(고후12:12) 또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롬15:18,19)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신 일을 항상 전해왔다고 말함으로 자신의 전도사역을 요약하고 있다.

와그너는 계속해서 다른 서신서들도 이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본다.

163) 사도행전 14:26

164) 사도행전 19:11,12

165)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p. 141-142.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고 기록했다.(히2:4)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통렬히 꾸짖으며 병든 자들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다. 즉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⁶⁾

3. 영적 전쟁의 방법

와그너는 영적 전쟁의 수준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지상수준의 영적 전쟁,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과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다¹⁶⁷⁾.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임하려면 네 가지 차원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병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세, 그리스도인의 적과의 교전, 그리스도인의 행동계획이다.¹⁶⁸⁾ 와그너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능력이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며 이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¹⁶⁹⁾

a. 영적 전쟁의 3가지 수준

1)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

166) Ibid., pp. 142-143.

167)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 18.

168) C. Peter Wagner의, 「영적원수를 대적하라」, 명성훈 역, (서울: 도서출판나단, 1993), p. 30.

169)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136.

이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마10:1). 또한 예수께서 파송한 칠십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했다.(눅10:17)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지상 수준의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사역이다. 이른바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이러한 지상 수준의 영적 싸움을 행하는 경우다.¹⁷⁰⁾

2)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

악령의 역사는 무당, 뉴 에이지 지도자들, 주술가, 마술사, 사단 숭배자 그리고 점쟁이들을 통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이들은 두통, 부부싸움, 술 취함, 혹은 척추 질환 등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악령과는 조금 다르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날 동안 그를 괴롭히던, 점하는 귀신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일반적 귀신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정치적 폭동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와그너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주술적 수준의 영적 형태에 관해서 잘 몰랐다고 말하면서,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가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점성가를 고문으로 사용했고,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마이클 듀카키스는 마녀를 공식적으로 고용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우, 등록 된 마녀의 수는 목사들의 수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몸이 아플 때 의사보다는 마녀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들과의 전쟁이 와그너가 이해하는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¹⁷¹⁾

170) Ibid., pp. 18-19.

171) Ibid., pp. 19-20.

3)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위 세 가지 전쟁 가운데 와그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은 바로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고 했다. 이 구절에서 지역 귀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그너는 이 말씀이 지역 귀신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¹⁷²⁾

와그너는 영적 전쟁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지만(요일3:8),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⁷³⁾

b. 영적 전쟁의 4가지 차원

와그너는 영적 전쟁을 사단과 그의 지배 하에 있는 사악하고도 악의에 가득 찬 실체와의 전쟁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비록 인간보다는 능력이 크지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 그는 그들의 권세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지만,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라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지혜롭게 임하지 못한 탓으로 영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해왔던 것이 그 이유라고 본다. 따라서 와그너는 지혜롭게 영적인 전쟁을 임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⁴⁾

172) Ibid., pp. 20-23.

173) 누가복음 19:10

174) C. Peter Wagner의, 「영적원수를 대적하라」, 명성훈 역, op. cit., p. 30.

1) 그리스도인의 병기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행위는 기도이다. 기도는 병기 그 자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병기들을 유용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영적 전쟁에 관한 신약의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엡6:18)고 권면하고 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적과의 투쟁에서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심적인 행위가 기도라면, 이 전쟁에서 중심적인 태도는 믿음과 순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하며, 순종을 통하여 성결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병기들은 효과적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특별한 병기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⁷⁵⁾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 낼 수 있으며(막16:17),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요14:14)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한 병기로 사용되며, 거기에는 막대한 권위가 수반된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사단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켰다. 따라서 사단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을 두려워한다. 즉 사단의 근거지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파괴되기 마련이다.

셋째, 합심기도다. 영적 전쟁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병기는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를 알 수 있지만, 세상과

175) Ibid., pp. 30-33.

육을 향한 인간적인 경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넷째, 금식기도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금식이 요구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다.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으로부터 악귀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마17:21)고 말씀하셨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힘찬 찬양이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족쇄가 풀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으며,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서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다.¹⁷⁶⁾

2)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세

와그너는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 가운데 하나인 예수의 이름은 그 같은 권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거나 풀 수 있는 권세를 갖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매거나 풀 수 있는 권세에 관하여 말씀하신 사건은, 그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였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이며(마16:16), 교회가 도래했다는 것(마16:18)과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마16:19)이다.

와그너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도래해서 천국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이

176) Ibid., pp. 33-41.

다. 그러므로 이 열쇠를 가지고 ‘매는 일’과 ‘푸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외적인 원인으로 사단의 방해와, 내적인 원인으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완전히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한다.¹⁷⁷⁾

3) 그리스도의 적과의 교전

와그너는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단을 과소평가할 때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적과의 교전에 있어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⁷⁸⁾

와그너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씨름하는 자’와 ‘전사’인데 이것을 사용하여 적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씨름선수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여 이기는 것이며, 승자에게는 영광이지만 패자에게는 굴욕이 돌아가게 된다. ‘전사’의 비유는 신자의 병기를 로마 병사의 전투 장비에 견주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고, 말씀의 검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⁹⁾

4) 그리스도인의 행동계획

어떠한 차원의 적과 겨루든,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와그너는 영적인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현명한 행동계획을 합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177) Ibid., pp. 41-47.

178) Ibid., p. 48.

179) Ibid., pp. 49-52.

말한다.

첫째, 위에 대한 관계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네 개의 능동형 동사는 ‘순복 하라¹⁸⁰⁾’, ‘가까이 하라¹⁸¹⁾’, ‘깨끗이 하라¹⁸²⁾’, ‘성결케 하라¹⁸³⁾’이다.

둘째, 밖에 대한 관계로 사단에 대한 것이다. 이 관계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능동형의 동사는 ‘대적하라’는 동사 하나뿐이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라’. 이는 마귀의 행동이므로 우리에게는 수동형의 동사가 된다. 이 동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정면으로 대결하셨다. 영적 전쟁은 그분에게도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고 와그너는 말한다.¹⁸⁴⁾

셋째, 균형의 유지가 필요하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인 전쟁의 모든 차원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면, ‘위에 대한 관계’와 ‘밖에 대한 관계’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에 대한 관계’는 ‘밖에 대한 관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밖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위로만 향할 경우에는 사역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위로 향하지는 않고 밖으로만 향하려고 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와그너는 주장한다.¹⁸⁵⁾

180) 와그너는 ‘순복 하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보았다.

181) 와그너는 ‘가까이 하라’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182) 와그너는 ‘깨끗이 하라’의 의미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관련시켰다.

183) 와그너는 ‘성결케 하라’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동기-사고와 느낌-와 관련시켜 설명했다.

184) Ibid., p. 55.

185) Ibid., pp. 52-59.

B. 존 Wimber(John Wimber)

1. 이론적 배경

존 Wimber는 1934년 4대째 불신자 가정의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음악 전문 대학을 졸업하였고 1960년대, 영화 ‘사랑과 영혼’의 삽입곡 ‘언 체인드 멜로디’를 부른 미국의 락 그룹 ‘라이쳐스 브라더스’를 조직하여 작곡, 기획가로 활동하였다. 1962년 Wimber와 그의 아내 캐롤은 어떤 웨이커 교도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후 이들 부부는 기독교 신앙에 심취한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¹⁸⁶⁾

그는 경건을 강조하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1970년에 형제교단에서 받았다. 그후 5년간 캘리포니아주의 요르바 린다 형제 프렌즈 교회(The Yorba Linda Friends Church)에서 협동 목사로 봉사하게 되었다.¹⁸⁷⁾

Wimber는 고백하기를 1970년대 중반이 되도록 자신은 설득전도¹⁸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개인전도에 대하여 촉매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영적인 능력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Wimber는 와그너 박사가 라틴아메리카의 오순절 운동에 관해 쓴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을 읽게 된다. 그 후에 그

186) 존 Wimber와 그의 부인 캐롤 Wimber의 극적인 회심의 내용은 아래의 책을 참조하라.

John Wimber & Kevin. Springer, *Power Points*, (Harper San Francisco: A Divisions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3), pp. 17-28.

또한 Wimber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 확신 하여 제3의 물결 그룹에 들어오게 된 것은 회심하고 한참 후의 일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J. Wimber & Kevin. Springer, 「능력 치유」, 이제범역 에 나타나 있다.

187) John Wimber & Kevin. Springer 공저, 「능력 치유」, 이제범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pp. 105.

188) ‘설득전도’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을 꺼려했던 생각들¹⁸⁹⁾을 버리고 이때부터 그는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재고를 하게 된다. 그후 오순절 주의자인 지(Donald Gee)의 저서인 「영적인 은사에 관하여」와 켈시(Morton Kelsey)의 저서인 「치유와 기독교」 등을 통해 영적인 은사에 관해 보다 깊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¹⁹⁰⁾

1974년부터 워버는 풀러신학대학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조지 래드(G. E. Ladd)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워버는 풀러 신학대학원 내에 있는 세계 선교대학원에서 풀러복음 전도 및 교회 성장 연구소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교회 성장 상담자로서 와그너와 함께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인도하였으며, 그 도중 1976년 비행기 스케줄의 착오로 시카고 공항 인근의 호텔에서 묵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는 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이제까지 그가 무관하게 느꼈던 성령의 은사, 치유, 기적과 이사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¹⁹¹⁾

워버는 1977년 아내가 인도하던 50여명 규모의 기도모임을 어버이날에 요르바 린다 갈보리 채플로 바꾸어 개척교회를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자신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목회에서 직접 사역하게 된다. 10개월 간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런 결실도 없이 한 주일 한 주일이 흘러가는 동안에, 나는 점점 실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 하루는 주일 설교를 하다가 화가 치민 나머지 성경을 덮어 버리면서 ‘치유에 관한 설교라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말을 설교하라.’... 이러한 일이 있고나서,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하

189) 당시 워버는 영적인 은사가 주후1세기로 종식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190)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역, op. cit., pp. 20-21.

191) Ibid., pp. 71-77.

여 기도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 주셨는가, 또한 우리는 그분의 본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나갔다.¹⁹²⁾

그 후 워버는 치유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 교회에 나온 남자가 고열로 신음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였는데, 워버는 그 동안의 실패를 통한 아픈 기억들로 확신 없이 손을 얹고 기도하였다. 놀랍게도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썩은 듯이 병이 나았고, 워버는 처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¹⁹³⁾

워버의 신유 사역이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첫 체험 이후 귀가하는 길에서 본 환상 때문이다. 워버가 하늘을 보았을 때 꿀이 흘러나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벌집이 있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 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으로 꿀을 받아먹었고, 어떤 이들은 더럽다고 불평을 하며 자기들의 몸에 묻은 꿀을 닦아 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주님은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한다. ‘저것은 나의 자비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다시는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구걸하지 말라. 문제는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¹⁹⁴⁾

이 벌집 환상을 통하여 워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일 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다. 불신과 회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은 아무 상관없게 된다. 즉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체험 이후 워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2) Ibid., pp. 101-102.

193) Ibid., pp. 109.

194) Ibid., pp. 105-108.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자비에 의지하는 것 뿐이며,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¹⁹⁵⁾

피터 와그너는 1981년 목회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한 교회 성장을 체험한 워버에게 그가 지도하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가르치기를 제안하였다. 워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1982년 1월부터 풀러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MC510'의 새로운 과목의 이름은 '표적과 기사와 교회 성장(Signs, Wonders and Church Growth)'이었으며 나중에는 '기적적인 교회 성장(The Miraculous and Church Growth)'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목은 풀러신학대원에서 큰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최다 수강자라는 기록을 세웠고 강의 시간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등의 일들도 일어났다. 1985년에 동료 교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강의가 중단되었으나 강의 기간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고 와그너는 말한다.¹⁹⁶⁾

1983년 존 워버의 교회는 갈보리 채플에서 탈퇴를 하였다. 존 워버의 요르바 린다교회가 왜 갈보리 채플에서 탈퇴했는지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요르바 린다교회가 너무나 신비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에서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¹⁹⁷⁾

갈보리 채플에서 탈퇴한 워버는 켄 걸릭슨이 주로 '예수운동'¹⁹⁸⁾에 속해 있던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빈야드라 불려진 여섯 교회의 연합체에 가입하게 된다. 걸릭슨은 하나님께서 빈야드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놀라운 비전

195) Ibid., p. 109.

196)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p. 51-52.

197) 조대준, "빈야드 운동 과연 성경적인가", 「월간목회」, 1995년 11월, p. 380.

198) 예수 운동은 미국에서 1960년대 말에 시작된 운동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히피스타일의 삶을 살던 청년들이 오순절교회나 침례교회의 신앙으로 삶이 바뀌면서 이들을 칭하여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운동은 서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슬로건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특별히 1970년대에 지금의 코스타메사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의 주관으로 코로나델마해변에서 700여명이 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은 이 당시의 잡지와 신문의 큰 기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켄 걸릭슨이 시작한 교회가 빈야드이다.

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여 워버에게 빈야드의 모든 지도권과 운영권을 이양하였다.¹⁹⁹⁾ 이 때부터 1997년 뇌출혈로 사망하기까지 빈야드 운동의 1인자로 조직을 이끌어 갔으며, 제3의 물결운동의 핵심인물로 역할을 하였다.

2. 성경적 근거

와그너와 마찬가지로 존 워버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이 ‘능력(Power)’이다.²⁰⁰⁾ 그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대결구도로 있는 곳이며, 필연적으로 두 나라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였다. 이 일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며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것으로 본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능력대결’이라고 부른다.²⁰¹⁾ 그가 말하는 능력대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세력이나 구조를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능력치료, 능력전도 등의 개념을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워버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논증하였다. 아래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근거로 하여 워버가 제시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할 것이다.

a. 구약성경의 근거

워버가 제시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능력대결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다. 그것은 엘리야와 갈멜산 위에서 450명

199) Bill Jackson, *The Quest for the Radical Middle*, (South Africa: Vineyard International Publishing, 1999), pp. 79-83.

200) 워버가 저술한 책 가운데 대부분이 ‘능력’을 주제로 하고 있다.

201)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역, op. cit., pp. 44-45.

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다. 이 성경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와 사단의 조정을 받는 한 종교제도의 정면대결을 볼 수 있다고 워버는 말한다.²⁰²⁾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한다고 비방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공개적인 대결을 제안하였다. 아합이 이를 받아들이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을 완전히 제압하셨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목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가...’(왕상18:27)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엘리야가 사단의 세력을 격퇴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공세를 폈던 사건이라고 워버는 말한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였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왕상18:36).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주시어 자신의 임재를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종이 승리한 것이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했다.²⁰³⁾

b. 신약성경의 근거

1)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인 전투 방법

마태복음 11장 12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요한

202) Ibid., p. 46.

203) Ibid.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Wimber는 래드의 말을 인용하여 이 구절을 해석한다. 래드는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구절은 “무력을 행사하다”또는 “힘으로 다루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래드는 다르게 주장하였다.

래드는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거나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하여 자신의 권능을 행사한다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사단이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때 공세를 취하는 곳은 하나님 쪽이며, 사단은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Wimber는 사단과의 전투에 필연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하며,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결전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²⁰⁵⁾

2) 복음서의 근거

Wimber는 기적들을 장차의 우주적 구속과 왕국의 완성에 대한 예시이며 약속으로 보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귀신, 질병, 파괴적 자연, 그리고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과의 능력 대결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행하였던 것이다.²⁰⁶⁾ 이러한 귀신축출은 사단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침입과 사단의 최종적 파멸을 나타낸다.²⁰⁷⁾ 병자의 치유는 모든

204) George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pp. 160-161. John Wimber, 「능력전도」, 이재범 역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1), p. 42에서 재인용

205)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역, op. cit., p. 42.

206) Ibid., p. 137.

207) 마12:29; 막3:27; 눅11:21이하; 요12:31

고난의 종식에 대해 말해준다.²⁰⁸⁾ 음식의 기적적인 제공은 모든 인간적 궁핍의 종식에 대해 말해준다.²⁰⁹⁾ 폭풍의 잠재움은 세상을 위협하고자 자연을 이용하는 세력들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증거 한다.²¹⁰⁾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일어남은 죽음이 영원히 없어질 것을 천명한다.²¹¹⁾

예수님께서 부활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요20:21,22) 또한 원수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 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14:11,12)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전에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읽히는 이해하였다.²¹²⁾

읽히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덧입음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이 능력전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나라가 힘차게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²¹³⁾

3)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근거

읽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할 때에는 한 개인이나 가족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애니아가 베드로에 의해 즉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는

208) 요한계시록 21:4

209) 요한계시록 7:16이하

210)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실 때 배를 침몰시키려는 ‘광풍’의 물결과 싸우셨음을 말한다.

211)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말한다. Ibid. p. 137.

212) Ibid., p. 86.

213) Ibid.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행9:35)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고도 직선적인 말로 기적을 낳게 했다.(행9:34)

그러나 여기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권능으로 치유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행하였다는 점이 자신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다. 율버는 애니아가 치유된 일로 인해 베드로는 보다 손쉽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비로운 행위나 영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복음 메시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이라고 설명하였다.²¹⁴⁾

율버는 사도행전 13장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의 대결처럼, 바울이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능력대결 장면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전도여행을 하던 중 구브로 섬의 바보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들이 총독을 찾아갔을 때 빛과 어두움의 대결이 벌어졌다. 그 자리에는 박수 엘루마가 있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엘루마는 사단의 증인으로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아 그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으며, 엘루마는 바울이 말한 대로 즉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총독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나서 믿게 되었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 가르침의 내용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것으로 율버는 해석한다.²¹⁵⁾

214) Ibid., p. 105.

웬버는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웅변적인 설교²¹⁶⁾를 했을 때는 단지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을”뿐이었으나,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해하였다.(행18:10)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상이한 결과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 할 수 있으나 웬버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1,4,5)

웬버는 위와 같은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고린도에서는 전도방법을 바꾸어 복음 선포와 아울러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지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²¹⁷⁾

3. 영적 전쟁의 방법

웬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개념은 능력을 통한 대결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웬버의 모든 사상의 전제에는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있다. 따라서 웬버의 하나님나라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능력대결과 능력전도를 통한 영적 전쟁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웬버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

215) Ibid., pp. 61-62.

216) 사도행전 17:16-34

217) Ibid., p. 86.

존 Wimber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다. Wimber와 같은 사상을 가진 ‘제3의 물결’운동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들의 저서에서 하나님나라의 개념이 발견되며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능력사역’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 세상에 죄와 질병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능력이 수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Wimber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의 스승인 풀러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조지 래드(George Ladd)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Wimber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그 때 나는 이미 풀러신학교의 래드 교수의 저서들을 대부분 읽고 난 후였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이론이 능력 전도의 신학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Jesus and the Kingdom」라는 그의 책을 읽고 나서였다. 그의 저서들과 더불어 복음서의 내용들을 새롭게 검토해 나아가는 가운데 나는 능력전도가 오늘날에도 역시 타당한 것이란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²¹⁸⁾

래드는 “세대들(Ages)”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천지창조로부터 주의 날에까지 이르는 ‘이 세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실존은 죄악과 죽음과 약함, 바로 그것이다. ‘오는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하나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오는 세대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²¹⁹⁾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마 12:28)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성경에서 “나라”(basileia)는 왕이 다스리는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

218) Ibid., pp. 21-22.

219) Georg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p. 48.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역, op. cit., p. 30.에서 재인용.

해, “나라”의 성경적인 개념은 영토의 개념을 뛰어넘어, 통치 또는 지배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올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즉 사단의 왕국을 침노한다. 래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지금 “미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중간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²²⁰⁾

웬버는 이 세대(this age)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중간기로 이해한다. 그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예를 들어 “마치 쫓기는 적군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땅에서 그들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비밀 지하조직의 군대로써 전투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군인”으로 설명하고 있다.²²¹⁾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에 내적 개입(성육신)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귀신추방, 병 고침)을 행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이 깨어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충만히,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지 못했고(already but not yet)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시는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나라’ 이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능력대결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개념이 포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미래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임한 나라인 것이다. 이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웬버는 생각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결 구도속의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²²²⁾

220)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역, op. cit., pp. 29-31.

221) Ibid., p. 34.

222) Ibid., p. 44.

b. 능력대결로서의 영적 전쟁

와그너는 능력대결을 일컬어 “부족집단이 섬기고 두려워하는 거짓 신들에 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이다”²²³⁾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하수인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현상이나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웜버는 와그너가 정의한 능력대결에 대하여 찬성한다. 그러면서 이 능력대결 개념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경이 분명한 능력대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움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웜버는 능력대결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유비(類比)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예를 든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부딪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번개와 뇌성이 일고 눈비가 내리며 때로는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²²⁴⁾ 능력대결 역시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와 정면으로 부딪치게 될 때에는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c. 능력 전도로서의 영적 전쟁

‘능력전도’란 합리적인 동시에 합리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복음을 선포함과 아울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가운데 그 능력을 덧입

223) Ibid., p. 45.

224) Ibid., p. 49.

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²²⁵⁾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체험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이는 보통 지혜의 말씀²²⁶⁾, 치유, 예언, 악령 추방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능력전도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저항감이 극복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Wimber는 피터 와그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능력전도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지역에 있어서 교회성장과 기적적인 치유사역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갈 때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폭넓게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도활동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예컨대 브라질에서는 전 국민의 40%정도가 강신술을 실천하고 있으며, 40%가 그런 체험을 하였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복음전도는 치유, 기적, 표적, 기사 등 초자연적인 능력의 대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²²⁷⁾

Wimber는 사단의 왕국이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되고 있으며, 양진영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일,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아버지의 우편, 즉 권능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확증되었다.(고전15:20-23) 그러나 사단이 아직

225)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 역, op. cit., pp. 68-69.

226) Wimber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의 성경말씀이 아닌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 부른다.

227) C. Peter Wagner, "A Third Wave?" *Pastoral Renewal*, (July-August, 1983), pp. 1-5.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 역, op. cit., p. 74.에서 재인용.

완전히 추방된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든 사람을 미혹케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시기에서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살 수 밖에 없는데,²²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Wimber가 주장하는 ‘능력 전도’다.

이상에서 피터 와그너와 존 Wimber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및 성경해석을 통한 영적 전쟁의 이해를 설명하였다. 아래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개혁주의 관점(성경적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교정할 것이다.

C. 교회 성장학파의 견해 비판 : 와그너(Peter Wagner)와 Wimber(John Wimber)를 중심으로

위에서 피터 와그너와 존 Wimber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고자 한다. 두 사람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맥상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이론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둘의 사상을 분리해서 비판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이들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해 역시 성경이 아닌 체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들이 주장했던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지역 귀신 존재, 영적 도해, 가계의 저주와 능력대결의 성경적인 근거는 주석적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였다. 또 이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혼합적인 세계관을 받

228)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 역, op. cit., p. 37.

아들여 자신들도 모르게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처럼 착각 속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비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하겠다.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한계

웬버는 하나님나라신학을 그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 교수였던 조지 래드(George Ladd)에게서 배웠다. 그는 그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피터 와그너 역시 그의 책 “제3의 바람”에서 80년대 중반에 웬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²²⁹⁾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나라 개념의 이해는 동일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의 지나친 강조

웬버가 주장하는 하나님나라의 개념의 잘못은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나라’ 이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능력대결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개념이 포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미래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임한 나라인 것이다.

이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웬버는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229)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96.

다. Wimber의 하나님나라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악령의 세계와 사단의 세력들을 지금도 꺾으시고 이기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시대에 뿐 아니라 교회시대인 현재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결 구도 속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²³⁰⁾

따라서 귀신축출, 병자의 치유, 음식제공, 폭풍을 잠재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은 사단의 최종적인 파멸과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²³¹⁾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생전에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²³²⁾고 말했다. 왜그런지 역시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한다.²³³⁾

이에 반하여 리델보스(Herman Ridderbos)는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취”와 “완성”이라는 두 용어로 그 성격을 어는 정도 규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나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님나라와 메시아의 현존을 제시해 주지만, 그와 동시에 그 완성의 중대한 순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음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완결되지 못한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²³⁴⁾

Wimber가 영향을 받았던 래드(G.E. Ladd)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Wimber와 같이 이해하지 않았다. 래드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긴장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

230)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재범 역, op. cit., p. 44.

231) Ibid., p. 137.

232) Ibid., p. 86.

233)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136.

234)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pp. 152-153.

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더불어 사단은 결박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 행동, 죽으심, 부활등을 포함한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사단 권세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으며, 사단은 자기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해서 사단의 활동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며, 결박당한 후에도 활동은 지속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단의 활동은 세상 끝에 이르게 되면 사단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²³⁵⁾

래드는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리델보스와 유사하게 그 긴장관계를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님”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현재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나라로써 현재는 이러한 긴장 속에 있는 임시적인 성격의 하나님나라로 보았던 것이다. 뎀버는 래드가 말하는 하나님나라의 이중적 성격을 오해하였던 것이다.

뎀버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경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삶을 제시하고 있고, 최종적 영광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²³⁶⁾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의 힘겨루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의 삶에서 섬김과 종의 모습을 통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임을 뎀버는 간과 하였다.²³⁷⁾

235) G. E. Laad,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pp. 179-189.

236) 로마서 8:22-25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들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7)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op. cit., pp. 89-92.

b. 하나님나라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해 부족

예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귀신을 쫓아 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등, 사람과 자연 세계가 모두 그의 기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웬버와 와그너는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제자들도 행하였으며,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 나라 도래가 실현되었고, 그 나라가 현존한다는 증거가 되는 표로 보아야 한다.²³⁸⁾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나라 도래의 필수 요건이다. 예수님의 구속적 기적들²³⁹⁾은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으며,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²⁴⁰⁾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예언적 상징들이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기적 현상들도 능력 과시나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의 현상이자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함이 타당하다.²⁴¹⁾

2.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 표적과 기사의 이해문제

오순절운동이나 은사운동에 있어서 신학적 공통점은 성령세례를 성령의 두 번째 축복으로 보고 중생과는 다른 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부분이 개혁주의와 다른 부분인데 개혁주의는 회심의 첫 관문으로서의 중생과 성령의 두

238) Ibid., p. 108.

239) 구속적 기적들이란 병 고침, 귀신 쫓음, 죽은 자를 살리심등과 같이 해방적(구출적)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240) 다른 기적들이란 자연세계와 관련된 기적들으로써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적들, 떡 몇 덩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들,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기적등을 말한다.

241)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5), pp. 183-200.

번째 사역으로서의 성령세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 중생자체가 성령세례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즉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²⁴²⁾

제3의 물결을 주장하는 워버나 와그너의 사상은 위의 운동과 연장선상에 있다. 와그너는 말하기를 “제1의 물결(오순절운동), 제2의 물결(은사운동)과 제3의 물결이 구별되는 중요한 교리적 차이는 사소한 2차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성령세례,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그런 것들이다.”²⁴³⁾라고 했다.

와그너는 제1과 제2의 물결의 이해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이해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약성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성령의 세례란 표현보다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성령세례의 사건은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한 번이며 마지막인 경험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방언 말함은 영적인 은사이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임으로 방언의 은사를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넷째,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들도 그의 삶에 나타나며 영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방언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²⁴⁴⁾

위와 같은 제시들은 개혁주의를 포함한 복음주의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제3의 물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교단들은 다양하다. 와그너는 이러한 오순절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성령의 외적인 특별은사들이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지 말론, 존 오미어, 제프 커비, 폴 스티븐 등의 목사들²⁴⁵⁾이 요약한 신앙순

242)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 40.

243)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27.

244) Ibid., pp. 27-28.

245) 와그너에 의하면 이들은 누구도 은사주의자거나 은사주의 교회 목사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의 신학적 배경은 개혁주의이며, 세대주의여서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 시대와 함께 중지되었다고 믿도록 배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다양한 목회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들이 신학적

례기를 좋아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학적 배경과 그들이 내린 3가지 결론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첫째, 특별한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둘째, 교회는 은사들의 결핍으로 지극히 약해졌고 빈혈증에 걸려있다. 셋째,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은사들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도 유용하다.²⁴⁶⁾

와그너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신유, 기적,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귀신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신학화 하였다.²⁴⁷⁾ 즉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한 특별한 경우의 기적은 예외적인 것이다.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적 교회의 표징임으로써 이러한 것들은 사도시대로 끝이 났다고 주장했다.²⁴⁸⁾ 서철원 교수도 신유 및 귀신 추방 등 은사의 소유자로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선교지역에서 복음이 처음 증거 될 때 치병의 기적들이 발생한 것은 신유의 은사자에 의한 치병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다.²⁴⁹⁾

존 스토틀(John R. Stott)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기적들이 밤하늘에 별들처럼 한데 뭉쳐서 나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뭉쳐 있는 곳은 4곳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모세시대이고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과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만나와 광야에서 물을 찾은

으로 배운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46) George Mallone, *Those Controversial Gifts*, (Downers Grove, IL : Inter Varsity Press, 1983), p. 11.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37.에서 재인용.

247)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38.

248) Benjamin B. Warfield, 「기독교 기적론」,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 1993), p. 12.

249)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p. 220-221.

일 등),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이며, 셋째는 주님의 생애 동안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들의 시대이다. 이들은 율법, 선지자, 주님, 사도라는 계시의 주된 네 시대를 이룬다. 그리고 기적들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계시의 시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⁵⁰⁾ 계속해서 그는 기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오늘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적에 의해 그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할 특별계시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며 또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특수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²⁵¹⁾

빌립보서 2:25-27에²⁵²⁾ 보면 바울의 친구인 에바브로디도가 여러 해 동안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 바울은 전에 병 고침의 은사를 발휘한 적이 있었음에도 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어쩌면 그 은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나, 바울은 단지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은사를 남용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웠든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는 것은 신유 은사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디모데후서 4:20에서도²⁵³⁾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바울은 드로비모가 병들었기 때문에 밀레도에 남겨두었다고 했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아픈 그의 친구를 그냥 놓아두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이 그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신유 은사의 원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²⁵⁴⁾

250) John R. Stott, 「성령세례와 충만」, 김현희 역, op. cit., p. 122.

251) Ibid., p. 123.

252) 빌 2:25-27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 느니라”

253)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254) 디모데전서 5:23; 고린도후서 12:7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사도들이 부여 받았던 은사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기적적인 표적 은사였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영원히 주어진 은사가 아니다. 그러나 와그너와 워버를 비롯한 제3의 물결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병들게 하셨겠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3. 주석적 근거의 빈약

a.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피터 와그너는 「기도는 전투다」에서 세 가지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몇 번 언급했었다. 와그너는 그 중 지상적 수준의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전략적 수준의 싸움은 소수의 무장된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 벌어진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피터 와그너와 그의 동료들 외에 누가 말했는가? 누구의 말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도출하거나 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최종 근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탁월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들을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

웨이인 그루뎀은 그가 제3의 물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받아들임²⁵⁵)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단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

255) Wayne Grudem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여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신자들에게 주셨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여기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마

과 같이 변증하고 있다.

오늘날 전략적 단계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신약성경에는 그 누구도 (1)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지역에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악령을 부른 적이 없었고, (2)그 지역의 마귀의 세력과 계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3)마귀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믿거나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4)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한 도시의 마귀의 세력을 먼저 물리치고 깨뜨려야 한다고 한 예나 말씀도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뿐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²⁵⁶⁾

성경은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와그너의 사상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얻어진 결론이기 보다는 사단과 악령의 세력들에 대한 불건전한 강박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와그너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근거로 하여, 자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사단과의 직접적인 싸움으로 본 것이다. 이는 적절한 신학의 방법이 아니다.

b. 지역 귀신의 존재(Territorial Spirits)

지역 귀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와그너의 성장학과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적인 배경 하에서 발견된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 YWAM의 존 도슨(John Dawson)은 선교방법으로 지역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를 인식하고 악령추방을 위해 먼저 지역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나의 죄인 것으로 간주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주장한다.²⁵⁷⁾ 같은 논조로 그는 “성경은 항상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의 주요한 특징을 악한 영들과 동일시하고 있다”²⁵⁸⁾

귀를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은성, 2003), pp. 642-648.

256)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은성, 2003), p. 633.

257) John Dawson, *Taking Our Cities for God: How to Break Spiritual Strongholds*, (Lake Mary: Creation House, 1989), pp. 19-28

라고 말하면서 이 이론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티모씨 워너도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이 지역 귀신들과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바사 왕과 헬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각 나라들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성경적인 시각을 준다는 것이다.²⁵⁹⁾

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경본문인 구약의 다니엘서 10장 1-21절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17장 1-18절을 다룸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주석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다니엘서 10:1-21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기도를 한다. 3주가 다 되어서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첫날부터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하였다.(12절)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러 온 천사는 “바사 국군이 이십 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고 말하였다.(13,14절) 그 천사는 계속해서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20절) 후에 그는 언젠가 “남방 왕”을 쳐부술 다른 “왕”에 대해 말하였다.(11:5)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하나는 “바사 국군”의 정체이며, 다른 하나는 “21일간 지연된 이유”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와그너는 다니엘에게 가기 위하여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국군”과 전투를 하였고, 그 전쟁은 21일간 지속되어서 미가엘 천사가 그를 도우러 올 때까지 끝나지 않았으며 도움을 받고서야 그는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258) John Dawson, *Foreword. In Engaging the Enemy: How to Fight and Defeat Territorial Spirits*. Edited by C. Peter Wagner,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1), p. ix-xvi. Edward Rommen, 「영적능력과 선교」, 정홍호 역,(서울: 목양, 1997), p. 107.에서 재인용.

259) Timothy M. Warner, 「영적전투」, 안점식 역, op. cit., p. 152.

다.²⁶⁰⁾

그러나 칼빈은 이 구절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칼빈은 “바사 국군”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로 그의 주석에서 밝히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부추기어 아버지의 칙령을 폐지할 정도로 완악해진 캄비세스와 천사가 싸웠다고 설명한다. 성전건축을 주도적으로 인정해 준 고레스의 통치 삼 년에 누군가가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였다. 당시에 고레스가 왕이었지만 캄비세스는 실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의 군대와 천사가 싸웠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칼빈은 바사 국군을 사람으로 보았다.²⁶¹⁾

이와는 반대로 영(Edward J. Young)은 “바사 국군”을 바사 정부에 영향을 주는 귀신으로 본다. 바사의 지도력과 함께 영향력 있는 지위에 대해 싸움을 벌이는 전투가 천사와 귀신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²⁶²⁾ 카일, 텔리취 역시 고레스왕이나 바사 왕들의 집단체가 아니고, 바사 나라의 수호신이거나 보호하는 신으로 보고 있다.²⁶³⁾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 간의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 신학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와그너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 계획도 사단이 막으면 21일까지 방해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21일간 지연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석학적 작업이 부족하더라도 난해한 한 구절을 가지고 개혁주의의 주권 신학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고 만다.²⁶⁴⁾

260) C. Peter Wagner,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op. cit., p. 59.

261) John Calvin, 「성경주석: 다니엘 II」, 존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3), pp. 257-260.

262) Edward J. Young, *The Prophecy of Daniel: A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49), pp. 224-228.

263) C.F. Keil & F. Delitzsch, 「성경주석 23: 다니엘」, 송종섭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2000), p. 468.

264)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op. cit., pp. 111-112.

다니엘은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 같은 전투에 대한 상세한 지식 또는 소식도 받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하였고 그 일의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지역의 귀신들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구약성경은 지역 귀신에 대한 생각들에 대하여 두 가지 근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나라의 신들이 진정으로 그 지역을 통제한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비해 다른 곳에서는 덜 통제력을 갖는다고 생각한 것 역시 잘못이다.²⁶⁵⁾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자 통치자시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상이다. 어느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2) 요한계시록 17:1-18

한편 와그너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비판하려 한다.

계시록은 마귀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 음녀는 복음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원수이며 핍박과 박해받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존재다. 사도요한은 환상 중에 그 음녀를 보고 ‘크게 기이히 여겼다(계17:1)’. 여기서 음녀란 어느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지역 귀신(territorial spirits)을 말한다. 음녀는 세상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계17:15).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 사회의 조직을 악으로 다스리는 자들마다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어느 지역이나 조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를 ‘지역 귀신’이라고 부르고 싶다.²⁶⁶⁾

265) Edward Rommen, 「영적능력과 선교」, 정홍호 역, (서울: 목양, 1997), pp. 110-117.

266)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p. 99-100.

와그너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를 지역 귀신이라고 말하였다. 이 음녀(지역 귀신)는 세상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한다. 음녀가 “많은 물”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주장한다.(계17:15) 그러므로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위에 앉아서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음녀이며 이 음녀는 지역귀신이라고 해석하였다.

와그너가 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큰 음녀”에 대한 해석으로 큰 음녀가 지역귀신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많은 물”에 대한 해석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19장 10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17:1-19:10)은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게 17:1-18과 18:1-19:10의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바벨론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고 후자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에 따른 결과들이다. 이런 바벨론의 멸망은 19:11-20:15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권성수 교수는 계시록 17-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데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18장은 상업적인 바벨론을 다룬다고 본다. 17장과 18장이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되 17장은 그것을 미래시제로 다루고, 18장은 그것을 과거시제로 다루기 때문이다. 17장 1절에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17:14-17에도 그것이 미래시제로 되어 있으나,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과거시제로 되어 있다. 18장 3,8,10,20 절에도 과거시제가 사용되었다. 17장과 18장이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공히 다루되 17장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 18장에는 바벨론의 상업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²⁶⁷⁾

267) 권성수, 「요한계시록」, (서울: 도서출판횃불, 1999), p. 362.

17장의 내용의 중심에 “큰 음녀”가 있으며 이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포이트레스(Vern S. Poythress)도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며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²⁶⁸⁾ 이 바벨론의 부패는 어린양의 신부의 순결함과 대조되며 불경건한 세상의 숭배를 자신 속에 요약한다. 사단, 짐승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하듯이, 바벨론은 거짓된 삼위일체에게 충성을 하도록 세상을 유혹하는 거짓된 것이다. 또한 “많은 물”은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바벨론을 부패시키는 영향력의 방대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²⁶⁹⁾

결국 “많은 물”에 대한 해석이 와그너의 주장과 일치한다 할지라도 “큰 음녀”에 대한 해석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하며 이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로 보는 것이 바르다. “큰 음녀”를 아무 근거 없이 곧바로 “지역 귀신”으로 보고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 따라서 와그너가 제시하는 지역귀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잘못된 성경해석위에 쌓은 이론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충분한 석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의해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회성장학파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웨인 그루뎀조차도 이러한 지역귀신이론이 성경에 근거한 이론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지역에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악령을 부른 적이 없었다. 둘째, 그 지역의 마귀의 세력과 계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셋째, 마귀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믿거나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넷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한 도시의 마귀의 세력을 먼저 물리치고 깨뜨려야 한다고 한 예나 말씀도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뿐이며 그러면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의 바꾸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다. 물론 마귀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²⁷⁰⁾

268) V. S. Poythress, 「요한계시록 백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2), p. 177.

269) Ibid., p. 182.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안의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보는 지역귀신의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 하심아래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을 묶거나, 내쫓으면 그 귀신은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간단 말인가? 다시 올수 없는가? 교회성장학파는 정령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지역 귀신 이론을 성경에 대입시켜 만들어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c.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²⁷¹⁾

와그너는 자신 스스로를 성경적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주장하는 영적 도해 개념도 성경의 가르침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와그너와 함께하는 학자들 역시 영적 도해개념이 성경적이며 그러한 전체 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²⁷²⁾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에스겔서 4장 1-3절, 다니엘서 10장 1-21과 신명기 32장 8절이다. 이중에서도 다니엘서 10장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으므로 이장에서는 에스겔서 4장 1-3절과 신명기 32장 8절의 내용들을 올바른 석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비판 하고자 한다.

1) 에스겔 4:1-3

와그너는 영적 도해의 한 예를 에스겔 4:1-3을 들어 설명한다. 그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시의 지도를 진흙판 위에다 그리고 ‘그

270)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op. cit., p. 633.

271) 이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 19페이지를 참조하라.

272) C. Peter Wagner,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p. 23.

성읍을 에워싸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통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 보았다.²⁷³⁾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고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니푸르라는 도시의 최초의 지도라고 생각되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조사를 통하여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 간직된 진흙판 위에 있었는데 에스겔이 사용했던 진흙판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 지도위에 형상들은 기원전 1500년 경에 그려진 것으로써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 도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도시의 가운데에는 '에닐(Enil)의 장소'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이 도시에 수메르인 신전에서 가장 뛰어난 신인 하늘의 신 에닐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와그너는 이것이 수메르를 지배하고 있던 지역 귀신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²⁷⁴⁾

와그너가 제시한 본문해석은 너무나도 황당하다. 그는 단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에스겔서의 진흙판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진흙 판에 지도들이 그려진 것과 에스겔서의 에스겔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개연성은 전혀 없다.

2) 신명기 32:8

와그너는 신명기 32장 8절을 통해서 지역귀신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이론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신명기 32장 8절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보면 불행히도 맛소라 원문이 히브리판에서 영어판으로 번역되는 가운데 원래의 의미가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뉴킹제임스판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그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로 번역되어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구절이 현 영어판에는 지역귀신론을 지지하는 성경구절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나 70인 역본의

273) C. Peter Wagner,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홍용표 역, op. cit., p. 24.

274) Ibid.,

번역을 보면 판이하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70인 역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의 수효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수효대로 정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²⁷⁵⁾

물론 그가 70인 역에 “하나님의 천사”(αγγελων θεου)라고 나타난다고 말한 것은 맞다. 그러나 70인 역의 진정성 문제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성경이 70인 역이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50-150년에 번역되었다. 이 역본에 대한 전통적인 기사는 「아리스테이아스가 필로크라테스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of Aristaeus to Philoctetes*)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B.C.130-100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70인 역에 터무니없는 수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소한 토라가 히브리어를 모르며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²⁷⁶⁾

그러나 아처(Gleason L. Archer)에 의하면 70인 역이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하여 다루었다면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 신뢰 받아야 할 것이지만, 70인 역 텍스트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아주 이질적인 기원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 자체의 전승에 있어서도 서기관의 충실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70인 번역판에 의해서 히브리어 전신을 재구성하는 것이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였다.²⁷⁷⁾

따라서 본래의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70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BHS 4판에서 신명기 3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לְמִסְפָּר בְּנֵי יִשְׂרָאֵל בְּהַנְחֵל עֲלֵיוֹן גּוֹיִם בְּהַפְרִידוֹ בְּנֵי אָדָם יֵצֵב גְּבֻלַת עַמִּים ”

275) C.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op. cit., p. 103.

276) Gleason L. Archer, 「구약총론」, 김정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p. 44-45.

277) Ibid., p. 48.

문제가 되는 누구의 수효대로인가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לְמִסְפָּר כְּנִי יִשְׂרָאֵל)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나타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70인 역의 구절을 들어서 성경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사상적 배경은 성경이 아닌 사단에 대한 과대한 인정을 하는 현상적인 경험에 의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만들어 낸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조지 오티스(George Otis, Jr)는 필자와 같이 자신들의 이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이론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이 개념이 성경 외적이라는 주장에 놀라서 영적 지역 구조를 멀리하게 된 사람들은 ‘성경 외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 외적이라는 것은 주의해서 통과하라고 경고하는 노란 신호등에 해당한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법과 상식에 의해서 행인을 멈추게 하는 붉은 신호등에 해당한다고 하겠다.²⁷⁸⁾

그의 주장은 영적 도해 이론이 ‘성경 외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성경외적인 것에 근거하여 신학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 왔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구축되면 그것은 “성경적” 또는 “비성경적”의 두 가지 구분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그 지역 악령들의 이름을 파악하고 전략들을 구축하지 않았다. 바울역시 가는 도시마다 지역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무찌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영적도해 개념은 모든 문제를 사단에게 돌리고 사단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

278) C. Peter Wagner,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홍용표 역, op. cit., p. 39.

는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만든다. 사단을 결박하여 추방한 지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어 버린 지역이 되는가? 어느 도시도 복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된 곳은 없다. 영적인 생명의 문제는 공간적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초 공간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²⁷⁹⁾

d.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

가계 저주를 주장하는 자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성경적 근거를 언급하고, 그 근거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론을 전개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모두는 성경에서 출발 했다고 보다는 그들의 상담소를 찾아온 내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나온, 임상적 경험의 결과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적 근거를 찾아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²⁸⁰⁾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은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그들 대부분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인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27장 15-26절과 신약의 마태복음 17장 14-21, 마가복음 9장 7-29절, 누가복음 9장 37-43절을 석의하여 이들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밝히고자 한다.

1) 출애굽기 20:5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3계명은 다음과 같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5)” 이 구절을 통해서 크래프트는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책임을 지는

279)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op. cit., p. 115.

280) 오광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론은 과연 성경적인가”, 「교회와 신앙」 1999년 10월호

예로써 설명한다.²⁸¹⁾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에 대하여 김정우 교수는 다음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배경 가운데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둘째,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으로서 독점적인 법적 권리를 갖고 주장하실 수 있다.²⁸²⁾ 셋째,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넷째, “아버지의 죄”를 “자식 삼사대까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저주 공식에 등장하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과 다를 뿐 아니라, 부모의 죄가 “자동적으로”나 “주술적으로” 꼭 삼사 대까지 흐르리라는 뜻도 아니다. 다섯째, “죄를 심판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적인 징계로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혹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죄인의 범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의 자녀 됨에서 완전히 끊어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²⁸³⁾

출애굽기 20장 5절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는 조상들과 그 조상들의 악하고 강한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우상숭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²⁸⁴⁾

281) 이윤호, 찰스 크래프트 공저, 「가계의 복과 저주전쟁에서 승리하자」, op. cit., pp. 61-62.

282) 출 34:14, 신 4:24; 5:9; 6:15, 수 24:19, 나 1:2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난다.

283) 김정우, “언약의 저주에서 본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신학’의 문제점” 「목회와 신학」 2000년 3월호, p. 87.

284) 윤석호, 영적 전쟁: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에 대한 선교 문화인류학적 비판, (신학박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6), p. 147.

이 구절의 핵심은 교육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받은 “저주”를 “조상 탓”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십계명과 같은 중요한 말씀조차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2) 신명기 27:15-26

가계저주론자들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이 여러 종류의 저주의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저주 목록을 밝힌다. 데렉 프린스는 “나는 어떤 특정한 병이 항상 혹은 대부분 저주로 말미암는 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삼간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 되는 저주의 유전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월경불순인 여자의 그 원인이 그 여자가 어렸을 때 “월경은 저주야!”라고 말한 것에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²⁸⁵⁾

그러나 신명기 27장 15-26절의 저주는 그 뒤의 신명기 28장의 축복선포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전자는 실제 언약을 위한 서약을 행할 때에 제사장이 선포한 내용이다. 즉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 저주가 임한다는 선포를 제사장이 한 것이다. 결코 이것은 이것 자체로 유전적인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²⁸⁶⁾

3) 마태복음 17:14-21, 마가복음 9:14-29, 누가복음 9:37-43

크라프트의 제자인 이윤호는 악한 영들의 침입이 부모들의 죄를 통해서 신생아들에게 침입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귀신에 들린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구절로 마 17:14-21, 막 9:14-29, 눅

285) Derek Prince, 「축복이나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주혜미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pp. 41-46.

286) 송제근, “모세오경에 나타난 저주에 대한 주해적 접근” 「목회와 신학」 2000년 3월호, p.109.

9:37-43를 든다.²⁸⁷⁾ 이러한 성경적인 예들을 조상의 죄로 인해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저주라고 본다. 그러나 위의 성경본문들은 이윤희의 주장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

본문내용을 살펴보면 마 17:14-21과 눅 9:37-43의 내용은 한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된다.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한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간질로 고생하게 하는 귀신을 아들로부터 내어 쫓으시는 내용이다. 마가복음 9장 14-29절의 내용 역시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병어리로 고생하는 것을 알리고 치료받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들을 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윤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 부터니이다”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과이디온’이라는 용어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갓 태어난 아이(요16:21)나 최근에 출생한 아이(마 2:8) 및 보다 성장한 아이(막9:24)에 두루 사용되었다. 즉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성경본문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귀신에 들려서 병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들을 살펴 볼 때 이윤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귀신들림이 아이의 조상이 가졌던 악령이나 죄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신약성경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또한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귀신들렸었다는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크래프트나 이윤희의 주장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인용하여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²⁸⁸⁾

287) 이윤희,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9), p. 117.

288) 정홍호, 「가계저주론, 그 실체를 밝힌다」, (서울: 예영출판사, 2003), pp. 217-220.

이상에서 가계저주론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한 성경본문들을 정확히 살펴본 결과, 성경은 가계저주론자들에게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본문을 끼워 맞추는 작업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신자들의 관심을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돌려 귀신들과 사단, 그들의 활동과 그 악한 영향 등으로 이동시켰다. 결국 그들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특히 신자들은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 아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불행, 그리고 행복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e. 능력 대결(Power Encounter)²⁸⁹⁾

능력 대결을 처음으로 주장한 알란 티펫(Alan Tippett)과 피터 와그너는 능력대결을 사단과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해하였다. 신자들이 이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하여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존 워버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능력대결의 사건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열왕기상 18장의 장면이라고 한다.²⁹⁰⁾ 워버와 와그너 이외에도 위의 성경본문을 가지고 능력대결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열왕기상 18장의 석의와 그밖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능력대결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289) 능력대결에 관한 설명은 본 논문 23-25페이지를 참조하라.

290) Ibid., p. 46.

1) 열왕기상 18:1-46²⁹¹⁾

능력 대결의 표준적 모델로 제시되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바알은 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바알과 하나님이 대결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엘리야의 일련의 행동들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건이다.

이 사건 속에서 바알은 저항하거나 대결하는 국면을 전혀 보이지 못하였다. 여기서 사단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존재나 활동 자체가 무시되며, 사단의 사역지는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는 속임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워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18장에서 엘리야가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장에서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들어가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²⁹²⁾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엘리야가 바알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워버가 말하는 능력대결로 보았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본문을 능력대결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단순히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2)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

291) 이 본문에 대한 워버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25페이지 또는 65페이지를 참고하라.

292) 열왕기상 19:4

능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능력대결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김성태 교수는 성경적인 능력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구조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의 성숙을 지향하는 준거점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²⁹³⁾ 이러한 측면에서 아더 글라셔도 능력의 내용에 대하여 물질주의적이고 경험적인 능력의 의미를 비판하며 경계하였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원리 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무형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⁹⁴⁾ 카슨(D.A. Carson)도 바울에 의해 사용된 능력의 의미를 정의하기를 “오늘날의 능력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유일한 최고의 힘의 표현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성도의 견인, 시련 속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²⁹⁵⁾

결국 능력을 획일적으로 외형적, 물질적, 가시적과 외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주권적 영향 아래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때로 외적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게 하는 경건한 삶에 있는 것이다.

3) 능력 대결 비판

293)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80.

294) Arthur Glasser, *Kingdom and Mission: New Testament Section*,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8), pp. 160-162.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8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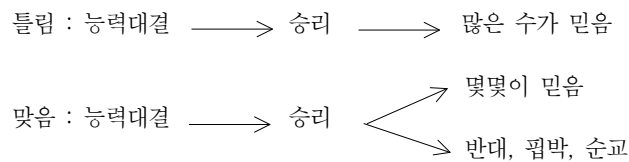
295) D. A. Carson, “*The Purpose of Signs and Wonders In the New Testament*”, in *Power Religion*, ed., Michael Scott Horton, (Vereeniging: Christian Art Publishers, 1992), pp. 89-118.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83.에서 재인용.

종합해 볼 때 이들이 말하는 능력대결의 개념은 악한 영과의 대결 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비 그리스도인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극적인 치유, 축귀, 신적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볼 때 믿게 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하나님 능력의 현현이 종종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만, 원수를 자극하여 더 많이 이에 반대하여 꺾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많이 보여주었다.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패턴이 잘 나타난다.²⁹⁶⁾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에 대항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성경적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이다.(고전 1:18-25) 만약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거나, 그로 하여금 신성을 잘못 사용하도록 충동질하기 위해 모든 권능을 다 사용하였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에게는 패배를 의미하는데, 첫째 가능성은 사단이 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두 번째의 가능성은 그것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유럽 세계관²⁹⁷⁾에서 승리로서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괴롭히는

296) * 성경에 나타난 능력대결



- * 사도행전에 나타난 능력대결 : 행 2,3,5,6,11,13,14,16,17,21장
- * 요한복음에 나타난 능력대결 : 요 1,2,3,4,5,6,7,8,9,10,11,12,13-19,20-21장 -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로마의 권세들을 대항하였다. 윌리엄 D. 테일러,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김동화, 문상철, 이현모, 최형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pp. 307-308.

297) 인도유럽 세계관에 중심적인 것은 우주 안에서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신화이다. 인도 유럽계 인종들이 아시아 내륙에서 유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아시아로 퍼지면서 이 신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벨론과 수메르, 가나안과 그리스 그리고 인도와 독일 종교들의 기초가 되었다.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역,

사람들의 도전에 맞부딪히고, 천상에서 명령만 기다리는 천사들을 부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승리 가운데 그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 반면 성경에서 십자가는 약함을 통한 승리의 표시이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의의 승리이며,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며, 사단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인 것이다.²⁹⁸⁾

능력 대결을 복음 전도의 근거로 삼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현대의 기적들을 복음 전도의 근거로 삼게 되면 복음의 참 메시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화목케 하셨고 따라서 마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실 권리를 가지셨다는 것을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예수는 제쳐두고 환상적이고 신기한 예수만 선호하게 되며, 구세주 그분을 믿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기사와 이적을 그 중심에 두게 된다. 둘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한다. 예수님은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설사 부활을 목격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 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눅 16:13)²⁹⁹⁾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대결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매번 꾸짖으셨다.³⁰⁰⁾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설교중심이었다. 때때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없이 설교만 하시기도 했다.³⁰¹⁾ 교회성장학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반대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을 경계하고 성경적인 영적 전쟁을 회복해야 한다.

op. cit., p. 268.

298) 윌리엄 D. 테일러,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김동화,문상철,이현모,최형근 역, op. cit., pp. 306-309.

299) John F. Macarthur, 「은사 1」, 설영환 역, op. cit., pp. 228-229.

300) 마 12:38,39; 16:1-4; 막 8:11,12; 눅 11:16,29; 23:8,9; 요 4:48

301) 마 13:1-52; 18:1-35; 요 7:14-44.

4. 세계관의 한계

a. 와그너와 워버의 세계관 이해

와그너는 서구 기독교 세계관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이성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³⁰²⁾ 워버도 서구기독교 세계관을 세속화된 사고방식에서 기인되었다고 말하였다. 즉, 오직 경험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18세기의 계몽주의를 거쳐 19세기에 유물론적 세계관이 서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동양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 초월 명상이 최근에 서구사회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³⁰³⁾

이런 상황에서 와그너는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세계관의 사각지대(배제된 중간영역)”를 설명하였다.³⁰⁴⁾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사각지대에서의 대처를 서구기독교가 극복해야 할 영역임을 깨닫고 자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b. 인도-유럽세계관의 한계

히버트는 와그너와 워버 등에 의해서 주장되는 제3의 물결의 영적 전쟁 개념이 인도-유럽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세계관은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사단과 그의 악령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땅을 통제하기 위한 우주

302)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op. cit., p. 58.

303) John Wimber, 「능력전도」, 이재범역, op. cit., pp. 112-113.

304) 중간영역에 관한 설명은 본 논문 45페이지를 참고하라.

적 갈등으로 설명한다고 말하였다. 이 전쟁은 천상에서 일어나지만, 하늘과 땅에 걸쳐 나타난다. 핵심 질문은 능력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미심쩍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강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갈등의 희생자들으로써,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자들도 사단으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³⁰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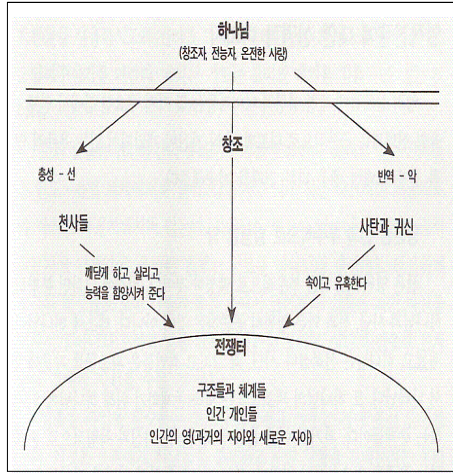
와그너와 워버를 비롯한 교회성장학과는 알란 티벳에 의해 처음 사용된 “능력 대결(Power Encounter)”의 사상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물활론적 세계관을 가진 세계의 2/3지역에,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남으로써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가 압도당하여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즉 중간 영역의 세계관 속에서 초자연적 실재에 민감하여 악마적 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자에 의해 선포되고 증거 될 때 수반되는 하나님 능력의 현현이요 실증이다.³⁰⁶⁾

폴 히버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초문화적인 고등 영역과, 피조물인 천사와 사단과 귀신들이 속해 있는 비절대적이며 초문화적인 중간영역,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적이며 문화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워버와 와그너는 히버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히버트가 제시하는 그림에는 하나님과 영들 사이에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구분선이 있음을 그들은 간과하였던 것이다. 다음그림은 히버트와 와그너(티모씨 워너)가 제시한 영적 전쟁 그림을 소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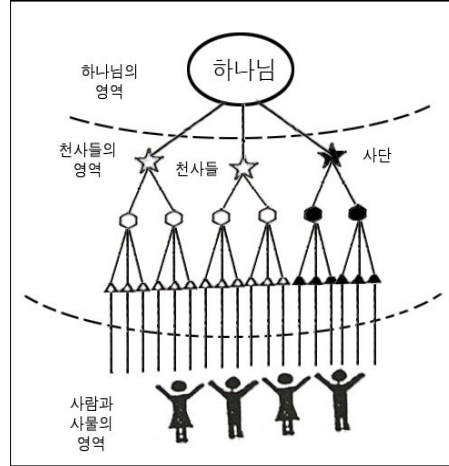
305) 윌리엄 D. 테일러,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김동화,문상철,이현모,최형근 역, op. cit., p. 302.

306)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op. cit., p. 332.

히버트



와그너 / 티모씨 워너



히버트의 이해는 영들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람을 침범치 못한다고 이해한다. 오직 허용적으로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있을 뿐이다. 더욱 사단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히버트의 그림에서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접근할 수 없는 절대 주권적 영역이 있다. 그러나 와그너와 워너의 세계관 속에는 이러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관점들은 참으로 우려할 만 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대등한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³⁰⁷⁾

히버트는 교회성장학파가 지향하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이해하고 있다. 사단을 직접 역사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하늘에서의 정사와 권세들의 싸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영

307)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op. cit., pp. 81-83.

적인 싸움을 신학의 중심 주제로 삼지는 않는다. 선한 신과 악한 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맥락에서 죄와 고난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죄와 은혜의 맥락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c. 마술적 세계관

마술은 종교와 반대된다. 마술에서는 인간들이 무언가를 지배하는 반면, 종교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의 뜻에 복종한다. 양자 사이의 차이는 실행의 차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수 있거나,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에서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매우 아플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곧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마술의 특징 중 하나는 공식화된 접근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기도하였고 일정한 방식으로 구하였다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이들이 이 말을 무조건 반복할 때에만 기도의 능력을 받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마술이 되고 만다.³⁰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뜻하는 바를 구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⁰⁹⁾ 폴리슨은 이러한 마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건과 행동을 귀신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사람들

308)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역, op. cit., pp. 328-329.

309) 야고보서 4:4; 요한일서 5:14-15.

은 지역귀신들, 영들, 신들에게 잘 보여야 하며 축복을 받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불만을 가진 귀신이 그릇을 깨뜨리는 것부터 병이 나고 실연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는 것까지 주관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마술 숭배와 그 행위는 규범이 된다. 점성술사, 이교목회자, 예언자, 영매, 마법사, 몰아지경에 빠지는 자, 점쟁이 등이 우글거리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의지한다. 셋째, 마술을 행하는 민족들은 폭식, 술 취함, 갖가지 종류의 부도덕, 욕심, 피에 굶주림, 힘의 과시와 같은 일반적인 인간의 증독을 추구한다.³¹⁰⁾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성장학과의 사상은 마술적 세계관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찰스 크래프트는 적의 신들(영들)에 바쳐진 문화 유적들도 그 안에 귀신들이 있다고 본다. 관광객이나 군인들이 흔히 해외에서 이교도의 의식에 사용되었거나 신들과 영들에게 바쳐졌던 형상이나 도구들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귀신들을 주워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¹¹⁾ 와그너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들 집에 있는 귀신들과 전통종교에 사용된 물건들을 관광용으로 복제한 것에도 귀신이 깃들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³¹²⁾

불행하게도 교회성장학과의 생각들이 이러한 마술적인 세계관에 자신들도 모르게 젖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회복하여 성경적인 세계관³¹³⁾

310)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p. 62.

311) Charles H. Kraft, *Defeating Dark Angel: Breaking Demonic Oppression in the Believer's Life*, (Ann Arbor, Mich: Servant Publications, 1992), p. 198.

312) C. Peter Wagner,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n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Edited by C. Peter Wagner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3), p. 62.

313) Powlison은 귀신들로 가득 찬 문화에 대하여 구약성경은 뚜렷하게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구약성경이 사단을 과소평가 한다는 것이다. 구약은 국가들이 한 것들을 마술적 세계관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인간의 죄와 고통에 관해 귀신론적 설명으로 수정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구약은 귀신, 악한 영, 하나님, 전쟁의 본질에 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둘째, 구약은 인간의 책임을 최대화 한다. 비참하게 된 인간의 상태는 거주하는 귀신들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p. 63.

으로 바뀌어져야 함이 절실하다.

5. 지나친 체험중심의 신학

교회성장학과의 신학적 내용들의 대부분은 주로 체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imber는 그의 책 「Power Points」에서 성경에 근거한 제3의 물결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분명하게 축자적으로 영감 되어 무오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기독교인의 교리와 행동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위한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³¹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Wimber나 그 밖의 제3의 물결의 지도자들은 성경보다는 무엇인가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주로 관심을 둔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은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Wimber와 와그너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의 배경은 정령 숭배적 세계관을 가진 선교지나 사역지에서 능력대결과 능력전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 낸 이론이다. 스티븐 닐(Stephen Neil)이 말하듯 세계인구의 40%가 정령 숭배자이며, 세계 이슬람 교인들의 70%가 정령숭배사상이 기초가 되는 민간 이슬람이고 대부분의 미전도 세계가 정령숭배주의자이다.³¹⁵⁾

정령숭배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경험들이 서양기독교에 소개되면서부터 이러한 운동과 이론들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교회성장학과의 영적 전쟁의 이론적 정립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통해 시작되고 체계화 되었다. 결국 사역현장에서 일어난 진리들을 성경에 대입하는

314) John Wimber, *Power Points*, (San Francisco: Harper, 1991), pp. 31-51.

315) Cailyn Van Rheenen, *Communicating Christ in Animistic Context*, (Grand Rapids: Baker, 1991), pp. 25-27. 윤석호, 영적 전쟁: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에 대한 선교 문화인류학적 비판, (신학박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6), p. 192.에서 재인용.

형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지나친 체험중심의 신학이라고 명하고 싶다.

성경의 진리를 다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 객관적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주관적 방법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것은 신비주의에 가깝다.

신비주의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영적 실재를 인식하려는 신앙 체계를 말한다. 그것은 느낌이나 직관 또는 다른 내적인 감각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한다. 신비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자료들은 항상 무시해 버리고 도리어 내적인 요소에 그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 결과 일시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직관이 이성을 억누르고, 내적인 지각이 외적인 실재를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³¹⁶⁾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실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신학의 기초로 삼기가 쉽다. 진리의 시금석은 성공이며 영적 생활과 생명력 있는 예배의 표시는 흥분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에 근거한 방법들의 척도는 성장과 크기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체험을 통해 신학을 정당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첫째, 위대한 종교적 체험들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아니다. 둘째, 육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체험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셋째, 서로 연관되는 복합적 종교 체험들은 그 체험이 필연적으로 구원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넷째, 종교적 행위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외관상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영적 체험들이 필연적으로 구원적 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사람들로 찬양을 하게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종교적 체험들이 필연적으로 구원하게 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³¹⁷⁾

316) John F. Macarthur, 「은사 1」, 설영환 역, op. cit., p. 37.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서 체험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에 비추어 우리의 체험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체험에 근거한 신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나 하나님의 영감 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은 반석위에 세운 집과 같다.³¹⁸⁾

이것은 결국 권위의 문제이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권위인가? 체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모든 체험은 성경의 진리에 의존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체험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독교 교리나 신학은 문전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다음세대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³¹⁹⁾ 따라서 이러한 것은 사단의 고도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이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6. 인간의 책임 소실

찰스 크래프트는 말하기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의 첫째 원인은 귀신이라고 했다.³²⁰⁾ 티모씨 워너는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이 지역 귀신들과의 대결이라고 말하였다. 다니엘서³²¹⁾에 나오는 바사 왕과 헬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각 나라들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성경적

317)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ed. John E. Smith,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9), pp. 127-181.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역, op. cit., pp. 324-325.에서 재인용.

318) 마태복음 7:24-27.

319) John F. Macarthur, 「은사 1」, 설영환 역, op. cit., p. 58.

320) Charles H. Kraft,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윤수인 역, (서울: 은성, 1995), pp. 165-167.

321) 다니엘 10:13,20

인 시각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³²²⁾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신약성경의 언급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³²³⁾

그들은 사단이 모든 문제를 야기 하는 제1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의 근원이 사단을 제압하거나 쫓거나 묶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지역귀신, 악한 영, 강한 자들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책임은 뒤로한 채 전면의 사단의 행동만을 말하며,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떠맡긴다.

폴리슨은 그가 상담한 신디아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보다는,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게 하였다.

신디아는 토스트기가 고장이 나자 귀신을 쫓아냈다. 더 심각한 경우는 그녀가 남편, 앤드루와 심한 언쟁을 하며 서로에게 공격할 때였다. 처음 5분간은 보통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다툼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자 그들의 싸움은 험악해져 기어를 바꾸어 대포를 쏘아댔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서 분노의 귀신, 자존심의 귀신, 자기 의의 귀신을 결박하고 꾸짖고 쫓아냈다. 신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편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인마 같은 귀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외쳤죠. ‘분노의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능력을 결박하노라.’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단의 비난을 막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했어요.”³²⁴⁾

신디아는 모든 잘못된 현상들을 사단의 영향력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묶거나 쫓아냈을 때에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이 사단에게 있다고 함으로, 궁극적인 책임을 사람이 아닌 사단에게 돌린다.

322) 마태복음 12:29

323) Timothy M. Warner, 「영적전투」, 안점식 역, op. cit., p. 152.

324)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9-10.

능력대결과 능력전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묶어 야만 전도가 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복음전파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고백을 함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닌 상대나, 사단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묻는다.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을 때 가롯유다는 그 유혹을 이겨 내지 못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단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가롯 유다에게 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하나님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계시

찰스 크래프트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고 주장한다.³²⁵⁾ Wimber 또한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 또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내면적인 문제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하였다.³²⁶⁾ 와그너는 이에 대하여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logos)와 한 지정된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즉시적인 개인적 말씀인 레마(rhema)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무오한 것인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후자의 범주로서 “지식의 말씀”이 있다고 보았다.³²⁷⁾

크래프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의 대부분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주 적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육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하면서, 강

325)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with Power*, (Ann Arbor, Mich: Vine Books, Servant Publications, 1989), p. 158.

326) John Wimber, 「능력전도」, 이재범역, op. cit., p. 90.

327) C. P. Wagner, 「영적원수를 대적하라」, 명성훈역, op. cit., pp. 43-45.

력하게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계시가 임한다고 말하였다.³²⁸⁾

과연 그러한가? 위와 같은 주장대로라면 계시가 종결되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구약 ……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나, 인간의 구원이나, 믿음이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성경으로부터의 건전하고도 필연적인 귀결로 추론되어진다.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이 추가되어질 수 없다.³²⁹⁾

찰스 하지(Charles Hodge)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오하고 신앙과 삶에 해당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 교리, 사실, 또는 교훈에 관해서 모든 오류로부터 벗어나 있다. 둘째, 성경은 그의 교회에 대한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모든 현존하는 초자연적 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성경은 통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어떤 무오한 해석자가 없을지라도 신앙과 삶에 필수적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명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³⁰⁾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도 “특별계시의 새로운 구성적인 요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첨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의 사역은 성취되었으며 그의 말씀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³³¹⁾라고 말한 것처럼 계시가 완성된 성경66권은 우리의

328)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with Power*, op. cit., p. 159.

329)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2002), pp. 471-473.

330) Charles Hodge, 「조직신학 1」, 김귀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 200.

331) Herman Bavinck, 「개혁주의 교의학 1」, 김영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

신앙과 삶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학파가 믿는 계시관을 따라간다면 ‘성경의 독특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정경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예언이나 신령한 노래, 또는 지혜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계시들을 열심히 수집하여 성경에 첨가하고 또 이것들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계시들이 우리 시대와 문화와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참 교회는 항상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를 주셨고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실수나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다. 성경에 어떤 것을 더하려는 시도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이단들의 특징이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특징은 아닌 것이다.³³²⁾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면 그들이 겪은 지혜의 말씀이 정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았던 계시에 오류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 그러한 거짓말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들의 계시관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영적전쟁에 대하여 개혁주의, 즉 성경적 관점에서의 영적전쟁 개념, 대상,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444.

332) John F. Macarthur, 「은사 1」, 설영환 역, op. cit., p. 92.

V.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A. 개혁주의 영적 전쟁

1. 영적 전쟁의 개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내뿜는 말로 결박할 수 있는 사단과의 신비로운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비밀스러운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또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기” 위해 신비한 비결을 배울 필요도 없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영적 전쟁의 문제에 관해 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필자와 같은 시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죄를 귀신들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거짓의 굴레에 매이게 한다는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만났을 때의 양식과 같다. 이런 방법으로 쓴 영적 전쟁의 교과서는 시편, 잠언, 예수님이 도덕적 악에 대해 언급했던 방법들과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가르침이다.³³³⁾

예를 들어, 청교도 목회 신학자들은 영적 전쟁에 관해 깊이 있는 글을 자주 썼다.³³⁴⁾ 그들은 성경, 귀신, 인간 본성에 관하여 글을 쓰면서 무서운 악과 사단의 기만적 계략에 관해 주목했다. 동시에 그들은 인간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분석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청교도들은 비신화한 현대인들이 아니다. 그들

333)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 42.

334) 토마스 브룩스(Thomas Brooks)의 「Precious Remedies Against Satan's Devices」, 존 번연(John Bunyan) 「Pilgrim's Progress」, 「Holy War」, 윌리엄 거널(William Gurnall) 「The Christian in Complete Armor」

은 영계 속에 살았고 영적 전쟁에 관해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단의 전투, 함정, 속임수, 계략을 알았지만 사단을 쫓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적 전쟁이란 에베소서 6:10-20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열렬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신과 주술에 빠져 마늘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단이 신자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온다고 말했다. 사단은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 날려 보낼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증오 가운데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신자들을 속일 것이다.

영적 전쟁은 복음에 관한 것을 지키며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거나 결박하는 저주의 선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복음의 빛이 흐려지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미지로 눈길을 돌리는 모든 영역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사단에 속아 행복에 이르는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학적인 내용들을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영적 전쟁은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으로 향하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돌이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믿음,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강력한 힘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한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전통적인 목회 신학자들은³³⁵⁾ 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

335) 위에서 언급한 청교도들 외에도 선교지에서 축사방법에 의한 귀신들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존 네비우스(John Nevius) 「Demon Possession and Allied Themes」, 프레드릭 리히(Frederick Leahy) 「Satan Cast Out」와 현대의 기독교작가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루이스(C.S. Lewis) 「The Screwtape Letters」 「The Great

기 위해 축사전도, 축사 성화, 또는 축사 방어를 구하지 않았다.³³⁶⁾

2.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상을 사단으로만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이며, 그 죄를 부추기는 사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들이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은 죄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사단의 역사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14-15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라고 말씀한다. 사단으로부터 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우리는 사단의 개입이 전혀 없이도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 한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8:44)라고 했고 “처음부터 범죄한자”(요일 3:8)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시험하였듯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온갖 간교한 술책을 다 사용한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Divorce」 「The Space Trilogy」, 레이 스테드먼(Ray Stedman) 「Spiritual Warfare: Winning the Daily Battle with Satan」, 제이 아담스(Jay E. Adams) 「The War Within: A Biblical Strategy for Spiritual Warfare」, 존 맥아더(John MacArthur) 「How to meet the Enemy」 이다.

336) Ibid., p. 40-42.

판단력에 의하여만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혹시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이 아닐까?”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죄가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며, 사단으로부터의 강력한 유혹을 인식하여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항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a. 영적 전쟁의 대상인 죄(罪)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거나 힘 아래 놓이게 될 지라도 은혜를 통해 그 상태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럴 수 없고 죄의 절대적인 지배아래 놓이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을 받거나 힘 아래 놓이게 될 때가 있다. 죄에 대해서 존 머리(John Murray)는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죄는 실제적인 악이며, 둘째, 특별한 악으로써 단순한 고통으로 드러난 증상들(죽음, 고통,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는 것이다. 셋째, 죄는 도덕적인 악으로써 모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 본성의 나타남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경향성이라는 사실이다.³³⁷⁾

후쿠마(Anthony A. Hoekema)도 죄의 본질에 대해서 7가지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첫째, 죄는 독립성을 지니지 않는다. 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성격을 지님으로써 창조와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후에 온 것이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의 기형적인 변태이다. 둘째,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337) John Murray, “Nature of Sin” in *Collected Writing of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6), pp. 77-79. 김남준, 「죄와 은혜의 지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p. 29.에서 재인용.

뜻에 연관되어 있다. 죄는 단순히 인간본성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미움에 그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 근원을 갖고 있다. 넷째, 죄는 행실 뿐 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한다. 다섯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둘 다 포함한다. 즉, 원죄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하는 죄도 죄책과 오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죄는 그 뿌리에 있어서 교만이라는 형태를 갖는다. 일곱째,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로 저질러지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의 죄를 종종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³³⁸⁾

이러한 죄의 세력은 인간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을 심각하게 행사한다. 인간에 대한 죄의 지배는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로 나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항상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거듭난 신자들은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할 때에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 있게 된다. 신자들의 경우에는 죄가 절대적으로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중생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 대한 죄의 지배는 상대적인 지배³³⁹⁾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 존 오웬(John Owen)은 “죄 죽이기(Mortification)교리”에 관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경을 통해 설명하였다. 오웬은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죄 죽임에 대한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신자에게 부여된 죄 죽임의 필요성의 의무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죄 죽이기에 대한 필요성은 인간은 타락하고 나약하여 항상 신자가 육체의

338)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p. 280-292.

339) 신자의 경우 중생함으로써 죄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궤멸되었지만,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세력은 신자 안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다. 죄의 세력은 등뼈가 부러져서 설설 기어 다니는 처지가 되었으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신자 안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소욕에 빠지도록 죄와 유혹이 격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독한 죄와 정욕을 대적할 원리를 갖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신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신자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통해 매일 같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³⁴⁰⁾ 따라서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b. 영적 전쟁의 경계 대상인 사단

성경이 마귀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 하여 그들의 술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 있는 무기들로 우리를 든든하게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³⁴¹⁾ 아래에서 사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할 것이다.

1) 우리들의 원수가 된 사단과 마귀들의 기원

모든 천사는 다 선하게 창조되었다.(창1:31) 그러나 성경의 두 구절은 어떤 천사들이 자기들의 본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창조 때의 신분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벧후2:4; 유6) 타락의 시기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을 보면 인간의 타락 이전임을 알 수 있다.³⁴²⁾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웨인 그루뎀은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1

340) John Owen, *The Work of John Owen*, Edited by William H. Gool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Third printing, 1983), Vol. 6, p. 10-12. 김종민, “John Owen의 Mortification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의무에 관한 고찰”(신학석사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05년), pp. 38-40.에서 재인용.

34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상」, 원동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p. 209.

절 사건 사이의 한때에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범죄 했음이 틀림이 없다고 한다. 또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모든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말씀의 원수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³⁴³⁾ 결국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수장은 ‘사단’이다. 박형룡 박사는 사단을 가리켜서 본래 존귀한 천사들 중의 하나로써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수령이 되었다고 본다.³⁴⁴⁾ 이러한 이름은 욥기 1장 6절의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를 통해 소개된다. 여기에서 사단은 욥을 대적해서 무서운 시험을 주는 여호와의 원수로 나타난다. 다윗의 생애 말년에도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대상21:1) 스가랴도 이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다.(슥3:1)

사단(Satan)은 히브리어(**שָׂטָן**)로 “대적”이라는 의미다.³⁴⁵⁾ 신약 계시록에서는 디아볼로스(**διάβολος**)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참소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단은 또한 ‘이 세상 임금’(**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으로 불린다.(요12:31;14:30;16:11)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사단이 이 사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³⁴⁶⁾

342)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I」, op. cit., p. 407.

343)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op. cit., p. 622.

344)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I」, op. cit., p. 412.

345)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op. cit., p. 624.

346) Louis Berkhof,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 355.

2) 사단의 전략

사단과 그와 함께한 마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인간들을 공격한다. 인간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도 마귀와 그의 명령과 그의 통제와 권세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종속적인 권세와 군대들의 유일한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⁴⁷⁾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단은 인간에게 그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사단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전략들을 박형룡 박사는 11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사단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거짓말(요8:44;고후11:3), 시험(마4:1), 빼앗음(마13:19), 괴롭힘(고후12:7;욥1:2), 막는 것(살전2:18;엡6:12;슥3:1), 까부름(눅22:31), 가장(고후11:14,15;마13:25), 참소(계12:9,10), 병으로 치는 것(눅13:16;고전5:5), 접하여 들어가는 것(요13:27), 죽임과 삼킴(요8:44;뱀전5:8)등이다.³⁴⁸⁾

사단은 신자들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시험하고 괴롭힌다. 사단은 이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신자들을 잡아당기기 위해 이용한다. 이 공격에서 방어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만약 이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속지 않았을 것이요,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들의 전략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마귀는 편재해 있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⁴⁹⁾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가 우리 마음을 읽을 수

347) D.M. Lloyd-Jones, 「영적투쟁」,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p. 106-107.

348)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I」, op. cit., p. 416.

349) D.M. Lloyd-Jones, 「영적투쟁」, 지상우 역, op. cit., p. 107.

있다는 증거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³⁵⁰⁾

우리는 사단의 전략들을 미리 알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 머리가 박살이 났다. 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박살이 난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패배한 절망적인 영들이다. 아직 한곳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판 때에 지옥과 어둠의 구덩이에 결박되게 된다.³⁵¹⁾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의 전략들을 피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편에 늘 거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다.

3)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활동함

칼빈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와 반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 하시지 않는 한 사단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극히 분명한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다.³⁵²⁾ 박형룡 박사도 “하나님의 목적의 수행에 공헌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사단이 사용 된다”고 말하였다.³⁵³⁾ 이 사실은 율기서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먼저 허락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떠한 악행도 감히 시행하지 못했다.(욥1:6,12;2:1,6) 또한 아합이 속임을 당할 때에도 사단은 스스로 거짓의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역사했으며, 그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였다.(왕상22:20-2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단이 그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350)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op. cit., p. 627.

351) Louis Berkhof,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 역, op. cit., p. 355.

35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상」, 원동연 역, op. cit., p. 212.

353)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I」, op. cit., p. 415.

방해하고 신자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면서 노력할 것이다. 사단은 본성적으로 사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향이 조금도 없고, 오로지 불순종과 반역만을 의도할 뿐이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를 잡으셔서 그를 묶어두시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의 창조주께 복종하게 되어 있게 된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³⁵⁴⁾

이상에서 사단의 정체, 그의 계략과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사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단과 마귀는 과대평가되어도 안 되고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신학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와 악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이미 극복된 존재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할 수 있는 실체로 남아 있듯이, 사단과 마귀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서 이미 극복된 죄와 욕망의 옛 세계로 돌아간다면 사단의 영향력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유혹과 도전의 권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배 아래 머무는 한 극복되고 끝장난 옛 그림자요 허세이다. 따라서 사단과 그의 부하인 마귀들이 우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올 때, 우리들은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³⁵⁵⁾

35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상」, 원동연 역, op. cit., p. 213.

355) 이 사실은 개혁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신자들은 안전감을 누리게 된다.

3. 영적 전쟁의 영역

a. 영적 전쟁터인 인간의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달라스 윌러드(Dallas Willard)는 “마음이란 전인(全人)의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³⁵⁶⁾ 김희보 교수는 “인간의 육신의 모든 기관 중에서 보이지 않는 기관인 마음만이 오직 혼의 활동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다”라고 하였다.³⁵⁷⁾ 칼빈(John Calvin)도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³⁵⁸⁾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자의 전 영혼을 부패와 불결로부터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작용인 성화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마음이 영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고,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자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도 마음을 통하여 나간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로 들어온 죄가 처음에 두드린 것은 창조 전체가 아니라, 하와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³⁵⁹⁾ 결국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인간의 마음이다.

356) Dallas Willard,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p. 49.

357) 김희보, 「구약신학논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p. 59.

35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 Translated by Ford Lew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p. 195.

359) 김남준,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지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pp. 20-24.

b. 인간의 마음 안에서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경의 중심내용은 하나님과 사단중 어느 쪽으로 마음을 드릴 것인가 하는 인간의 결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들이 자신을 경외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인간들의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 방법은 속임과 유혹이다. 사단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자신을 그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사람들을 차지하게 된다.³⁶⁰⁾ 성경적 영적 전쟁의 이미지들은 물질주의적, 이원론적, 정령 숭배적, 인도유럽적인 것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들의 신들이 더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보았지만, 구약성경의 기자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방 신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보았다.³⁶¹⁾

신약성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과 경건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예수님의 왕으로써의 사역들을 해나갔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 가운데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 죽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처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덮어두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타난다. 결국 영적 전쟁은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찰스 핫지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사단에 관해 “양심을 결박하지만, 원하지 않는 자들을 강제는 못한다”고 말하였다.³⁶²⁾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주인

360)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역, op. cit., pp. 278-281.

361) 삿 4:1-2; 6:1; 10:7; 삼상 28:17-19; 왕상 16:2-3; 왕하 17:7-23.

362) Charles Hodge, 「조직신학 1」, 김귀탁 역, op. cit., p. 788.

인 우리의 동의 없이는 우리의 삶을 차지할 수 없고 지배할 수도 없게 된다. 물론 신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없다.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 밭에 떨어졌으나 바람에 날려간 죄의 씨앗과 같게 되어 우리 삶에서 결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단 우리 마음에 떠오른 죄악 된 생각이나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빠른 속도로 우리 마음 밭에 착상하게 되며 어찌하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³⁶³⁾

그러므로 우리의 적의 최고 목표는 우리 마음속의 도덕적 주권을 빼앗는 데 있다. 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미지를 닮게 한다면 그는 진리와 사랑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우리 주님의 목표도 도덕적 주권을 차지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⁶⁴⁾

c. 마음과 성화의 작용

사도 시대 이래로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열망은 바로 성화되는 마음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고, 죄악 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섬겼던 것이다. 성화란 웨인 그루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³⁶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쿠마(Anthony A. Hoekema)는 “성화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

363) 김남준,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지킴」, op. cit., pp. 83-84.

364)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 19.

365) Wayne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op. cit., p. 395.

임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성화를 “인간의 책임 있는 참여가 수반되는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정의하여 성화에 있어 인간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³⁶⁶⁾ 존 머리(John Murray)도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중지되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엄격한 협력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우리가 일하는 관계이다”라고 인간의 참여를 설명하였다.³⁶⁷⁾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즉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을 생각하며 육신의 욕망들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³⁶⁸⁾ 성령을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작용은 구체적으로 신자의 성품 안에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려진다. 성화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사랑과 거룩한 은혜의 신령한 영향력 아래 마음을 뚫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언제든지 마음이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죄의 소원은 성큼 다가오게 된다. 신자가 가장 힘써야 할 의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결국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이다.

4. 영적 전쟁의 방법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적존재와 싸울 수 없다. 육체에 속한 기술이나 이론으로써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영적 병기나 영적인 전투 계획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의 만족은 강력한 영적

366)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p. 200.

367) Ibid., p. 192.

368)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 174.

병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강력한 병기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3-5)

윌리엄 거널(William Gurnall)은 신자가 영적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본질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은 혈과 육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죄를 가져다주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 때에 이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⁹⁾

내적 삶에 영향을 주는 사단의 계략은, 진리를 빼앗아 가고, 거짓말로 유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우리 속에서 거하여 죄로 물들게 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주의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플리슨 다음과 같은 예시와 방법을 말한다.³⁷⁰⁾

첫째, 사단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간다. 그러나 해결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³⁷¹⁾ 둘째,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을 넣고,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는 죽임이었지 귀신에게 **책입**을 묻지 않았다.³⁷²⁾ 셋째, 사단이 실제로 유다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369) William Gurnall,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서울: 예찬사), pp. 22-31.

370)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133-134.

371) 누가복음 8:12,15.

372) 요한복음 13:2, 사도행전 5:3.

하였을 때 처음에는 마귀라 불리었으며 후에는 “멸망의 자식”이라 심한 정죄를 받았다.³⁷³⁾ 넷째, 모든 인간은 사단의 지배 하에서 눈이 멀어 있지만, 해결책은 빛으로 돌아가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기업을 얻는 것이다.³⁷⁴⁾ 다섯째, 이 세상 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 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불신으로 멸망할 것이다.³⁷⁵⁾ 여섯째, 모든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 인생을 산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³⁷⁶⁾ 일곱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가 마귀의 울무에 걸리게 된다. 그들은 온유함으로 징계를 받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진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³⁷⁷⁾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닐 때 “그를 결박하고 쫓아 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만 말하였다. 또한 야고보 역시 4장 7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복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피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마귀를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결박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마 4:1-11) 단지 말씀을 통해서 매 시험 때마다 이기셨다.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제시하자 놀랍게도 사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2가지 시험을 더하고 물러간 것을 볼 수 있다.

영적 전쟁의 병기들은 신비주의적인 방책이나 기술이 아니다. 또한 귀신들을 명하여서 꾸짖는 능력도 아니다. 이것들은 복잡하거나 교묘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3-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필수품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즉

373) 요한 복음 13:27, 누가복음 22:3, 요한복음 6:70, 요한복음 17:12.

374) 사도행전 26:18.

375) 고린도후서 4:3-6.

376) 에베소서 2:2-10.

377) 디모데후서 2:25-26.

진리, 의, 믿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병기들은 우리들의 내적인 부분을 단련시키고 무장하는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³⁷⁸⁾

우리는 단지 믿음에 굳게 서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와 거룩함을 좇음으로써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병기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여기서의 싸움이 사단과 직접적인 싸움이 아닌 내적인 도덕적 결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항상 회개해야 할 우리의 도덕적 악, 우리의 불신, 교만, 정욕, 두려움과 사악함이다. 도덕적으로 귀신의 종이 된 것은 죄의 사로잡는 능력에 예속된 것이다. 성경은 자주 귀신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우리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책임에 관해 언급함이 없이 귀신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³⁷⁹⁾ 성경은 극악하고 악마 같은 것들을 쫓아내야 할 귀신들됨으로 그리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며, 기도, 사랑, 진리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입으로 사단을 압도할 만한 어떤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러한 부분으로 가득 채우고 훈련하면서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B. 영역주권사상에서 본 문화적 전쟁

영적전쟁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관점에서 놓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제창된 문화전쟁의 개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당시의 현대주의자들³⁸⁰⁾의 여러 가지 삶의

37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상」, 원동연 역, op. cit., p. 209.

379) 로마서 1장과 6장, 갈라디아서 5장을 보라.

380) 19세기 당시 기독교는 자유주의적인 “실천적”진영과 보수적 “신비주의” 또는 소위 “경건주의”의 세상 도피적 신앙의 대립으로 양극화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일사불란하게 뭉쳐있는 인본주의 자유사상의 물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카이퍼는 보았다. 더욱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팽배해 기독교가 현실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체계에 대한 이론적 공격으로부터 이에 대한 변증이 합리적이며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이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만일 명예롭게 그리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싸우려면, 원리에 원리로 맞서야 한다. 그러므로 현대주의라는 전 포괄적인 삶의 체계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며, 따라서 역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힘을 가진 삶의 체계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강력한 삶의 체계는 우리 자신이 창안하거나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취해서 응용해야한다”³⁸¹⁾

이렇게 말한 후 현대주의의 삶의 체계의 엄청난 힘의 공격에 대항하고 변증하기 위해서는 칼빈주의의 원리를 가질 때만이 굳건하게 그리고 확고히 취할 수 있는 영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일반적인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념은 칼빈주의 안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직접적 교제라는 칼빈주의의 근본적인 해석의 덕분으로 인정하였다.³⁸²⁾

칼빈주의 원리중 그가 주장하였던 것은 일반은총론이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고유한 이성을 주셨다고 본다. 택자와 유기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리한 두뇌와 판단력이 월등하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과 기술을 탁월하게 주시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은혜들을 주신 것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인류 전체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은총이라고 말했다.³⁸³⁾ 카이퍼는

상황이었다.

381) Abraham Kuyper,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20.

382) Ibid., p. 34.

38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상」, 원동연 역, op. cit., pp. 334-335.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켜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사람 안에서 죄의 활동을 억제하되 부분적으로는 그 세력을 부수심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악한 영을 길들이심으로써, 그의 나라와 가정을 교화시키심으로써 억제 하신다”고 하였다.³⁸⁴⁾

이러한 일반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상이 바로 **영역주권사상**이다. 모든 창조의 각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고유한 질서와 법칙이 있으므로 그들 상호간에 대등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³⁸⁵⁾ 그는 또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은 인류에게서 삼중적으로 연역된 지배권을 가지신다고 보았다. 그것은 첫째 국가에 나타나는 주권, 둘째, 사회에 나타나는 주권 셋째, 교회에 나타나는 주권으로 방출되는 근본주권이다.³⁸⁶⁾ 이것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주권을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에 대하여 “칼빈주의는 분명 교회 질서에서 멈추지 않았고, 삶의 체계로 확장되었으며, 교의적 형성에 그 힘을 소진하지 않았고, 인생관 및 세계관을 창출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은 인생의 모든 부문에서 인간 발전의 각 단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³⁸⁷⁾ 즉, 총체적인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³⁸⁸⁾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정치적 영역, 사회적 영역과 학문적 영역등에서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가지고 하나

384) Abraham Kuyper,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op. cit., p. 151.

385) Ibid., p. 112.

386) Ibid., p. 98.

387) Ibid., p. 208.

388)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p. 42.

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처한 위치에서의 치절한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한다. 이 둘의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일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세속화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난다. 결국 문화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전쟁은 필자가 이야기 하고 있는 영적전쟁의 한 양상이다. 결국 세계관의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다.

C. 구약의 가르침

위에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영적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구약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구약성경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무대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커튼을 열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단의 존재를 보여 주셨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무엘상 16장, 열왕기상 22장, 욥기 1, 2장과 스가랴 3장 등에서 무대 뒤편을 볼 수 있게 된다. 구약 성경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의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성장학파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의 개념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창세기 3:1-5

a. 사단의 위치

사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사단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단은 뱀, 곧 피조 된 존재로 나타나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야생 동물로 명백히 표현된다. 성경은 이교 세계관의 궁극적 이원론인 선과 악의 힘이 최고의 수준에서는 동등하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사단의 물질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창조주를 대적한 피조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창세기 3:14-15절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주함에 따라 이 주제를 더 강조한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속적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다른 피조물인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에 의해 패배당할 것이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할 때 사단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속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짜 신일뿐이다. 그는 그의 악을 지상의 무대에서 발휘하지만 지상에서 그의 일들은 파면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직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마술적 세계관에서 귀신은 독립적 존재이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악한 영은 시초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인 전능자에게 근본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b. 영적 전쟁의 본질

사단은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악하며, 악하다고 평가된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고, 지배하려 했으며, 결국 악에 굴복시켰다. 인간 삶의 핵심적 문제는 도덕적 문제로 정의된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가?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귀 문(eargate)”을 누구에게 열어야 하는가? 우리가 순종하는 피조물이 될 것인가?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될 것인가? 악한 피조물이 되고 싶은가? 선한 피조물이 되고 싶은가?

고통, 빈곤, 고난, 비탄과 죽음은 도덕적 딜레마의 결과들이며 당연한 것들이다. 죄 문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갖가지 비탄의 궁극적 원인이다. 뱀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뱀의 독아(毒牙)를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본질은 어떤 도덕적 결단을 선택하느냐 하는 주도권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⁸⁹⁾

2. 사무엘상 16:13-23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며 여호와와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능력으로 임하였다. 동시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힌다. 특별히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이나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으로 일컬어진 악한 영은 네 번이나 불리워졌다.³⁹⁰⁾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악한 영을 사용하셨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자를 보내심으로써 사울의 거역을 심판하셨으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평안을 빌도록 함으로써 다윗을 높이시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그리스도와 같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러나며 사울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⁹¹⁾

창세기 3장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악신은 여호와께 종속되어 있다. 어찌면 이 구절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인간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영을 쫓아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을 잠시 경감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과 귀신들의 기본적 관계를 보여 준 것이며, 영적 전쟁의 전통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389)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64-66.

390) 사무엘상 16:14,15,16,23.

391) 처음에 사울왕은 다윗으로 인해 매우 기뻐다.(삼상 16:21-22).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욱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울의 태도는 분노, 의심 그리고 공포로 변했다.(삼상 18:6-9), 12)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 위에 두 번이나 머물렀을 때,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동안 그를 죽이려고 했다.(삼상 18:10-11; 19:9) 사울이 분노와 의심의 귀신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화를 냈고 의심을 했다.

이 더 적절하다. 이것은 문제나 죄들에 대해 귀신론적 설명으로 표류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³⁹²⁾

3. 열왕기상 22:6-28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 싸우기 위해 연합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선지자의 확인을 구했다. 사백인의 선지자들은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면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왕은 여호와와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결국 진실한 것을 예언하도록 미가야를 설득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할 때 그는 하늘로 향해 창문을 열었다. 여호와는 집합된 영들에게 물으셨다. “누가 아합을 피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한 영이 자발적으로 사백인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 하는 영이 되겠다고 하였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는 사건을 조종하기 위하여 대화를 자청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악한 것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이것은 거짓말 하는 영이 그의 본성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왕을 죽이려고 애쓰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이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언동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이름의 거주하는 귀신을 가졌다는 뜻도 아니다. 또한 미가야에 의한 능력 대결이 거짓에 복종하는 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

392)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66-68.

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지만”(합 1:13) 영의 세계에서, 악하고 저주받을 존재들
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판의 대리자로 고용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³⁹³⁾

4. 욥기 1:6-2:10

이 본문은 인간 드라마의 무대 뒤편에서 활약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
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다. 사단은 욥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을 위해 살고, 삶
이 괴로워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려 한다. 하나
님은 처음에는 욥의 자녀들과 소유를 칠 것을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는 욥의 건강을 해치고 욥의 아내로 하여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유혹하도
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교회성장학파의 주장은 사단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고 유혹한다
는 것을 증명하려고 욥을 인용한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축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욥기 1-2장은 확실히 사단이
우리를 해 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 욥기는 축사 세계관과 방법론
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
심과 갈등 관계에 있는 동등하고 적대적인 악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이시며, 사단은 언제나 굴레에 갇혀 있는 대적자일 뿐
이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1:12)고 말씀하시
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³⁹⁴⁾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끌어
가는 질문을 하시며 사단은 그것에 설명을 해야 한다. 사단은 말해야 할 때만

393)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69-70.

394) David Atkinson, 「욥기강해」, 김진우 역, (서울: IVP, 2001), pp. 24-25.

말을 하고, 하나님의 허락 하에 행동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악이 사용된다. 사단은 욱을 충동시켜 하나님을 저주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욱되게 하고, 욱을 짐승처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행동이 엄밀히 제한되어 있다. 욱의 삶과 갈등 가운데 순전함의 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 안에서 인간 드라마는 도덕적 드라마이지 귀신의 드라마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욱의 충절은 정의의 힘을 조롱하는 정사와 권세 앞에서 과시된다. 성경은 죄를 귀신들림으로 주장하여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는다. 욱은 자기의(自己義), 교만, 실망, 분노, 자기연민, 조롱하는 말과 같은 귀신들의 집단에 의해 침입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홀로 의롭게 유혹받은 의인이 되었다.

셋째로, 영적 전쟁에 대한 욱의 방법을 주목하라. 욱은 사실상 그의 고난의 이차적 원인인 사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세 번째 원인들인 살인적 침략자, 도둑 떼, 육체에 생긴 종기, 아내와 친척들의 거부에도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에 욱은 첫 번째 원인인 하나님과 씨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욱은 자기 의를 회개했다. 욱은 솔직함, 아내와 친구들의 무지함을 꾸짖는 것, 회개와 믿음으로 현명한 영적 용사임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 본문은 어떤 유혹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³⁹⁵⁾

5. 스가랴 3장

여호수아는 경건한 대제사장이었고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의 그리스도이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있고, 사단이 그 오른

395)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70-72.

쪽에서 여호수아를 비난하려고 서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은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한 말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신자들이 사단을 책망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과 상충된다. 우리는 사단을 책망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단을 책망해 주시라고 간구드릴 수 있을 뿐이다. 몇 마디 말로서 사단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결박하여 다시는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³⁹⁶⁾

사단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죄 많고, 비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 사악한 비난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죄를 사해 주는 놀랄 만한 약속으로 사단의 입을 막았다. 사단의 악한 행동이 제한되고, 인간의 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다.³⁹⁷⁾

6. 구약의 결론

결론적으로 구약은 근본적으로 축사 세계관과는 다르게 영적 악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첫째, 여호와께 초점을 철저히 맞춘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대 가운데 계신다. 그는 그의 뜻대로 사람과 영들의 모든 임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인간은 항상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무대 중앙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마술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약은 인간의 악과 명예와 어둠의 책임을 귀신들에게 지우지 않는다.

396) John F. Macarthur,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김상덕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pp. 238-239.

397)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 72.

셋째, 구약은 사단과 귀신들의 활동을 인식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귀신은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창조주의 힘은 사단의 피조물적 행동과 악한 영에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다. 이것은 귀신이 독립적 존재이며 선과 악의 힘이 평등하게 전쟁 안에 존재한다는 주변의 마술적 세계관과 확실히 대조를 이룬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영적 전쟁의 방법, 사역의 방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다양한 악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 놀랄 만한 적용을 하게 한다. 이 시대는 마술에 대한 참여가 보편화되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중독이 넘치며, 기괴한 악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신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했으며 여호와 안에서 안식처를 얻게 했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게 했다. 축사는 결코 전쟁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축사를 지지하는 교회성장학파가 펼치는 귀신론적 설명과 축사 해결책은 사실상 구약의 시각보다는 사교 마술적 세계관에 더 가깝다.³⁹⁸⁾

D. 신약의 가르침

다음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영적전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수많은 예수님의 축사사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단순히 축사하신 것이 아니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들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게 하던 소년에게 평안을 되찾게 해주셨다. 끊임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미친 남자는 앉아서 옷을 입고 올바른 정신으로 있게 되었다. 꼬부라진 여인도 똑바로 서게 되었다. 사나운 귀신들린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앞 못 보고 듣지 못하던 자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398) Ibid., pp. 75-77.

예수님 자신이 악한 영이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자이며, 주님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교회성장학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귀신을 쫓았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것을 금지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는 성경구절을 찾아 볼 수 없다. 아래에서는 신약성경³⁹⁹⁾에 나타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마가복음 16:17-18

마가복음 16:17-18은 축사사역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장 유력하게 지지하는 구절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나 이 구절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표적들이 사도들에게 따랐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6:17은 사도들이 한 대로 우리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건전한 성경 해석은 확실치 않는 구절에 주요한 가르침을 세우기 보다는 불확실한 구절을 확실한 구절에 비추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⁴⁰⁰⁾

마가복음 16:17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고대 헬

399) 신약성경의 총 5개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한다. 이들 본문은 막 16:17-18; 행 8:5-24; 고후 12:1-9; 뱀전 5:5-11; 약 3:13-4:12 이다.

400) Ibid., pp. 122-123.

라 사본에는 16:9-20까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이 성경의 타당한 부분인지 아닌지가 의심을 받는다. 아마도 이 구절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성경 사본은 이 부분을 괄호에 넣거나 각주로 처리했고, 어떤 사본은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⁴⁰¹⁾ 그러나 이 구절들이 원본의 충실한 반영이며, 영감된 사본이라고 간주하고 논의를 해보아도 이와 같은 약속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

참으로 사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경적으로도 사도 시대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표적들이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성장학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표적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영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성경이해에서 온 것이다. 위 본문의 다섯 가지 표적들(예수이름으로 축사, 새방언 말함, 뱀을 집음, 독을 먹어도 해 받지 않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함)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다. 그것들은 한 묶음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 목적은 복음의 메시지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인증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사도행전 8:5-24

티모디 워너는 “주술적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능력이 주어지도록 귀신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귀신들이 그 물건에 깃들게 된다”고 말한다.⁴⁰²⁾ 크래프트도 “어떤 건물은 악령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방마다 다니면서 그 영들을 쫓아내므로 악의 세력을 분쇄하

401) Donald English, 「마가복음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4), p. 325-326.

402) Timothy M. Warner, *Spiritual Warfare: Victory Over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Wheaton: Crossway Books, 1991), p. 93.

고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도록 불러와야 한다”고 말했다.⁴⁰³⁾

이들의 주장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 조상의 죄, 조상의 마술적 행위, 성적 또는 사단적 의식,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나 물건, 가공품 등이 사단이 들어 올 수 있는 귀신의 틈이 된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귀신이 거주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그것을 밝히는데 주력한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이다. 즉 마술 행위는 귀신들이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관점과 성화에 축사방법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이 본문은 가장 높은 직위의 마술 실행자로서 놀라운 힘을 발휘한 시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었다.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행할 때 시몬은 놀라운 전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받기를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시몬은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기 원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까지 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술에 참여했던 시몬에 대해서 폴리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시몬은 아직도 마술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그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영적 능력에 대한 욕심, 지배적 능력에 대한 욕심을 표현했다. 시몬은 믿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과거에 마술을 행한 죄의 유형은 그를 멍에로 얹매었다.

둘째, 사도행전 8장은 전형적인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묘사한다. 빌립은 놀랄만한 소동을 일으키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행했다.(행 8:6-7,13) 마술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온 어떤 회심자가 자신이 과거 마술사로서 행하였던 정규적인 축사를 해야 하는 필요를 느낀다면, 우리는 마술이 귀신을 거주시킨다는 극적인 관점을 변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깊이 내재하는 능력과 접하기 위해 인간 의지를 능가하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사역

403) Charles H. Kraft, *Defeating Dark Angel: Breaking Demonic Oppression in the Believer's Life*, op. cit., p. 198.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시몬이 능력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해 보라. 베드로는 시몬을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써 말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행 8:21-22). 시몬의 마음은 바르지 못했다. 그는 사악했으며,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했다. 베드로는 죄와 저주의 위협에 굴복하는 극단적인 명예를 묘사한다. 죄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 거주하는 침입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⁴⁰⁴⁾

마술에 참여한 것이 귀신을 거주하게 하여 축사를 필요로 한다는 가정을 이 본문은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상 1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마술, 귀신숭배와 우상숭배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닌가? 첫 번째 이방인 회심 자들은 사단의 분명한 지배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고 축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 되었다.⁴⁰⁵⁾

물론 마술에 참여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주하는 악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악한 행동, 거짓 믿음,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는 동기, 혼돈 된 정서 또는 이상한 환각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더 강할 것이다. 사단은 그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심자들에게 유혹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주의자들은 축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말씀, 회개, 믿음, 예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행동의 적절한 변화와 회개가 필요하다.

3. 고린도후서 12:1-9

서신서는 도덕적 악과의 영적 전쟁, 즉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힘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신서 안에도 사단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권세가

404)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128-129.

405) 사도행전 26:18.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고통, 고문과 죽음의 원인으로서의 상황적악을 사단과 귀신으로 연관짓기 때문이다.⁴⁰⁶⁾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나타난 내용들은 바울이 사단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가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갈라디아서 4:13-15에서 밝힌 문제일 것이다.⁴⁰⁷⁾ 사단의 사자는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 고통이 어떻게 도덕적 악과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도덕적 악을 짓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사단의 사자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은 죄가 아니라 고통, 연약함, 학대, 고민과 어려움의 기록을 적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1-9절을 통하여 개인적이고 은밀한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내적 유혹, 바울 자신의 개인적 육체적 고난, 구원을 위한 세 번의 기도, 재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등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일으키는 “사단의 사자”를 축사의 방법으로 고통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 들였다.⁴⁰⁸⁾ 사단의 공격은 바울을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이게 만들었다. 주권적인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를 사용하여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다.⁴⁰⁹⁾ 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 이 본문에서도 상황적인 악을 축사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06) 히브리서 2:14에서는 귀신을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인간들을 궁극적인 상황적 악인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단의 능력은 사실상 무너져 버렸다.

407)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보거나 어떤 이는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의 눈을 빼어 자신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408) John F. Macarthur, *How to Meet the Enemy*, (Colorado Springs: NexGen, 1995), p. 30.

409) Paul Barnett, 「고린도후서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2), pp. 243-249.

4. 베드로전서 5:5-11

베드로전서는 압제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는 진리와 사랑에 대항하는 거짓말과 정욕에 대하여 전쟁함으로써 인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설명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이니라”라고 권면한다.

베드로전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구원의 본질을 말하면서 복음의 축복 속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2장에서 신자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윤리적 의무를 가져야 하며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2장 11절에서 3장 12절에서는 불신자들 가운데서의 삶, 국가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안에서의 삶을 설명한다. 3장 13절에서 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다. 고된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이겨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고난의 박해라는 무서운 체험 뒤에 서 있는 영적 원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맺고 있다.⁴¹⁰⁾

박해를 통해 영적 원수인 사단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사단은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위력이 있는 자신의 권세를 통해 성도들을 두렵게 만든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은 사단의 이러한 공격 가운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준다. 존 맥아더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우

410) Donald Guthrie, 「신약개론」, 나용화,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p. 801-805.

리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비책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단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것이 었다.⁴¹¹⁾ 폴리슨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믿음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였다.⁴¹²⁾

믿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6절) 믿음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배려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7절) 믿음은 사자가 덮칠 때 정신 차리고 볼 수 있게 해준다.(8절) 믿음은 박해에 놀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은혜에 견고하게 소망을 두면서 대적하는 것이다.(10절) 믿음은 그의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자에게 경배하는 것이다.(11절)

사단이 정욕, 사악함, 교활함, 보복, 두려움, 무절제, 불안과 교만등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올 때, 베드로전서는 필자가 주장하는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의존과 실천적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라고 가르쳤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사단의 사악함과 주권을 가지려는 시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야고보서 3:13-4:12

야고보는 본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귀신과 특별히 연관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에 우리의 죄와 귀신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의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귀신은 설득과 위협할 수 있는 틈을 가지게 된다. 사단이 우리의 도덕적 우매함을 이용하고 우리의 탐욕에 호소할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야고보서 1:14-15절은 확실히 기본적인 문제를

411) John F. Macarthur,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김상덕 역, op. cit., p. 250.

412)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 149.

펼치고 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은 우리의 기본적인 죄들과 자기기만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 가면서 야고보는 우리의 교만하고 우매한 마음에서 나온 “지혜”는 사실상 마귀에게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한다.(3:15) 마지막으로 4장 7절에서 야고보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전통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호소한다.(1:5) 하나님의 선물은 순종하고 양순하고 합리적이며 자비롭고 흔들리지 않고 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3:17,18) 계속해서 더럽고 마귀 적이며 비참하게 된 우매함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⁴¹³⁾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다. 칼빈도 그의 야고보서 주석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는 약속이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제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단은 도망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⁴¹⁴⁾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 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은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단 제압 법은 이것뿐이다. 귀신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을 내어 쫓거나 혹은 그들을 결박하라고 신자들에게 권하는 구절은 전혀 없다.⁴¹⁵⁾

413) Ibid., pp. 150-152.

414) John Calvin, 「성경주석 4」, 존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3), p. 350.

415) John F. Macarthur,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김상덕 역, op. cit., p. 250.

6. 신약의 결론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 안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를 받은 빌립뿐이다. 그들에게서 귀신 축사를 받은 이들은 그나마 모두 불신자들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대체로 그 불신자들의 자의적인 뜻과는 별도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과 열 두 사도들은 이적을 행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적, 혹은 사도적 권한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보이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경은 우리의 죄를 다루는 전쟁에 축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확실히 거부한다.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구약과 서신서 모두와 일치한다. 영적 전쟁이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은 항상 전통적 방법으로 행해진다. 반대로 축사 지지자는 축사의 목적들을 성경의 증거 없이 극단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사 치유를 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한 적이 없으며, 축사 치유를 오늘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만큼 축사 치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도 않다.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받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축사 치유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침묵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축사를 통해서 치유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단을 요구한다.

만약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한다면 많은 혼돈이 사라질 것이다. “귀신들림”으로 진단하고 축사를 잘못 사용한 대다수의 사례들은 그것들이 진정 무엇이었는가를 밝히 알 수 있게 한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말씀에 대한 지성과 열정을 갖고 잘 무장할 것이다.⁴¹⁶⁾

치유나 축사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초자연적 치유

416) David Powlison,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op. cit., pp. 125-126.

나 축사 등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A.D 55년의 고린도전서까지는 기적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에 기록된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이 고쳐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A.D 60년)⁴¹⁷⁾ 바울은 또한 밀레도에서 병든 드로비모(A.D. 64년)⁴¹⁸⁾를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간 사건과 디모데(A.D.62-63년)⁴¹⁹⁾의 위장병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고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계시록의 교회들에서는 기적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을 가진 보증된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이상을 통해서 성경적인 영적전쟁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 대상, 영역과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전쟁의 이해는 교회성장학파에서 바라본 이해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가 바라보았던 잘못된 영적 전쟁의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진영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VI. 교회성장학파 영적 전쟁이해가 주는 개혁주의

진영내의 영향

지금까지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신학의 공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신학이 워버가 지적하듯이 매우 폐쇄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된 중간영역에 대한 관심과 영적 전쟁에 대한 현실 인식확장,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성령론과

417) 빌립보서 2:27.

418) 디모데후서 4:20.

419) 디모데전서 5:23.

선교의 상호 관계성의 재고와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의 재고 기류를 일으킨 점등은 그 공헌이라고 할 만하다.

A. 중간영역의 인식과 영적 전쟁에 대한 현실 인식확장

지난 250년간 서구의 이성주의 삶은 하나님과 귀신, 선과 악을 비신화하였다. 또한 현대 과학주의는 세계를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로 이등분하였다. 자연 세계는 주로 현세적 경험 영역으로 과학적 사유와 분석 대상이 되고, 초자연 세계는 하나님, 천사, 사단, 귀신 등 내세에 관한 초경험 영역으로 종교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세계로 나누고 있다. 창조주는 전적 타자로서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있고 지금도 우주의 질서 역사의 경륜, 인간의 실존 등 피조 세계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반면 피조물은 인간, 동물, 식물, 해, 달, 별 그리고 물질 외에도 천사, 귀신 등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으로써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은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세계로 구분하여야 한다.⁴²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는 결국 세계관의 차이이다. 서구 목회자뿐만 아니라 현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대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경험적 세계를 다루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유신론적 관점에서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점은 이러한 이층적 세계관에서 놓치고 있었던 중간영역의 문제였다. 중간영역이란 초자연적이며 또한 이 세상적인 존재들과 힘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서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이 세상 영들이나, 지역 조상들이나 지역 귀신들 혹은 동물의 혼들에게 거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이

420) 이장호, “인도네시아 자바 무슬림의 민간신앙연구”, 『선교와 신학』 11집, pp. 159-160.

교육을 받아왔다고 히버트는 말한다. 히버트는 이런 것들을 요정이나 도깨비 또는 신화적인 영역에 속한 존재들이었지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면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다.⁴²¹⁾

히버트의 고백은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고백이 될 것이다. 교회 성장학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배제된 중간영역이 분명히 존재 하고 있다는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 비록 그 중간영역의 사실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않게 발전시켜 나감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 안에 중간영역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유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두 번째로는 개혁주의 안에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자유주의신학의 도전에 대하여 끊임없이 변증해야 했으며, 복음주의 안에 일고 있는 오순절신학의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성경적인 진리들을 증거 하기에 바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신학적 체계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었고, 목회현장의 교회와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교회성장학과는 현대 세속 시대의 영적 황무지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였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영적 장소임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과 영광을 위한 싸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개념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순전히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일축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도전을 하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잊혀진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재고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했다.

421) Paul G.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역, op. cit., p. 259.

B.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성령론과 선교의 상호 관계성의 재고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의 이해는 선교에 있어서 성령과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다. 교회성장학파의 성령론은 오순절 성령론의 배경 안에서 일어났다. 오순절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은 선교지와 세계 곳곳의 교회들을 부흥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복음 전파의 가속화로 급속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20세기 전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가 쇠퇴하게 되고 복음주의를 부흥하게 하는 영향을 미쳤다. 복음의 활기찬 전파는 복음에 대한 유럽과 북미에서 새로운 기류가 일어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론의 열매는 선교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사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안에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러한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신학적으로 소홀히 된 것이 사실이다. 헨드리쿠스 벌코프(Hendrikus Berkhof)는 선교에 있어 성령의 역할이 신학적으로 소홀히 연구되어져 왔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20:21-22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주님이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기 전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바로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서 선교의 영으로서의 성령과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임을 말하였다.⁴²²⁾ 서철원 교수도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외에 다른 길로는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⁴²³⁾고 말하였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 선포와 사람들의 예수 믿음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또 선포가 이루어졌다 할지

422) Hendrikus Berkh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pp. 30-34.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85.에서 재인용.

423)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 176.

라도 효과는 없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선교지에서의 구원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선교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와 전도에 많은 힘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후 그들에게 영적 은사들을 직분과 더불어 수여하셨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교회는 선교를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목회적 장식물로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선교의 영으로써의 성령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개혁주의교회 안에 선교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꾀하고 있던 안이한 기존 교회들에게, 교회성장학과와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의⁴²⁴⁾ 역동적인 복음전파는, 좋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신학이 아무리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 건전함이 하나님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건전하지 못한 신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자명하다.

C.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의 재고 기류

전통적인 개혁 신학에서는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한 특별한 경

424) 예수전도단(YWAM)과 인터콥(INTERCP)이다. 특히 인터콥은 10/40창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는 미전도 종족집단의 개척선교를 목적으로 1983년에 한국에서 설립되었다. 이 단체를 지도하고 있는 최바울은 영적도해 개념의 최선봉에 서있다. 인터콥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소개할 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 선교한국(MK),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의 정회원 단체로서 국내외의 복음적인 모든 교단 및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의 선교단체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콥은 2006년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축제행사를 강행하여 언론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아프가니스탄 현지 선교사들이 위협을 느끼고 피신하게 하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복음전파의 역동성은 본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우의 기적을 인정하는 정도였다.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은사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권위를 부여하여 임명하신 대리인들로서의 사도들이 지닌 신임장의 일부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같은 기능은 그 은사들을 분명히 사도들의 교회에 한정시켰으며, 당연히 사도들의 교회와 함께 사라졌다고 말한다.⁴²⁵⁾ 게핀(Richard B. Gaffin)은 워필드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말씀 중심의 은사들과 행위 중심의 은사들로 나누어 교회의 직분과 연관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였다.⁴²⁶⁾ 서철원 교수도 신유 및 귀신 추방 등 은사의 소유자로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선교지역에서 복음이 처음 증거 될 때 치병의 기적들이 발생한 것은 신유의 은사 자에 의한 치병 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다.⁴²⁷⁾

그러나 개혁주의 진영 내에 위의 내용을 긍정하면서도 성령의 외적 은사가 교회론적 관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Outpouring)이 단회적이지만 그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성령이 오순절 날과는 다르게 약하지만 부어주심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⁴²⁸⁾ 그는 이것을 개인의 중생과 성화에 연결시킬 뿐 아니라 교회에 주신 영적 은사들에게도 연관지어 은사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정상적 은사들과 비정상 은사들으로써 오늘날 교회에서는 비정상 은사들이 대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⁴²⁹⁾ 김성태 교수는 카이퍼의 주장과 관련하여 평가하기를 워필드는 외적은사들의 중단(Cessation)을 말하였던 반면 카이퍼는 비활동(Inactive)을 주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⁴³⁰⁾

425) Benjamin B. Warfield, 「기독교 기적론」,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 1993), p. 12.

426) Richard B. Gaffin, *Perspective on Pentecost*,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pp. 51-54.

427) 서철원, 「성령신학」, op. cit., pp. 220-221.

428) Abraham Kuyper,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41), pp. 125-126.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74.에서 재인용.

429) Ibid., pp. 184-189.

패커(J. I. Packer)도 신약성경의 방언, 통역, 치유, 이적의 은사가 회복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성령이 주신 예언도 성경 시대에는 새로운 계시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단지 이미 계시된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교회와 관련하여 이러한 능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두에게 얼마씩은 있는 일반적인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 은사운동의 강조는 옳다고 말하였다.⁴³¹⁾

이 밖에도 몽고메리 보이스(J. Montgomery Boice)와 데이비드 웰즈(David F. Wells)도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령의 외적 은사는 평범하게 일어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에 적대적인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성령의 외적 은사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⁴³²⁾ 이러한 성령의 외적 은사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또한 평범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외적 은사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신학적 전제는 성령 우상주의, 기복신학, 번영신학, 신비주의적 체험신앙의 올무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주의할 것을 말하였다.

개혁주의 진영 안에 이러한 주장들이 대두 되게 되었던 배경은 역시 구오순절 신학운동, 은사주의 운동과 제3의 물결운동(교회성장학과)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만약 교회성장학파가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강조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전통적인 성령론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논란이 계속된다는 의미는 성령론이 아직도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몬타니즘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촉진 시킨 것처럼, 개혁교회는 교회성장학파의 새로운 운동을 성령론에 대한 바른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생동적인 성령사역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430)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75.

431) J. I. Packer, 「성령을 아는 지식」,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2), pp. 323-324.

432)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op. cit., p. 176.

의 말씀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피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래서 경험주의 신학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게 전해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A. 요약

이상으로 교회성장학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해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성경적인 영적 전쟁의 개념, 대상, 영역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장에서 밝힌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서론으로 연구 동기, 연구 목적, 연구범위, 연구 방법과 용어 정의를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 성장학파의 생성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내용들을 살폈다.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안에 세계 선교 대학원 및 교회 성장 연구소를 신설하여 초대학장으로 섬겼던 맥가브란은 그의 제자 피터 와그너(C. P. Wagner)와 그의 동료들인 알란 티페트(A. Tippett),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 아더 글라서(Arthur Glasser), 랄프 윈터(Ralph Winter)등과 함께 교회 성장 사상을 확산시켜 나갔다.

교회성장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전쟁의 개념은 피터 와그너가 히버트의 중간영역 이론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체계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중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적 사단과 그 쫓개들인 악마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의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회 성장학파의 영적 전쟁 개념이 가진 신학적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필자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둘째, 지역 귀신의 존재(Territorial Spirits), 셋째,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 넷째,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 다섯째, 능력대결(Power Encounter)으로써 이들 신학사상들을 관련 학자들의 서적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개념들을 통해 교회성장학파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 내야만이 하나님나라의 확장인 선교와 치유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제III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 영적 전쟁이해의 생성배경에 대해서 살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서구 사상은 역사적배경의 이성중심의 철학의 영향인 합리주의(합리주의신학)와 감정중심의 철학의 영향인 경건주의, 낭만주의, 초월주의, 실존주의였다. 교회성장학파는 이성중심의 철학인 합리주의의 사상과 신학에 반동하였으며, 감정중심의 철학사상인 경건, 낭만, 초월, 실존주의의 영향속에서 자신들의 신학을 전개하였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학적 배경은 오순절 신학이었다. 와그너는 자신이 주장하는 운동이 제3의 물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순절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최초의 신비운동인 몬타니즘, 오순절운동(제1의 물결), 은사운동(제2의 물결)의 생성배경과 그들의 신학을 소개한 후 교회성장학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제시하였다.

제IV장에서는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인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존 Wimber(John Wimber)의 이론적 배경, 성경적 근거, 영적 전쟁의 방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 이해 역시 성경보다는 체험에 근거한 신학을 구성하였다. 그들이 주장했던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re), 지역 귀신 존재(Territorial Spirits),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와 능력대결(Power Encounter) 등의 개념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인도-유럽세계관과 마술적 세계관의 혼합적인 세계관에 가까웠다. 성경보다는 체험에 근거한 그들의 신학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소실시키고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성경66권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계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여 기독교 중심 진리를 뒤 흔드는 큰 오류를 범하였다. 필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교정하였다.

제V장에서는 개혁주의 관점의 영적 전쟁이란 에베소서 6:10-20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열렬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임을 밝혔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으로만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이며 그 죄를 부추기는 사단을 경계해야 함을 주장한다. 영적 전쟁의 영역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들이 자신을 경외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시듯, 사단도 인간들의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 방법은 속임과 유혹이다. 이것을 통하여 사단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자신을 그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사람들을 차지하게 된다. 필자는 신구약성경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증명하였으며, 개혁주의 관점의 영적 전쟁이 성경적인 영적 전쟁임을 제시하였다.

제VI장에서는 교회성장학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해가 개혁주의 진영 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된 ‘중간영역’이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신학자, 선교사 및 목회자들에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의 중간영역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둘째로, 개혁주의 안에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상황에서, 교회성장학파는 현대의 세속적인 시대의 영적 황무지를 인식하도록 도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영적 장소임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과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로,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쟁의 이해는 선교에 있어서 성령과의 상호 관계성에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다. 성령론의 열매는 선교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학적인 각성은 교회성장학파에 의해 다시 한 번 각성케 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성장학파는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의 재고 기류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 성령의 은사인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권위를 부여하여 임명하신 표시라고 보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사 수여는 멈추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Outpouring)이 단회적이지만 그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성령이 오순절 날과는 다르게 약하지만 부어주심(Outpouring)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몽고메리 보이스(J. Montgomery Boice)와 데이비드 웰즈(David F. Wells)도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부인해서는 안 되나, 성령의 외적 은사가 평범하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에 적대적인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사상들이 교회성장학파의 영적전쟁의 이해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었다.

B. 평가

교회성장학파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배경과 세계관, 성경적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은 본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오류들을 요약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성장학파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서양철학사상들과 오순절

신학적 내용들이었다. 그들은 서구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합리적 이성주의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동시에 감성중심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독교를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으로 선회시켰다.

둘째, 교회성장학파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동일시하였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악령의 세계와 사단의 세력들을 지금도 꺾으시고 이기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과 구약시대에 뿐 아니라 교회시대인 현재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결 구도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삶을 제시하고 있고, 최종적 영광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의 힘겨루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드러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섬김과 순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난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교회성장학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했던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지역 귀신 존재(Territorial Spirits),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 가계에 흐르는 저주(The Generational Curse)와 능력대결(Power Encounter)은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였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도출하거나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탁월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들을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해석하는 개혁주의 방법은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논리적인 문맥을 통한 해석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무시한 채 그들은 경험에 근거한 내용들을 성경에 대입시키는 실용주의적 해석방법을 취했다.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은 결코 정당한 신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교회성장학파의 세계관은 인도-유럽 세계관과 마술적 세계관을 절충한 것이었다. 인도유럽 세계관에 중심적인 것은 우주 안에서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신화이다. 인도 유럽계 인종들이 아시아 내륙에서 유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아시아로 퍼지면서 이 신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벨론과 수메르, 가나안과 그리스 그리고 인도와 독일 종교들의 기초가 되었다. 교회성장학파가 이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대부분은 마치 사단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람을 침범치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다. 오직 허용적으로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있을 뿐이지, 사단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회성장학파의 세계관 속에는 이러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가졌던 관점들은 참으로 우려할 만 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대등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불충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회성장학파의 세계관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술적 세계관문제다. 마술의 특징 중 하나는 공식화된 접근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기도하였고 일정한 방식으로 구하였다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이 말을 무조건 반복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술을 위한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뜻하는 바를 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교회성장학파의 사상에는 마술적인 세계관이 개입되어 있었다.

다섯째, 교회성장학파는 지나친 체험중심의 신학을 전개하였다. 물론 체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체험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였듯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한 체험은 신비주의에 가깝다. 신비주의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영적 실재를 인식하려는 신앙 체계를 말한다. 그것은 느낌이나 직관 또는 다른 내적인 감각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자료들은 항상 무시해 버리고 도리어 내적인 요소에 그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일시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욱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직관이 이성을 억누르고, 내적인 지각이 외적인 실재를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성장학파는 지나친 체험의 강조로 인해 신비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

여섯째, 인간의 책임 회피문제다. 교회성장학파는 사단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제1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의 근원은 사단을 제압하거나 쫓거나 묶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지역귀신, 악한 영, 강한 자들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책임은 뒤로한 채 전면의 사단의 행동만을 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연히 인간의 책임은 지나치게 약화되어 버렸다.

일곱째, 교회성장학파는 성경 66권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참 교회는 항상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주셨고 성경66권을 통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실수나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다. 성경에 어떤 것을 더하려는 시도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이단들의 특징이었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특징은 아니었다.

C. 제언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의 개념은 교회성장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이해와 다르다. 영적 전쟁의 개념, 대상, 영역과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이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의 이해를 제언함으로써 한국과 세계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바른 개념을 회복하기를 돕고자 한다.

첫째, 성경은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내뱉는 말로 결박할 수 있는 사단과의 신비로운 전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적 전쟁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비밀스러운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또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기” 위해 신비한 비결을 배울 필요가 없다.

영적 전쟁은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으로 향하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돌이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믿음,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내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거짓의 굴레에 매이게 한다. 이때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강력한 힘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한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열렬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둘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으로만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이며 그 죄를 부추기는 사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신자들은 죄와 싸워야 한다.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

는 시험이 사단의 역사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존재는 사단이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 한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요 8:44)라고 했고, “처음부터 범죄한자”(요일 3:8)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시험하였듯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온갖 간교한 술책을 다 사용한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과 우리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력에 의하여만 결정을 내리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셋째, 영적 전쟁의 영역은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들이 자신을 경외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인간들의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 방법은 속임과 유혹이다.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일이 인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이다. 성령을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작용은 구체적으로 신자의 성품 안에서 나타난다. 성화는 끊임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사랑, 거룩한 은혜의 신령한 영향력 아래 마음을 돕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언제든지 마음이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죄의 소원은 성큼 다가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가 가장 힘써야 할 의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이다.

넷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은 영적 전쟁에 관한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사단은 내적 삶에 영향을 주고 노예화하여 진리를 빼앗아 간다. 거짓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의 방법이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우리 속에서 거하여 죄로 물들게 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주의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영적 전쟁의 병기들은 신비주의적인 방책이나 기술이 아니다. 또한 귀신들을 명하여서 꾸짖는 능력도

아니다. 이것들은 복잡하거나 교묘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의 방법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다. 다섯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하여 예수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병기들은 우리들의 내적인 부분을 단련시키고 무장하는데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싸움이다.

성령의 능력아래 마술적 세계관과 이교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덮여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능력을 앞세워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들이 출판해온 서적들은 교회성장학과에서 주장하는 영적 전쟁의 개념이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 이성론자 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여 그 시대에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그 내용들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어떤 모습이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권성수. 「요한계시록」. 서울: 도서출판햇불, 1999.
- 김남준. 「거룩한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지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_____. 「죄와 은혜의 지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_____. 「현대 선교학 총론」. 서울: 이레서원, 2003.
- 김희보. 「구약신학논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문석호. 「개혁주의관점에서 보는 현대신학의 이해」. 서울: 솔로몬, 2000.
-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2002.
-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박형용. 「복음비평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서철원. 「성령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5.
- 이대환. 「능력신학을 재고하라」. 서울: 샘인쇄, 1997.
- 이운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9.
- 이재범.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6.
-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 정홍호. 「가계저주론. 그 실체를 밝힌다」. 서울: 예영출판사, 2003.
- 조정옥.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서울: 개혁주의 신행 협회, 1996.
-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서울: 예수전도단, 1999.

2. 영서

- Berkhof, Hendrikus.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 Burgess, Stanley M. & McGee, Gary B.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Grand Rapid: Zondervan, 1988.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 Carson, D. A. "The Purpose of Signs and Wonders In the New Testament". in *Power Religion*. Vereeniging: Christian Art Publishers, 1992.
- Dart, John. *Evangelical Charismatics Prepare for Spiritual Warfare*. Los Angeles Times. 17 February 1990.
- Dawson, John. *Foreword. In Engaging the Enemy: How to Fight and Defeat Territorial Spirits*.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1.
- _____. *Taking Our Cities for God: How to Break Spiritual Strongholds*. Lake Mary: Creation House, 1989.
- Edwards, Jonathan. *Religious Affections*. ed. John E. Smith.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Gaffin, Richard B. *Perspective on Pentecost*. Phillipsbin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 Glasser, Arthur. *Kingdom and Mission:New Testament Section*.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8.
- Hiebert, Paul G. "The Flaw of the Excluded Middle" in *Missi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l. 10. No 1. January. 1982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 Jacobs, Cindy. *"Dealing with Strongholds" In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California: Regal Books, 1993.
- Jackson, Bill. *The Quest for the Radical Middle*. South Africa: Vineyard International Publishing, 1999.
- Kuyper, Abraham.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41.
- Kraft, Charles H. *Christianity with Power*. Ann Arbor. Mich: Servant Publications, 1989.
- _____. *Defeating Dark Angel: Breaking Demonic Oppression in the Believer's Life*. Ann Arbor. Mich: Servant Publications, 1992.
- Ladd, Georg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 _____.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 MacArthur, John F. *How to Meet the Enemy*. Colorado Springs: NexGen, 1995.
- McGavran, D. A. & Arn, Winfield. *How to Grow a Church*. Grandale: Regal Books, 1973.
- _____. *Ten Steps to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 & Row, 1977.
- McGavran, D. A. *How Churches Grow*.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59.

- _____. *The Bridge of God*.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5.
- _____.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70.
- Mallone, George. *Those Controversial Gifts Downers Grove, IL* : Inter Varsity Press, 1983.
- Murray, John. *"Nature of Sin" in Collected Writing of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6.
- Owen, John. *The Work of John Owen*. Edited by William H. Gool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Third printing, 1983.
- Otis, George. Jr. *The Last of Giant : Lifting the Veil on Islam and the End Times*. Grand Rapids: Chosen Books, 1991.
- Rheenen, Cailyn Van. *Communcating Christ in Animistic Context*. Grand Rapids: Baker, 1991.
- Sjoberg, Kjell. *"Spiritual Mapping for Prophetic Prayer Actions" In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3.
- Torrey, Reuben A. *The Person &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1910.
- Tippet, Alan R. *Introduction to Missiolog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7.
- _____. *Verdict Theology in Missionary Theory*. Lincoln: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1966.
- Wagner, C Peter.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London: MaRC Europe and the British Church Growth Association, 1986.

- _____. *Your Church Can Be Healthy*. Nashville: Abingdon, 1979.
- _____. *Your Church Can Grow*. Grandale: Regal Books, 1976.
- _____. "A Third Wave?" *Pastoral Renewal*. July–August, 1983.
- _____.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n Breaking Stronghold in Your City: How to Use Spiritual Mapping to Make Your Prayers More Strategic, Effective and Targeted*.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3.
- _____.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New York: Harper & Row, 1981.
- _____.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Ventura, CA: Regal Books, 1989.
- _____. *The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Ann Arbor: Servant Publications, 1988.
- Warner, Timothy M. *Spiritual Warfare: Victory Over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Wheaton: Crossway Books, 1991.
- Wimber John, & Springer, Kevin. *Power Points*. Harper San Francisco: A Divisions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3.
- Wimber, John. *Power Points*. San Francisco: Harper, 1991.
- Webster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2nd ed.. 1980.
- Young, Edward J. *The Prophecy of Daniel: A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49.

3. 번역서

- Archer, Gleason L. 「구약총론」. 김정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Atkinson, David. 「욥기강해」. 김진우 역. 서울: IVP, 2001.
- Barnett, Paul. 「고린도후서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2.
- Bavinck, Herman. 「개혁주의 교의학 1」. 김영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 Berkhof, Louis.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Brown, Colin. 「철학과 기독교 신앙」. 문석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Brown, Rebekah. & Yoder, Daniel. 「뜻 모르게 당하는 고통 풀리지 않은 저주 때문이다」. 서울: 나침반, 1998.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상」. 원동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_____. 「성경주석: 다니엘 II」.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 _____. 「성경주석 4」.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 English, Donald. 「마가복음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4.
- Grenz, Stanley J. & Olson, Roger E.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서울: IVP, 2003.
- Grudem, Wayne.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은성, 2003.
- Gurnall, William.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서울: 예찬사,
- Guthrie, Donald. 「신약개론」. 나용화,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Hickey, Marilyn.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최기운 역. 서울: 베

- 다니, 1997.
- _____.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8.
- Hiebert, Paul G.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7.
- Hodge, Charles. 「조직신학 1」. 김귀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Horton, Michael S.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김영재 역. 서울: 나침반, 2001.
- Keil, C. F. & Delitzsch, F. 「성경주석 23:다니엘」. 송종섭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2000.
- Kraft, Charles H. 「능력그리스도교」.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나단, 1992.
- _____.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윤수인 역. 서울: 은성, 1995.
- Kuyper, Abraham.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Laad, G. E.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 Lea, Larry.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무기」. 김양배 역. 서울: 도서출판 예인, 1993.
- Lloyd-Jones, D. M. 「영적투쟁」.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MacArthur, John F.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김상덕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 _____. 「은사 1」. 설영환 역. 서울: 생명의 샘, 2001.
- McGavran, D. A. & Hunter, G. G. 「교회 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 Packer, J. I. 「성령을 아는 지식」.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2.

- Poythress, Vern S.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2.
- Prince, Derek. 「축복이나 저주나 당신이 선택하라」. 주혜미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 Ridderbos, Herman.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 Rommen, Edward. 「영적능력과 선교」. 정홍호 역. 서울: 목양, 1997.
- Sire, James W.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서울: IVP, 1995.
- Stott, John R. 「성령세례와 충만」. 김현희 역. 서울: IVP, 2003.
- Taylor, William D.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김동화.문상철.이현모.최형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Wagner, C. Peter. 「교회성장학개론」. 이재범 역. 서울: 솔로몬, 1987.
- _____.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서울 : 서로사랑, 2000.
- _____.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서울 : 임마누엘, 1987.
- _____.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_____. 「영적원수를 대적하라」. 명성훈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 _____.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하늘기획, 2000.
- _____.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 제4판 상」.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역. 서울: IVP, 1995.
- Warfield, Benjamin B. 「기독교 기적론」.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 1993.
- Warner, Timothy M. 「영적전투」. 안점식 역. 서울 : 죠이선교회, 2005.
- Willard, Dallas.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6.

Wimber, John. & Springer, Kevin. 「능력치유」.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91.

Wimber, John. 「능력전도」. 이재범 역. 서울 : 도서출판 나단, 1991.

이운호 & Kraft, Charles H. 공저. 「가계의 복과 저주전쟁에서 승리하자」. 서울: 베다니, 2005.

4. 논문 및 정기간행물

김정우. “언약의 저주에서 본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신학’의 문제점” 「목회와 신학」 2000년 3월.

김종민. “John Owen의 Mortification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의무에 관한 고찰”. 신학석사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05년.

문상철. 「영분별도 이론의 신학적 문제」 <현대선교 제6호>.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4.

송제근. “모세오경에 나타난 저주에 대한 주해적 접근” 「목회와 신학」 2000년 3월.

오광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론은 과연 성경적인가”. 「교회와 신앙」 1999년 10월.

윤석호. “영적 전쟁: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에 대한 선교 문화인류학적 비판”. 신학박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6.

이장호. “인도네시아 자바 무슬림의 민간신앙연구”. 「선교와 신학」 11집.

조대준. “빈야드 운동 과연 성경적인가”. 「월간목회」 1995년 11월.

ABSTRACT

“A Study of Spiritual Warfare Seen from the Point of a Reformed View”

(A critique of the comprehension of spiritual warfare in Church Growth School)

JUNG, JE YOUNG

Th. M. in Systematic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Chongshin University

Recently, many books and lessons streamed under the subject that is spiritual warfare. Every Christian agreed entirely that they need spiritual warfare bu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among them that include spiritual warfar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was to criticize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spiritual warfare concept of Church Growth School in reformed-view and give an understanding of biblical spiritual warfare concept.

This purpose was accomplished by studying reformed theology in the bible. This study presented the concept of Church Growth School in spiritual warfare and what is the comprehension of Reformed theology in spiritual warfare. This exposition used historical and inductive methods to investigate these issues.

This was composed of seven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main argument in this dissertation. The first chapter was the

introduction and clarified the motive, purpose, extent and method of this research.

The second chapter presented the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church growth school that was started by Donald A. McGavran for the first time and the theological contents that they have in church growth school. McGavran established a new world mission graduate school and church growth research institute 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He was served by the first dean and spread church growth of thought with Peter Wagner, A. Tippett, Charles Kraft, Arthur Glasser and Ralph Winter.

The concept of spiritual warfare in Church Growth School said that the idea was systematized during the process when Peter Wagner presented a solution about Hiebert's Middle Zone. He thought church growth and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is that Christians pull down Satan who is being the active, powerful enemy in the Middle Zone. Therefore, they concluded that the spiritual warfare is the fight between the people of God and the devils of Satan. There are people of God and the devils of Satan in this world. There are a lot of theological content about spiritual warfare in Church Growth School, but the author introduced five that are insisting representation among them. The contents explained by the connected theological scholars' books were in the Strategic level of spiritual warfare, Territorial Spirits, Spiritual Mapping, the Generational Curse and Power Encounter. The important point of these was that Church Growth School thought that missionary works of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and healing happened because of the Holy Spirit's power.

The third chapter observed the creation background of spiritual warfare's comprehension that has Church Growth School. Western ideas which influenced them was rationalism (rational theology) which was the effect of philosophy on the center of reason and Pietism, Romanticism, Transcendentalism and Existentialism which was the effect of philosophy of the center of emotion in historic background. Church Growth School reacted dead-faced and the theology of rationalism which is the philosophy of reason-centered and unfolded its own theology through the emotion-centered that is Pietism, Romanticism, Transcendentalism and Existentialism. They were also influenced directly from the background of Pentecostal theology.

Thus, the author presented Montanism which was the most mysterious movement in the early church and the Pentecostal Movement (first wave) and Charismatic Movement(second wave) that influenced the Church Growth School.

The fourth chapter criticall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biblical basis, method and concept of spiritual warfare of Peter Wagner and John Wimber, who gave the most effect in their thoughts of Church Growth School.

The fifth chapter emphasized the spiritual warfare which is seen from point of reformed-view. As we know that it has appeared in Ephesians 6:10-20. We must fight with sin that dwelled in our soul. We can fight against sin with exhaustive obedience about God's words and continuous prayers depending on God's power and safekeeping. Spiritual warfare is to give our hearts to God. Through this, we can keep relating with God well.

The sixth chapter presented the effects that the spiritual warfare movement of Church Growth School challenged people with in reformed theology. First, through this concept that was called Middle Zone, it gave new recognition many theologians, missionaries and pastors that received effect of illumination in reformed theology. Second, actual recognition about spiritual warfare has been very lacking inside reformed people. Church Growth School challenges people to recognize the spiritual wasteland of modern carnal-minded age. So they insisted again that this world is a spiritual battle place for the glory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in reformed theology. Third, the comprehension of spiritual warfare of Church Growth School promoted new understanding that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mission and the fruit of pneumatology is the dynamic mission in Jesus. This theory is reawakened by the Church Growth School. Finally, they influenced the rethought of pneumatology in reformed theology. Traditional reformed theology conducted signs and wonders as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as indication of the apostle's authority to build God's church in early Christianity. Therefore they are no longer looked for in the church today, It cannot be denied, however, that God still answers the prayers of his people in miraculous ways. But Abraham Kuyper insisted that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s continued as a weak nowadays, even though he denied that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s a same with the Pentecost in Act 2.

Montgomery Boice and David Wells must not deny external gifts by the Holy Spirit. They don't get up in situations where external gifts by the Holy Spirit is ordinary, but they thought it happened exceptionally in

situations where God's people is becoming tight and hostile in God's will. Church Growth School influenced these people like this.

To estimate the wrong points that the Church Growth School had is the same as follows. First, these showed a limited comprehension about the kingdom of God. They emphasized excessively on the presence of God's kingdom. They also composed the theology of the Holy Spirit's gifts as signs and wonders that are based on experience, but not by the Bible.

Second, they are so poor in understanding the Strategic-level of Spiritual warfare Territorial Spirits, Spiritual Mapping, the Generational Curses and Power Encounter in the basis of the Bible. When some new schools registered theories or reach some conclusions, the last basis confirms that it must be the Bible that is God's word. Even if probability and theory have excellent logic, we must not extend the truths that are silent in the Bible.

Third, their worldview was not a biblical worldview but a mix of an India-European and a magic worldview. They unfolded theology of being too centered on experience. They insisted on its biblical basis, but frankly it i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mission field. Christian history certified that experience-centered faith that is not based on the Bible showed many controversial points.

Fourth, Church Growth School made human's responsibility weak. Their theologies mistook that human's responsibility went totally to Satan.

Fifth, even though there are 66 books of the bible, they insisted that

private revelation is given from God these days. This can refer to a big mistake that shakes Christian- centered truth.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spiritual warfare in Reformed viewpoin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piritual warfare that Church Growth School is advocating. The author found a big part that is different in concept, target, field and method of spiritual warfare. Of course, the Bible clearly said that there is spiritual warfare in this world among people. But, there is a difference as I discussed about fighting spiritual warfare. First, spiritual warfare that says in the Bible is not mysterious war with Satan that can bind us in words which we say. It is not a strategy to learn from 'Specialists' that attainment is deep in spiritual warfare. Spiritual warfare is a continuous and recursive turning coming from darkness. Second, we can misunderstand that we must only fight devils as an object of spiritual warfare.

But the Bible objects that we must fight sin inside our souls and speaks that we must caution Satan who instigates the sin. First, believers must fight with sin. Temptations that impede us doesn't just happen by the works of Satan. Second, there is the existence that believers must be warned about is Satan and his devils. We must recognize truth that we will be attacked by Satan and we must be warned. If we don't consider the phenomena that come from Satan, we may recognize this truth as it is only by rational judgment. It is another mistake. Third, the field of spiritual warfare is in the human's mind. God wants us to be loyal and to fear Him. Likewise, Satan requires the humans' loyalty to himself. He accomplishes this by method of blindness

and temptation. This work that believers try to look back upon God is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and spiritual warfare in the mind. Fourth, Satan bears, enthralls and robs truth in our inner lives. It is his method that Satan tempts believers by lying and eliminating our interest in God.

There is a method that can take the victory from sin that may influence us. The first method is God's word that we must hear and keep and strengthen by patience. The second method is that we go to God's side as trusting God in Faith. The third method is deep and promotes good relations with God through prayer. The fifth method recognizes truth that Jesus Christ died, resurrected and reigned for us in the gospel. Genuine spiritual war is battle to give yourself to God so that God's words can work dynamically inside your life.

Under the Holy Spirit's power, biblical worldview is covered by magical and pagan thoughts nowadays. This age is misleading as power shows talk using a strong vocal tone. Nevertheless, the concept of spiritual war that resides in Church Growth School is not the truth that is said in Christian religion tradition. It is misrepresented in missionary work and organizations' books which is Christian religion broadcasting or other influences. If I criticize their thoughts, many people tell me that I am a rationalist or that I have a contradictory frame of mind. But the truth does not change. Even if many people follow that theory, and it seems like the truth in this period, we must check the contents in the Bible.